MAR 1 6 1982 |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71 1982년3월12일(금) 13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March 12 & 13,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50세이상 海外여행 自由化

내년 1월부터, 80년대중반 전반 허용

노외무, "적극 문호 개방정책 추진"

(서울본사전화)정부는지난해 8월 해외여행자유화조치에따라 내년 1월 부터 50세이상에한해 해외관광여행을 자유화 시키고 80년대 중반기부터는 연령제한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노신영 외무장관은 국회외무위원회에서 참석해 올해 외교시정목표를 통해이같이 밝혔다.

또한 노장관은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80년 대외교정책의 중요근간으로 삼고이의 실현을위해 구체적으로 비정치분야 행사에대한 중공과의 공동참여를 확대하는등 적극적인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방문 입국검색 까다로워

왕복항공표, 여권, 초청장등 완전요구

(LA지사)최근 미국에입국하는 일시방문자에 대한 미이민국 공항검색이 강화되고있다.이민국은 전미주의 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일시방문자들의「왕복항공권」을 집중체크,여행목적 체류기일,초청자의 신원보증등에관해 까다롭게 확인하고있다.

시카고 오헤어공항의 경우,이미 지난 연초부터 미국의 연고자 초청으로미국에 방문하는 교포들이「왕복항공권」을 지니지않았다는 이유로 5~6명이 공항에 일시억류또는 초청연고자의 보증등으로 풀려나오는 소동을 빚고있다. 어떤 경우에는 유도질문까지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토렌스에 거주하는교포 김기수씨(가명)는 오는 4월께 초청으로 도미할 장모에게 장거리전화로「LA공항에 도착후 절대로 세관및 이민국직원에게 초청장이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말고 또한 체류기간등을 분명히 말하라고 당부했다」며 입국절차를걱정했다.

뉴욕이민국의 자네트·그라함 공보관은 8일 본부와의 통화에서「미국방문자의 왕복항공권여부 보다 입국자가 미국에 머무는동안생활에 필요한 충분한돈이있는가에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방문자 에게는 아직 별다른조치가 취해지고있지 않으나 캐나다시민권을 소지한 교포일지라도 미국여행에는 신중한 준비를 하여야한다. 아이들을 동반할때는 반드시여권,시민권,또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지참해야 한다.

▲한국인 일시방문자들에 최근 부쩍 까다로운 입국수속을 실시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진 미주의 자국제공항의 이민국창구. 시카고 오헤어공항의 경우 한국인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수속을 처리하라는 이민국의 안내문까지 나붙고있다.

음모사건 재판 또 1주일연기

전대통령 살해음모 혐의자인 야노버와 제롤의 공판시일확정재판이 일주일 더 연기됐다.

11일아침 온타리오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판사는 제롤과 야노버의변호사들과 수사반장이 합의한대로 다음공판일시 확정재판날을 오는 18일로 미루자는 연기신청을 받아들였다.

야노버의 보석적부심 공판이 오는15일로 연기된관계로 재판날자 확정도 따라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직후 수사반의샌멜리형사는 말했다.

진료비 인상협상 난항

주정부, 의사협회 대결

온타리오주정부와 의사들의 진료비 인상안을놓고 싸우는 줄다리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9일 하버드법대 캐네디안 교수이며 협상위원회의 폴·웨일러씨가 제시한 14.25%의 인상은 의사들의 심한 반발을받고 있다.

웨일러교수는 의사들이 오는 4월부터 7%인상된진료비를 받을수있고,83년 1월 다시 7·25%진료비 인상안을 제시했다.

온타리오 의사협회는 이같은 인상안에 대해 심한 반발을 보이며,의사들이주장하는 26.7%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투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지난2월1일 진료부에이어 의사들이 벌일 2차투쟁방안은(1)환자들은 병원으로 후송할때 반드시 앰브란스를 타게하며,(2)전화처방을 중지하고,(3)중세가약한 환자의 검사과정을 늘이며,(4)환자를 될수있는한 병원에 오래묶어 둔다는등이다.

온타리오주는 OHIP이란 공영의료보험정책을 실시,전주민과 6개월이상 장기여행자등이 혜택을 받을수있게하고 있다.

의사들의 진료비 인상안은 정부를 상대로 한 것으로 진료비가 인상되면 시민들의 OHIP보험료가 오른다.

외산화장품 수입허용 한국 내년부터

(서울11일=연합)한국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산 화장품수입 자유화 정책을시도한다

보사부가,국회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향수류,피부보호액등을 83년에 수입자유화 시키되 86년까지는 전면자유화한다고 되어있다.

▲1896년도에 하워드대학에 유학했던 한인학생 7명들. 당시 선생이던 Rankin여사(뒷줄 오른편에서 두번째)가 함께 있다.

美하워드大에 留學했다 이조말 舊韓國학생 7명

1896년도 당시 總長연례報告書 밝혀 "돈전 한푼없이 도움청해 도와주었다"

(워싱턴지사) 한미수교백주년을 맞아 한미양국관계에 관한 학문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요즈음 워싱턴D·C에 있는 하워드대학교 도서관의 윤일상박사(동양학과 책임자)는 1896년에 이조말구한국 유학생이 7명이나 하워드대학에 유학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같은 사실은 1896년도 하워드대학 총장의 연례보고서에 기록되어있다.

이기록은『동전한푼없는 한국인7명이 본대학에 들어와 도움을 청하여 직접 간접으로 그들의 유학을 도왔다』고 쓰여있다.

이 한국인7명은 안준식,강은태,김식헌,김윤정,박성K,송영택,김하 등 모두 코리아의 서울출신으로 1895-96년도 동대학 카다록의 학생기록에 적혀있다.

또 1889-99에도 5명의 구한말 유학생도 하워드대학에 있었는데 그들은 강은태,김윤정,서도회,송영택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최초의 유학생 7명중 4명이 최소3년이상 그학교에 재학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있다.

1899년의 하워드대학의 총학생수는 약2백명 이었다.

CBC-TV, 종교특집 TV복음방송 비판

CVC-TV(채널5)는 오는 3월28일 밤9시부터 TV매체를 이용한 복음전파자들의 맹목적 신앙강요에대한 특집프로"기록"(The Record)을 방영한다.

이프로는 토론토 스타지의 종교란 편집자 톰·하퍼(Tom Harpur)씨가 지난 2월6일 캐나다의 종교방송의 앞날에관한 캐나다방송위원회(CRTC)의 특별청문회를 취재한것을 토대로 한것이다.

이 프로는 TV라는 전파매체가 매디아로서, 또한 사청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여론 조작자로서어떤작용을 하는가를 파헤쳐주며,TV복음설교가들이마치 상업광고처럼 시청자들로 하여금 맹목적인 신앙을 갖도록 유도하고있다는 것이 제작자 존·트렌트 의 주장이다.

이 프로에는 TV 설교에 미친 한가정부가 남편의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점맹목적 신앙에 빠져들어가는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있다.

트렌트씨는 또 비록 설교자들이 맹목적 추종자들에게 헛된 약속이나 단순한 해결책을 제공하고도결과가 좋지않을때는"신앙이 약한때문"이라고 책임을회피한다며 이 프로는 이런 부조리를 파헤치기 위한특집이라고 말했다.

「暴利쌀」告訴

"한국관리에 뇌물, 톤當百弗비싸게 팔아"

(샌프란시스코=AP) 가주미곡재배자연합회와 미곡농 협동조합은 지난 4일 한국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가주쌀을 시장가보다 비싸게 판 매시픽·인터내셔널·라이스밀스사(샌프란시스코 소재)와 본사를 스위스에 두고 있는 애그로프롬S.A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연방법원에 고소를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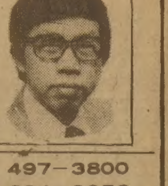
소장에 의하면 두 회사는 한국조달청의 일부 인사에게 이익의 일부를 주는 대가로 가주산 현미13만톤을 싯가보다 톤당 1백달러나 비싼 4백50달러에 사가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이같은 거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illegible]가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이번 거래에는 대외국미곡판매에 관한 연방법을 위반하려는 조직적 계획이 도사려 있었다』고 비난했다.

소장에는 두미곡회사 외에도 김주호조달청장과 애그로프롬의 이지사인 애그로프트사및 월렴·메텔애그로프트사장의 이름이 명기돼 있으며 가주미곡재배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3배의 배상과 구제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했다.

The Hankook Ilbo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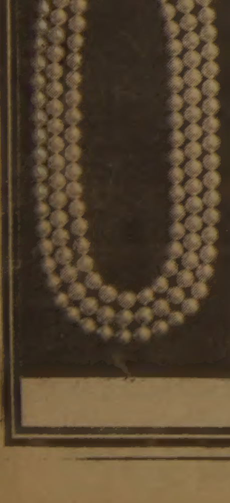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환은행
[illegible] 1-2890
2 F[illegible] CANADIAN
PLAC[illegible] UITE 1140

축
개업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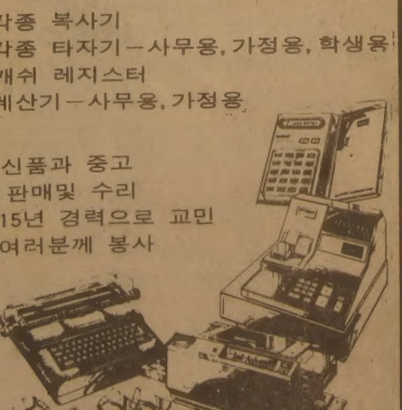


세계적인 명소 — EATON센타와 같이 태어난「고려보석」
성실한「써비스」, 신용과 권위를 폐사의 모토로 하고 있는「고려보석」은 교민의 긍지를 함께 자니고 있읍니다.
카나다보석 협회 회원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분수대 옆)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소규모기업의 불황타개묘책

정확한 예산, 철저한 관리

3월초 발표된 캐나다통계국 지표에 따르면 작년도 캐나다 국가총생산은 3/4분기, 4/4분기 들어 계속 하락, 이같은 경제상태를 경기후퇴, 경기침체, 공황등 뭐라고 부르건 여하간 경제가 나쁜 상태에 있음은 틀림없다.

최근 신문들의 경제난은 대기업이 경기침체에 어떻게 대처하나에 관해서는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나 소규모 비지니스에 관해서는 인색했다.

가족이 들러 붙어 하는 패밀리·비지니스의 경영자가 이같은 불황을 무난히 타개해 나갈 묘안을 공인회계사 앤·드로즈씨 에게서 들어본다.

도르즈씨는 기업의 규모가 크던 작던 경영의 대원칙은 "수입원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로 소규모 비지니스의 회계를 맡고 있는 도르즈씨는 불경기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당신의 경영실적이 만약 전년도보다 나쁘면 소득세는 더욱 나쁜 실적을기준, 지불하라.

4월이후에 세무소로부터 과잉지불 차액을 되돌려 받느니 일단 세금을 적게낸 다음 세무당국이 추징하는 이자를 포함한 과태료를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세무당국이 가산하는 이자율은 시중은행보다 싼 16%이니까.

◇외상값은 기한내에 받아라. 전화나 편지등의 방법으로 수금에 박차를가하라.

◇예산을 정확히 세워 현금이 필요한 시기를 미리 계산하라. 예상치 않게 연료비 같은것이 기업의 현금유통을 곤란하게할 수도 있다.

◇새 장비구입을 1년뒤로 연기할 수 있는지?이것은 연방정부의 새예산안이 새 장비의 1차년도 감가상각 비보조를 중단키로 한것도 참작해야 한다.

◇특히 금리가 높을 때는 인벤토리(재고량)를 될 수 있는한 줄여라.

◇당신이 단골로 믿고 거래하던 도매업자가 더비싼 가격을 매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품목별로 값이 싼 도매상을 찾아라.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라. 단, 고용주는 싼 임금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업무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재검토, 여유있는 공간이 있으면 세를 주어 수입을 늘려라.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획뿐 아니라 과거 실적도 재검토하라. 예상수입이 한정돼 있을때는 지출을 될 수 있는한 줄여야 하니까.

◇앤·도르즈양

인프레는 예전에도 — 위안은 있다 —

20세기는 인프레이 션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인프레이션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시대의 창조물만은 아니다.

아메리카 백과사전에 의하면 인프레이션이 최초로 역사에 기록된 시기는 16세기초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당시 치솟는 물가로 생존위협을 받은 농부들은거리로 쏟아져 먹을 것을 구걸했다. 절망에 빠진 농부들은 폭력을 사용했으며급기야「농부전쟁」(1524~1526) 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로부터 300 여년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부지방의 물가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아 양배추 한 포기에 $1.25, 부츠1켤레에 $200, 밀가루 1통에 $2.75 였다. 당시남부 연합군의 한달 봉급은 $18이었다.

전쟁이 끝날무렵 밀가루 가격은 무려 1통당 $1.000로 뛰었다.

1차세계대전이후 1923년의 독일은 독일마르크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근로자들은 봉급을 부대자루에다 받아야했다.

당시 음악회출연 연주자는 여행용가방 가득히 출연료를 받았는데 집에오는 도중 소세지 2개를 사기위해 가진 돈의 절반을 썼다. 그런데 다음날 그는 나머지 절반의 돈으로 소세지 1개도 살수 없었다 는에피소드가 있다.

인터뷰

친목단체로서의 본보기

재선된 동우회 회장 원영신씨

교민 최중화등이 관련된 대토령음모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우회는 정치단체도 사회단체도 아닌 단순히 동고동락하던 동지들끼리 뭉친 친목단체이다.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하는 원영신 동우회장(48).

그는 지난 2월26일 동우회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재선됐다 총회도중 여러번 사양도 했으나 그의 능수능란한 의사 진행솜씨 등은 이날 모인 50여 동우들의 승락 재촉 성화를 받기에 충분했다.

동우회는 77년8월 서독에서 같이 광업에 종사하며 고생했던 동지들 380여명이 모여 조직했다. 토론토한인사회의 많은 단체들중 재력으로나 역사 적으로나 비중이 큰 단체임에는 틀림없다. 회원 가족까지 합치면 천여명을 훨씬 넘는다. 매년 6,7월중에열리는 야유회에는 7백여명 동우가족이 모여 운동회를 즐기고 불고기파티등으로 한때를 지낸다.

회원들의 이민연조가 짧다는 것은 지난1월말 한국동계체전에 출전했던토론토교포소년 하키팀 와일드 캣츠의 선수 90%가 동우회원들의 아들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일을 하자면 욕도 많이 먹는다는 원회장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또 동우회 회원이 끼었다고 하는 교민들도 있지만 그것은좀 부당해요. 개인이 저지른 불행한 일이지 결코 동우회원이기 때문에 일어난일은 아니지요 "이상하게 동우회원이라면 교민들의 인상에 오래 남은 것같다"고 말했다.

인터뷰장소에 동석했던 고광남이사는 "경노 대회, 예술행사 축구대회등 교민사업을 가장 많이 벌린것도 동우회이다"면서동우회의 업적을 다시 평가할 때가 온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훈 나덕현(회장대리) 이기천 정화진 씨등 역대회장들이 벌린 경노잔치 범교민축구대회등은한인회가 주관하는 어떤행사보다 규모가 컸다.

작년초 4대회장에 취임했던 원회장은 "이제 한인회도 기반이 됐고 체육회등 다른단체도 많으므로교민들을 위한 사업은 기타 교민단체에 맡기고 동우회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고 81년도 첫 사업으로 동우회기금 10만 달러모금 5개년계획을 세워 목표액 2만5천 달러중 불경기에도 불구, 2만여달러가 약정내지 이미 완납됐다. 82년 모금목표 1만5천달러. 83년 1만달러등 총 5만달러가모금되면 85년말에는 이자까지 10만달러가 모여진다

이 기금을 무엇에 쓰겠냐는 질문에 "순전히 동우회원들의 노후를 위해 쓸 예정이다. 캐나다 사회란 자녀에게 의지하는것을 허용치않치 않느냐"고 말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장로교신자였다는 원회장은 술, 담배를 절대 안한다. 신자로서의 사명감을 회장 취임승락전제조건으로 동우회는 일요일에는 아무사업도 안한다는 불문률도만들게 하기도 했다.

(유승민 기자)

교민동정

◆이상수(서울식품 경영)=다년간 서울식품을 경영해온 매부 박인조씨로부터 동 업체를 인수, 새 주인이 됐다 (367 Pitfield Rd. 맥컨×401, Tel: 291-8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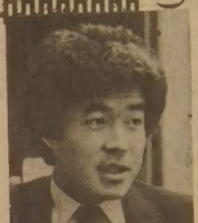
◆이기천(전 동우회장) 김정곤(전 실협회장)= 가톨릭신자로서 3월초 뉴욕에서 있은 3박4일의 특수신심(信心) 묵상회「꾸르실료」에 참가하고 토론토에 돌아왔다.

이·김씨는 지난 7일(日) 아침 토론토한인천주교회 꾸르실료 주회(週会)에서 묵상회 참가소감 발표에서 신앙의 활성화에 도움이컸다고 고백.

경제생활과 우리

투자상담편 ⑪ 담당 강상욱(메릴린치 증권회사 근무)

캐나다증권시장 비교적안정



◇강상욱

증권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도 있는데 투자를 안하는 이유는 방법을 모르는것보다 돈을 잃을수있다는 심리적 위험때문이다. 증권투자에서 생각할수있는 위험은

(1)증권의 선택에따른 위험.

증권투자하면 한국의 증권시장을 생각하기 쉬우나 이곳의 증권시장은 한국보다 훨씬잘 조직됐다.

한국에서 증권이라 하면 역사도없는 회사들의 보통주식이 고작이고 여기에다 급변하는 정부의 정책결정까지 겹쳐 상층부로부터어떤 정보를 받지않으면 돈을벌기가 용이하지않다.

회사의 운영을보면 한국에서는 기업주가 자금을유용할 소지도 있으나 이곳에서는 그런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회사가 돈을벌게되면 그 이윤은 주주들에게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증권의 종류를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보통주식에 거의 국한되어 있지만 이곳에서는 Bond, Commodity (금, 은, 곡물, 통화), 우선주선택등 거래대상이 아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기반이 없는 회사의 주식일 수록 값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가들은 위험이 있는줄 알면서도 투기적인 주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양질의 주식을 택할 수 있으며, 국채같은 것은 은행의 예금증서보다도 더 안전하며 요사이는 이율도 더 높다.

메릴·린치(Merrill Lynch)같은 큰 증권회사에서는 방대한 연구부서를 갖고 고객이 살 수 있는 주식과 살 수 없는 주식을 1에서 6등급으로 구분 하여 양질의 3등급까지만 구매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의 선택에서 따른 위험은 투자가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다.

②증권회사의 선택에 따른 위험

증권회사의 도산이 염려되어 투자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우라 할 수 있다.

전액을 지불하고 증권을 살 경우는 소유주는 구매자인 만큼 증권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단 Margin 으로 산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으나 증권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에서는 증권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법(SECURITIES INVESTORS PROTECTION CORPORATION)에 가입됐으며 이런 경우 증권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일인당 50만달러까지 보상받는다. 캐나다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도산때문에 투자를 못할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염려가 된다면 큰 회사를 선택 하면 된다. 큰 회사의 선택은위험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연구자료를 얻을 수 있

증권회사 선택도 중요
투자보험$50만까지 보호

고, 거래를 신속히 할 수 있는데 있다. 크고 전문적인 투자가일 수록 미국계 회사들의 증권들을주로 취급한다.

③시기(Timing)선택에따른 위험

증권투자의 핵심은 시기의 선택이다. 필자가 수출입을 하다가 증권투자를시작한 동기는 물건을 가져간 회사가 도산함으로 수만불을 수금하지 못한데있다.

5%정도의 이윤을 위해 엄지도 못하는 회사에게10만달러씩 외상을 준다는것은 따지고 보면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니다. 증권을 사면 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올라 가게 되어있다. 투자가가 사전에 모든 정보와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한 실패율은 많지 않다. 더우기 물품을 상대금처럼 전액 못 받는 일은 없다.

언제나 사고 파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라면, 지혜있는 사람에게는 증권투자처럼 매력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투자가가 전문가들 처럼 투자에 대한 지식과 기교를 습득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문제는 좋은 회사의 좋은 브로커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회사의 성장은 고객이 돈을 벌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증권회사와 브로커는 최선을 다해 투자가의 투자 결정을 도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증권을사야할 시기가 아닌 경우 에 증권을 사야겠다고 우기는 고객이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대중이 사야겠다고 몰려드는 시기는 사실상 팔아야 하는 시기이며, 전문가들은 이런 때에 팔고 왔다.

그러므로 일단 투자에관심이 있는 사람은 미리 브로커를 선정하여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적절한 시기가 올 때 투자를 결정해야 할것이다.

편집자주: 그동안 12회에 걸쳐 연재하던 강상욱씨의 투자상담은 오늘로 그치고 다음에는 오는 4월말로 다가온 소득세 납부를 위한 세무상담을 게재한다.

투자상담에 관한 문의는 메릴 린치의 Mr. 강에게(전화 361-3428) 직접하면 된다.

세무상담을 보내드릴 분은 블루어에서 2개월전 회계사무소를 개업한 김명숙씨(본명 유명숙)로 캐나다에서만 C.A사무실 근무등 회계경력이 6년 이상이다. 세무에 관한 의문은 필자나 본사편집부로 문의하면 동 칼럼에 반영한다.

개업5주년 사은대매출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밭식품은 미국 LA의 D Y FOODS사와 제휴하여 각종 한국식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아오니 일차 왕림하여주시기 바라옵니다. 특히 국보쌀에 못지않는 가주미와 참기름. 국수 고추가루. 새우젓 종류등은 저희한밭식품의 자랑이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DY加州米 50Lb $15.95

DY참기름		7.95
가도야참기름		8.95
미국산사뽀로이찌반 24		7.95
DY우동국수	5LB.	3.99
DY막국수	5LB.	3.99
DY소면	4LB.	2.99
DY당면	1LB.	1.99
DY엿기름	1LB.	1.99
DY메주가루	1LB	1.99
김치용한국고추가루		2.99
햇김1등풍	100장	14.99
새우젓특등품	1LB	1.59
회조개	2LB.BAG	7.99
DY낙지	2LB.BAG	6.99
멍게	1LB.BAG	3.99
물해삼	1LB.BAG	3.99

농장산 다꾸앙 총각무 대량입하 LB당 49¢ 50LB BOX구입가능

※영업시간 : 일요일은9~ 8PM영업중 ※주문배달

한밭식품

466 SOUTH SERVICE RD. MISS.
(South of Q.E.W. —Between Hwy10 & Cawthra
274—2401. 625—1078 임수철 설동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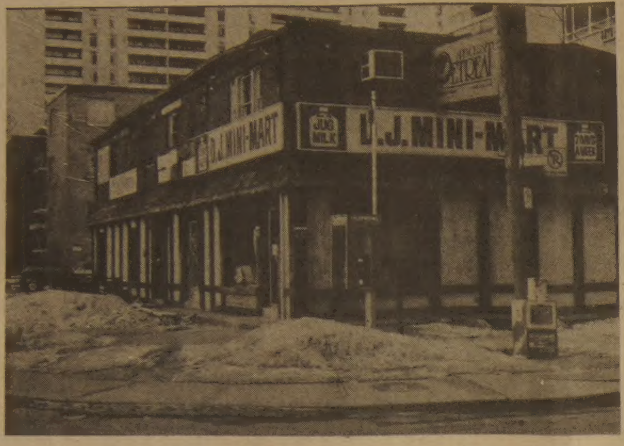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752-7771

회원 이성수씨상점 불의의 화재


◇화재를 당해 지붕이 내려앉은 D.J.미니마아트.

지난2월14일(일)새벽3시 뜻밖의 화재로 회원(#362) 이성수씨의 D.J. 미니마트 (838 Roselawn Ave.)스토어가 큰 피해를입고 문닫고 있음이 알려졌다.

갑자기 일을당한 이씨가 경황중에 미처 협회로 알리는것을 잊고 있었으므로 간접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협회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찾아가 확인했다.

정확한 화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있어 뒷처리도 못하고있는 처지였으며 화인을 찾기까지 원상을보존해야 하기때문에 출입을 금하고있어 정리와 청소도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오는(3월8일)현재도아무 진전이없어 이성수씨 부부는 매우 안타까와하고있다.

빌딩에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새벽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마는 삼 시간에 빌딩전체를 전소시켰으며, 연락을받고 달려온이씨에 의하면 웃층이 연 소중일때도 아래층 점포의전기불이 꺼지지 않은것으로 보아 전기누전은 아닌것같다고했다. 그 빌딩의 주인이기도한 이씨는 가게의전 스탁을 쓰레기로 내다버려야할 딱한 처지이지만 빌딩에대한 상당액의 보험이 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나그 보험을 주선한 에이젠트가 가입지분을 3개 보험회사에 분산하여 가입했는데, 그30%의 지분을 카버할보험회사가 불실업체로 이미 파산되어 있음이 변호사에 의해 발견되어 그 보험금을 받는데도 약간의 문제성이있어 또하나의 딱한실정에 직면했다.

주인이씨는 협회가 뒤늦게나마 관심을 표명한 격려에 감사하면서"나처럼별안간 일을당했을때 당황하지말고 평소에 자기가 관계하고있는 보험관계를 무심히 잊지말고 첵크해 보기를 협회원들에게 당부하고싶다. 지금 처지로는 언제 상점을 다시 오픈하게 될지 암담할 뿐이다"라고 한숨지었다.

이같은 재해를당한 회원의 고난을 십분 이해하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리는 바이다.

협회는 스타보험이 없어 막대한 손해를본 상품의크레딧을 각 생산회사에 교섭하여 조속한 복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실 운영실태

지난2월8일 강공선 상담실장의 취임과 더불어 운영되어온 콤플레인 상담실의 운영실태를 그 유형별로 분류, 검토분석하여 회원들의 당면한 주요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앞으로 협회운영에 참고삼고자 그 통계를 분석했다.

회사별 유형별 통계는도표와같고, 그중에서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당하고있는 고충을 추려보면 다음과같다.

(1)「메트로 뉴스」잡지의 리턴과 크레딧의 차이가심하여(물론 회원측의 착오일수도 있음)상당액의 손해를 보고있는 문제.

(2)「인터씨티」잡지의 대금결재방법이 분명치 않은 이유로 차치에서 C.O.D로 전환되고 있는문제.

(3)「토론토·선」을 새벽에 밖에 내던지고 감으로써발생하는 도난, 책임한계 크레딧문제.

(4)팝회사가 스패셜에 있어서 인근상점과 차별을두고있고, 적시에 배달을 잘 안해주는 문제.

(5)작은가게에 대한 빵배달회수를 주2회까지 줄임으로써 상품판매에 곤란을 주는문제.

이상 주요문제에 대해서는 협회회장단이 개개회사를 방문, 직접 논의하여 해결책을 추구할 계획중에있다.

회원들의 모든 문제를그때그때 만족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일이 경과하여 자리가 잡혀지면 원활한 운영이 예상되므로 회원들은 인내를가지고 계속 이용과 지도를 바란다 — 상담실 —

2월중 상담 처리 사항 통계표.

유형별		회수
배달	Delivery	18
리턴과 크레딧	Return & Credit	13
리베이트	Rebate	7
운전수	Driver	5
문의	Inqiry	4
수익	Discount & Profit	3
가격경쟁	Price competition	2
대금결제	Charge & C.O.D.	2
전시	Display contract	2
폭행	Violence	1
경찰	Police	1
품질	Quality	1
소독	Pest control	1
고객불평	Customer complaint	1
합계		60

회사명	건수
Coca Cola	9
Metro-News	7
Silverwood Milk	7
Intercity	6
Toronto Sun	4
Dempster's Bread	4
York Icecream	4
Silverwood Icecream	3
Gemeral Bakery Bread	3
Sealtest Milk	2
Rothmans Cig.	2
Neilson Icecream	1
7-Up	1
Pest Control	1
Christie Cookie	1
Hostess Chips	1
합계	56건

글로브·패스트·컨트롤회사

—한번 소독약 살포에 $8씩

지난3월5일(금)협회집행부는 그간 많은문제를 야기시켜온 패스트·컨트롤문제를 글로브 패스트 컨트롤회사의 데이브·존스씨와 일괄계약을 맺음으로 타결지었다.

패스트·컨트롤이란 일종의 방역조처로써 보건소에 의해 수시로 점검되는 중요한 일인데, 바퀴벌레, 쥐등에대한 소독약을 살포해야 하는것이다.

그동안 협회는 패스트컨트롤회사와 협약을맺고 이를실시해 왔었는데 이들이 임의로 1년분 수수료를 일시불로 지불을 요구하거나, 이니시얼(Initial)차지를멋대로 하거나 수수료의 일방적인상, 협회를 중상하는등 여러가지 횡포를 자행하므로 그 계약을 파기하고, 적당한 회사를 물색중이었다.

이번체결한 글로브회사는 성심껏 회원들에게 봉사할것을 다짐하면서 수수료를 특별히 $8로 책정하고, 1개월에 1회씩 살포하는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같은 회생적인 봉사료를 감안하여 피차에 협조하는 자세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요망한다.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봉사,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멀티메디아 포켓북
(MULTIMEDIA DISTRIBUTORS)
127 TELSON ROAD MARKHAM
ONTARIO, L3R 1E7
TEL. (416)495-9499

실협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K.B.A.)와 협약을 맺고 포켓북을 공급 써비스하게 되었읍니다. 아래와 같은 계약 내용을 따라 성심껏 봉사하겠읍니다. 자세한것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세일즈 맨을 보내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협약내용
Net Billing(Total Invoic billing)
매 3개월 분기별
$0.00—$800. 리베이트 없음
$800.00—$1 500. 2.5% 리베이트
$1,500~$2,000 5% 리베이트
$2,000이상 7% 리베이트
Rebate는 매 분기말 15일이후 지급함
1982년2월19일 8
사장 Joe C. Dwek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30%Off for K.B.A. Members
Paper roll Each Cach=100Roll

Size	Reg Price	
27mm×79.5mm	$72.60	$50.82
37.5mm×79.5mm	$81.40	$56.98
40mm×76mm	$83.10	$58.98

NCR Style(수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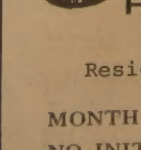
53mm×12mm	$107.80	$154.00
33.5mm×50.5mm	$35.42	$50.60

■캐쉬 레지스터 ■복사기 ■계산기■각종 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 - 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ive,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강인환

L. L. B.
Video Amusement LTD.
리베이트 $100불!
Rebate $100, 협회원들에게

본사는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비디오 게임 머쉰 공급회사로서, 가장 이윤이높고, 인기가 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아울러 실업인 협회를 통하여 저희들 머쉰을 3, 4월중에 설치하시는 회원 여러분께는 첫 달 에 한하여 $100불의 리베이트를 드리겠읍니다.

※카버지역 : Metro Toronto 전ONTARIO지역
※신청연락처 : 실업인협회 ☎752-7771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Q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銀行貸出싸고 巨額뇌물
支店長3·업자2명 拘束
은행幹部 2명 連行 조사

住宅銀·企業銀行등 관련
8億4천만원 대출 미끼
謝禮費 千5백만원 받아

치안본부는 8일 은행대출을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사례비를받는 금융부조리에대한일제수사에나서 1차로 주택은행과 중소기업은행지점장을 포함한 은행간부와 업자5명을 구속하고 2명은 조사중이다. 치안본부수사대는 이날 주택은행 城東지점장 李建壽씨(51)를 배임수재혐의로, 李씨에게 돈을준 中東개발공사대표 李養成씨(47·전과13범)를 사기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구속하고 본점부장 1명과 城東지점대부과장 金源用씨(51)를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中東개발대표 李씨는 지난80년3월부터 81년12월까지 安養에 백조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택은행 城東지점에서 건설자금으로 8억4천만원을 대부받고 3회에걸쳐 지점장李씨에게 9백만원을 사례비로 주었다는 것。지점장 李씨는 이중에서 본점부장과 城東지점대부과장 金씨에게 각각1백만원씩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中東개발대표 李씨는 또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희망자 80여명으로부터 2중분양을해 1억여원을 사취했고 아파트를 담보로 2억3천만원을 편취했으며 자재대등을 약속어음으로 지불, 4억5천만원을 부도냄으로써 모두7억8천만원을 사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은행 新吉洞지점장 李鎬忠씨(50)와 한일은행 전 明洞지점장 李範相씨(53·현 小公洞지점장)、모회사상무 盧尙圭씨(41)도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新吉洞지점장 李씨는 80년10월부터 지난해 7월사이 진영주식회사에 대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4~5차례에 걸쳐 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진영주식회사는 半月공단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대표 盧在明씨(50)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마다 지점장에게 뇌물을 주어왔는데 대표 盧씨는 이사건이 터지기전 해외로 이주한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公職사회淨化 課長級이상에 力點
淨化委、庶民생활沮害非理도 제거

社會淨化위원회는 올해의 公職사회淨化의 역점을 부패심리추방에두고 특히 課長급이상 중간관리층에 중점을두는한편 자율적으로 부조리를 제거하는 풍토조성에 힘쓰기로했다。

사회정화위가 8일 국회운영위에서 행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의하면 利權개입과 청탁배격、무사안일자세 시정을위해 과장급이상 중간관리층을 특별관리하고 통금해제에 따른 사회질서확립에 힘쓰기로 했다。서민생활과 직결되는 非理와 폐습의 제거를위해 사기、도박、착취、부정불량상품과 不正계량기、不良·低質만화、不實직업소개등에 중점을두기로 했다。

淨化委는 또 국민의식개혁을 위해 국민운동조직의 不適格위원을 교체하고 이같은 조직에 여성위원의 참여를확대하는 한편 三大否定的심리의 하나인 부패심리추방을위해서는 陰性的인 金品거래풍토를 개선키로했다。

安武赫사회정화위원장은 이날『앞으로 사회정화작업은 국가司正5개년계획에 맞춰 추진하되 高位공직자、사회지도층및 다수국민의 저해를가져오는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정화해나가는 한편 이를위해 국민운동조직을 육성、발전시키고 사회정화이념을 확산、보급해 3大否定심리추방등 국민의식개혁운동을 활발히 벌이겠다』고밝혔다。

醫療보험 실시 文藝人 7천명

문공부는 올해 文藝人 인생복지의 확대를위해 문예후 7천명이 가입하는 의료보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공부가 8일 국회문공위에서 한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문예인74명에 대해 장학지원을하고 국내연예인의 취업확대에 힘쓰기로했다。

문공부는 또 문화예술의 사회교육기능확대를 위해 박물관대학과 현대미술·국악에 대한 강좌수를 늘리고 신문이나 방송이 행하는 문교육사업을 지원하며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를 적극화、▲세계번역가연맹 이사회를 서울에서 5월에열고▲11월엔 세계박물관협회 아시아지역회의를 열기로 한편 국제펜대회등 24건의 국제회의나 국제행사를 지원키로 했다。

講義안받고 試驗만 치르게
서울大、國語·外國語등 道具과목

서울大는 8일 국어·작문·외국어등 단순한 도구과목(道具科目)은 강의를 받지않고 시험만 치르게하는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大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교양과목중 대부분의 도구과목이 고교교육과정과 중복되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수준도 고교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취해진 것이다。

中共에 非政治행사 門戶개방
해외觀光여행年齡 80年代중반전 制限철폐

어제부터 常委활동… 政治議案도 심의

국회는 8일 13개常任委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등 常委활동에 들어갔다。국회는 오는 12일까지 常委활동을 통해 정책질의와 法案심의를 병행하는데 정부가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民韓黨·국민당이 제출한▲국회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 ▲언론기본법개정안 ▲정치피규제자 解禁案등 4개의 정치議案이 쟁점으로 부각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의안 처리문제와 관련、民正黨은 개혁입법 불개정원칙을 재확인할 방침인데반해 야당측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것으로보여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外務委 정부는 中共과의 관계개선을 80年代 中·長期외교정책의 주요 根幹으로삼고 이의 실현을위해 구체적으로 非政治분야행사에 대한 中共과의 공동참여를 확대하는등 적극적인 門戶개방정책을 추진키로했다。

盧信永외무장관은 8일 국회外務委에보고한 올해 외교施政목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호개방정책이외에도 交易증대、스포츠교류등을통한 中共과의 실질관계증진을 아울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청외交를 대폭 강화、中南美지역에서 국가원수 5명、首相2명、外相10명 그리고 아프리카지역에서 국가원수8명및 外相10명을 금년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未修交國인 파키스탄과의 관계개선을위해 外相회담재개를 추진하는 한편 아프간 난민을 위해 금년에 25만달러를지원할계획이라고 말했다。盧장관은 또 금년에中南美지역의 벨리제 트리니다드·토바고 바하마 쿠바등 4개국、아프리카지역의 소말리아 말리 잠비아 탄자니아 기니비사우 부룬디등 6개국을 상대로 修交교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작년8월 海外여행 自由化조치이후 여권발급이 같은 同期間에 비해 약37%증가됐다고 밝히고 來年1월부터 50세이상에 한해 관광여행을 허용할 계획이며 오는 80년대 중반에는 관광여행의 연령제한을 철폐할방침이라고 보고했다。

運營委 정무제1장관실은 이날 국회운영위에서의 업무보고에서『각 정당으로부터 民願을 취합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뒤 소관부처에 회부하여 소관부처의 諸규정에 의거、성실하게 처리되도록 할계획이며 국회답변 실천제도를확립하기 위해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국회및 각 정당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무제2장관실은 이날 보고에서『88올림픽7개년종합계획과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올림픽업무가 부문별로 적절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시안게임준비지원및 올림픽조직위의 사업도 아울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內務委 총무처 현황보고가 끝난뒤 柳尙昊·朴潤鍾(이상民正)·趙鍾益 徐淸源(이상民韓)·李龍澤의원(국민)등은▲공무원 任用에있어 학교성적과 出席率을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정부各部處단위의 組織改編說은 사실인가▲공무원停年을 연장할용의는▲정부의 불확실한조사·통계업무대책은 무엇이며 보다정확한 統計를위해 별도기구를 新設할계획은 없는가고 물었다。

이에대해 金容烋총무처장관은『공무원任用에 교수推薦制를 활용하려는것은 지식위주뿐만아니라 人格的측면도 고려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고『行政高試응시에있어 연령을 35세로 제한하겠다』고 답변했다。

美국제經營人 총재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8일하오 3시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프랭크·페이스 美국제최고경영人봉사단 총재를 접견、환담했다(사진)。

이자리에는 徐錫俊상공장관、리처드·워커 駐韓美대사、韓準石한국생산기술사업단이사장이 배석했다。

常任委 停會소동
財務·建設委 "관례어긋"局長보고 거부

8일하오 열린 국회常任委중 財務委와 建設委는 실무국장의 현황보고에대해 民韓黨의원들이『관례에 어긋난다』고 현황청취를 거부、한동안停會소동을 벌였다。

共産主義 비판 敎材발간 배포
統一院

統一院은 8일 국회외무위에서행한 금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통해『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 深層연구를 실시하고 통일안보에관한 연구와 계몽을 적극 전개하고 특히 南北대화의 재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통일안보교육의 강화를위해 공산주의 비판教材를 對象과 水準별로 發刊、보급하고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에 통일관계자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또 南北韓경제力量과 사회문화역량、외교역량비교등 南北韓 각分野에걸친 심층연구를하고 20개시범사업과 민주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현을위한 구체적 후속과제를 연구、실천에 대비키로했다고 밝혔다。

오늘軍事停戰委

군사정전위원회 제411차 본회의가 9일상오11시板門店에서 공산측요청으로열린다고 8일 유엔군사령부가 발표했다。

「복싱毒物사건」全貌「週刊한국」긴급연재

科學수사…強力檢事교육

◇검찰청13층 특별교육장에 앉은 강력사건전담검사들。8일 가슴에 명패까지 차고 첫날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노·소장검사 30명은 오랜만에 학생기분으로 돌아간듯이 표정 또한 진지하기만 하다。초동수사지휘기술향상과 과학수사체계의 확립을위해 대검이 마련한 이 교육이「人權搜査」차원으로까지 승화되도록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中·蘇관계 改善움직임
日外務省분석 政治회담재개등 합의

【東京8日=宋孝彬특파원】일본외무성당국은 최근의 국제정세를 분석、中·蘇관계가 개선될 움직임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中·蘇관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외무성의한 소식통은 1957년 사회주의 12개국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린것을 계기로 覇權主義를 에워싼 中·蘇대립이 격화、그동안 中·蘇호조약의 폐기와 국경분쟁의 교섭중단등 극도의 대립을 보여왔으나 근년에들어서 解氷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 근거로써①소련이 작년가을 1979년 이래 중단됐던 中·蘇정치회담을 제안、중공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②소련의 치프린스키 蘇中友協회장이 금년1월 北京을 2주일동안 방문했고③2월초 중공·소련 철도화물수송협정이 조인됐으며④중공은 폴란드사태에관해 소련과 야젤스키 폴란드정권을 비난하지 않고있다는 점등을 들었다。

이 외무성 소식통은 또한 소련이 중공과의 화해를 열심히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침공과 폴란드사태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을 해소하려는데있으며 중공이 소련의 화해움직임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지않는것은 미국이 臺灣에대한 무기판매를 촉진하고있는데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했다。

사쿠라우찌(櫻內)일본외상은 오는 20일 미국을방문、레이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공·소련간의 화해움직임에대해 검토할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社會漫評

氷山 一角

地平線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고떠벌이던 알리는 자기가『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장담했었다。그러나 이런 영광도 사실은 뼈를깎는 고행뒤의 일이다。『승자는 끼어안을 동료가 없고、패자는 오직 그자신만이 괴로움을 감당해야 된다。그대신 승자는 이날밤만은 그가 상대한 한사람보다 낫다는칭찬을 받게된다』—워싱턴·포스트의하워드·민즈라는 사람의 표현이다。▼민즈에 의하면 야구의 재미는 복잡한 룰에 있지만『복싱의 영광은 그 단순함에 있다』고 한다。오직、상대를 때려누이면 되기 때문이다。그래서 복싱에 전략이 있을수 있지만、그렇다고 그 전략이 복서의 아름을 제산에 넣는건 아니라고 그는 특징을 말한다。그옛날 로마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위해 상대편이 죽을때까지 싸워야했던 鬪技의 전통을 볼수있는 것이다。▼스포츠도 프로가 되고보면 사실은 장삿속으로 움직이는 쇼가 되고만다。그러니까 스포츠장사도 구멍가게나마찬가지로 벌수도있고、밑질수도 있다。예를들어 축구의 본바닥인 영국과 서독에서도 요즈음 축구장사가 내리막이라는 소식이다。작년3월 서독의 뮌헨·라이언즈가 파산했을때 에리히·리들이라는 사람은 선수의 값이 비싸다고 불평했었다。▼서독의 프로축구를 총괄하는 분데스리가산하18개팀이 걸머진 빚은 약5천만마르크로 짐작되고있다。우리 돈으로 1백50억원이 넘는 큰 돈이다。엄청난 월급을 주고 선수를 데려오지만 월급만큼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불평이다。그러나 독불장군으로 뛰는 스포츠는 스타가 되기만하면 돈방석위에 앉게된다。스웨덴출신 테니스선수인 슈퍼·스타 보리는 한해 7백25만달러를 번다는 말도 있다。▼보리가 7백25만달러(52억2천만원)를번다는말은 79년 스웨덴의 한 신문이 내놓은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다。그러나 프로·스포츠의 슈퍼·스타라면 뭐니뭐니해도 복싱이다。특히 텔리비전이 보급되면서 입장료 수입보다는 텔리비전중계에서 쏟아져들어오는 돈더미가 프로·복싱의 황금기를 이루고있다。알리의 인기도 알고 보면 텔리비전·스타와 같은 것이었다。▼5명의 세계 챔피언을 길러낸 일본의 이름난 프러모터가 사실은 독약을 먹이는 흑막으로 돈벌이를 해왔다는 폭로기사로 세상이떠들썩하다。어쩌면 한국 복서중에도 피해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이다。그어느 스포츠보다도 처절한 경기가 사실은 속임수였다는 주장이다。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발등에 불꽃이 튕긴거나 다름없는 일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구독신청은
(416)
533 · 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새주인의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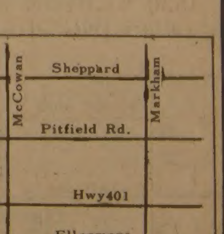
서울식품고객 여러분 !
본 서울식품의 경영을 지난3월1일에 새로 인수받은 **이상수**입니다 그동안 서울식품을 애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새 주인으로써 인사드리오며 앞으로도 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애용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서울식품은 신선한 생선과 싱싱한 채소를갖추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고객이 왕**"이라는 정신으로 친절과 봉사로써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읍니다

본 서울식품은 또한 수많은 **스페셜 품목**을 갖추고 있사오니 한번 왕림하시어 전보다 개선된 분위기에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식품을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께 인사로 따끈한**시루떡과 차**를 3월말까지 접대하고 있읍니다 꼭 한번 들려 주십시요

새주인 이 상 수 드림



서울식품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743-8270

크렘린이 흔들리고 있다

◇病色짙은 브레즈네프(左)가 지난 연말 슈미트 西獨수상을 만났을때 손을 들어 군중에 답하고 있다【外誌】

스캔들에 휘말린 브레즈네프

건강惡化·權力鬪爭 겹쳐 수슬로프 死亡후 表面化

側近들 사라지고 蘇誌서도 權威에도전

【外信綜合】금년 76세일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의장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고령으로인한 그의 건강악화와함께 크렘린의 권력투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있다. 얼마전 까지만해도 브레즈네프의 건강문제와 그의 오랜 잠적은 하나의 화제거리로 세인의입에 오르 내리는 정도였으나 이제 그의 위치에 관한 우려가 크렘린 지도층에서 직접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의 동정들을 간추려보면。

○…브레즈네프에 대한 불만은 소련공산당의 당정책을 맡고 있던 미하일·수슬로프가 사망한 직후부터 표면화하기 시작 했다。지난 1월25일 심장마비로사망한 수슬로프는 64년 흐루시초프가 축출된후 당권을 장악,브레즈네프를 권력의 핵으로 밀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던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즈네프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약10년전부터 정치국원 콘스탄틴·체르넨코(70)를 중심으로 KGB책임자 유리·안드로포프, 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 고위보좌관인 유리·블라토프, 안드레이·아겐토프등의 지위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에대한 전력구조내에서의 반발이 점차 증대되고있는것으로 공산당 소식통들은 전하고있다。

○…지난주 브레즈네프의 딸 갈리나·추로바노바(58)가 뇌물 스캔들에 말려든것은 크렘린의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추측에 더욱 불을붙여놓았다。

소련 경찰은 최근 서커스흥행관계자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해외공연을 허가해준 혐의로 서커스관계 최고 책임자인 아나톨리·콜레바토프등 2명을 구속했는데 이들은 내무차관으로 소련경찰을 장악하고있는 추르바노바의 남편과긴밀히 관련돼 있는것으로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브레즈네프의 75회생일을기해 레닌그라드에서 발간되는 월간지「오로라」는 소련인들은 브레즈네프가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종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담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브레즈네프의 권위에 사실상 정면 도전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브레즈네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소련노조 최고책임자 알렉세이·시바예프가 뚜렷한 이유없이 현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의혹을 더욱짙게했다。

○…소련 소식통들은 6일 KGB의 제2인자 세묜·츠비군이 다이어먼드 도난사건에 관한 KGB의 수사진행 과정이 크렘린 지도자들을 격노케 했다는 얘기를 들은후 자살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KGB의 수사과정에서 도난당한 다이어먼드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가 브레즈네프의 딸 추르바노바를 이사건에 연루시키려 했음이 밝혀졌다는 것。

○…작년 12월 거창하게 75세 생일잔치를 치렀던브레즈네프가 아직까지도 소련의 제1인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그는 이미 노쇠했다。

브레즈네프는 아직도 주요한 외교협상을 주도해나가고는 있지만 자신은 개막연설문을 낭독하는 정도에 그칠뿐 상세한 토의는 안드레이·그로미코외相등딴사람에게 맡겨지고 있다。

"經濟事犯은 死刑까지"

中共、法改正중…官僚혁명拍車

【北京6日AP=聯】최근 부패관리숙청및 정부기구 축소작업을 벌이고있는 중공당국은 불법금전거래·공금유용등과 관련된 탐관오리 척결을 위해 형법을 개정, 경제사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부과함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관료혁명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관영 新華社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全人代상무위부위원장겸 상무위법제위원회 위원인 習仲勛이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한 말을 인용, 약 3년전부터 중공관리들의 독직·밀수·불법외환거래·투기·사취·공공재산 절취·문화재절도 등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 그중 일부는 그정도와 액수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기때문에 도를 지나친 공금유용및 횡령의 경우에는 최고 사형까지 부과하는 형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통신은 법제위원회가 구상중인 형법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강력한 응징책이 곧 발효될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波 구속言論人 석방운동 벌여

【파리7日UPI=聯】프랑스와 폴란드언론인으로 구성된 한 언론단체는 7일 자유노조에 가입한 폴란드언론인으로서 계엄령이 선포된후 수감된 1백49명의 동료들에대한 석방운동을 벌이기시작했다。

이 대변인은 프랑스·폴란드 결속언론협회가 구속언론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기위해 폴란드방문도 계획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 이 협회의 폴란드회원들은 폴란드내의 자유노조행동대원들과 비밀리에 정기적인 접촉을 갖고있으며 1백49명의 수감언론인 명단과 사진이 파리로 밀반입됐다고 말했다。

CIA、이란亡命勢力 지원

정보수집·蘇영향 沮止목적

【뉴욕8日AP·AFP=聯】미국은 터키에 근거지를둔 2개의 이란망명 준군사단체들에 수백만달러 상당의 비밀원조를 제공해왔다고 뉴욕·타임즈지가 7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지는 서방 정보기관과 미국정부 소식통을 인용, 美CIA(중앙정보국)에 의해 수혈되어온 이같은 이란망명 군사·정치세력들에 대한 미국의 비밀지원은 적어도 당분간은 호메이니의 현 이란정권을 전복시키거나 파탄시키기위한것이 아니라 이란국내 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란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것이라고말했다。

이신문은 특히 터키의 이란 접경지대에 2개의 이란망명준군사단체가 있다고 밝히고 이중 하나는 6천~8천명의 병력을 가진것으로서 아마드·마다니전 이란해군제독에 의해 통솔되고있다고 말했다。

◇고릴라와「가발든少年」광고용 가발 제조 업체인 줄리오·메탈렌社의 CF모델인 돈·맥레오드 군이 7일 마이애미 시외들판에서 고릴라가 훔쳐쓴 한 사나이의 가발을 선전하고있다。【뉴욕7日AP特約=聯】

海外토픽

레이저鍼術 곧첫선 ★美 患者들의 苦痛덜게

뉴저지의과대학의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육체적고통을 덜기위한 동양적인 침술에 레이저광선을 이용한『레이저침술』이 곧 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과대학 부설기관인 진통센터 책임자인 중국인 웬·시엔·우 박사는 지금까지 동물 12명의 자원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임상실험해온 레이저침술이 내년쯤에는 일반환자들에게도 이용될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

그는 이 새로운 기술이 일반수술에 사용하는것보다는 감도가 약한 레이저광선을 침으로 고통에 대한 육체적 반응을 혼돈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자극이 인체조직을 어떻게 경유하는지는 아직 알수없다고 설명。【뉴욕=AP】

産油量 하루2百萬배럴減縮

OPEC회원국 石油相들 合意

◇사다트暗殺犯들의 獄中示威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故사다트대통령 암살범 24명이 6일 감옥안에서도 反정부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이중 주범칼레드·엘·에스람보리 중장 (아래쪽 중앙) 등 5명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카이로7日UPI特約=聯】

"油價 34弗 당분간固守"

19일 閣僚會議통해 公式化할듯

【도하(카타르)7日UPI特約=聯】사우디아라비아등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주요회원국 석유상들은 6일 세계시장의 석유공급과잉으로 인한 유가인하압력에 대처하기위해 산유량을 하루 1천8백50만배럴로 감축하고 대신 배럴당 34달러의 기준유가체제를 고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식화할 OPEC특별각료협의회를 오는 19일 빈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세계최대석유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9개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회원국과 인도네시아및 나이지리아 석유상들은 이날 도하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타예·압둘·카림 이라크석유상과 아메드·자키·야마니 사우디석유상이 밝혔다。

압둘·카림석유상은 9개국 석유상들이 OPEC산유량을 현재의 하루 2천50만배럴에서 2백만배럴을 줄여1천8백50만배럴로 감축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수준을 최고상한으로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더욱 축소、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야마니사우디석유상은 별도 성명을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산유량을 1백만배럴을 줄여 7백50만배럴로 감축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원유가는 아라비안라이트원유기준 배럴당 34달러의 현유가체제를 연말까지 유지할것이라고 말했다。

사다트暗殺犯중 5명에死刑

【카이로7日AP·UPI特約=聯】이집트최고군사재판소는 6일 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의 암살사건 관련피고24명중 5명에게 사형을선고하고 나머지 17명에게는 5년에서 종신까지의 징역형을, 그리고 나머지 2명에게는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형집행에대한 최종확정권을 가진 호스니·무바라크 대통령은 군사재판소의 판결이 있은후 사형선고자5명의 운명을 검토하고있다。

바웬사、곧釋放할듯

딸領洗式에 때맞춰

【바르샤바6日AP=聯】폴란드의 계엄령선포이후 연금상태에있는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오는21일 그다니스크에서있을 딸의 영세식에 참석하도록 석방될 것이라고 그의 부인이 6일 말했다。

바웬사의 부인 다누타·바웬사여사는 오는 부활절을 남편과함께 자유노조의 탄생지인 그다니스크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平和案」집중論議

美·멕시코 外相會談 "다음週 다시會同"

【뉴욕6日AP=聯】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6일 호르게·카스타네다멕시코외상과 협상을통해 엘살바도르문제를 해결하자는 멕시코제의를 2시간반동안 논의했다。

헤이그장관은 멕시코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날 회담후 기자회견에서『매우 값있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면서 카스타네다외상이 니카라과의 엘살바도르게릴라들에 대한 무기공급문제등 미국이 반대하고있는 내용에 대해 몇몇 수정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헤이그장관은 또 레이건대통령이 中美사태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며 여기에는 멕시코案을 깊이있게 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하고 자신은 다음주 카스타네다외상을 다시만나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멕시코案이 니카라과를 직접취급하고 있지않고 있다는점을 카스타네다외상에게 강조했다고 말하고 니카라과의 엘살바도르게릴라지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호세·로페스·포르티요 멕시코대통령이 제의한 엘살바도르평화안은 ①협상을통한 엘살바도르내전해결②美·니카라과간의 불가침조약체결③美·쿠바간의 대화증진을 촉구하고있으며 포르티요대통령은 자신이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역할을 맡을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농부 百10명虐殺

엘살바도르政府軍…美서 調査

【산살바도르7日UPI=聯】미국은 최근 엘살바도르정부군이 동부3개마을을 공격하면서 1백10명의 무고한 농부들을 살해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사건을 조사중에 있다고 엘살바도르주재 美대사관 대변인이 밝혔다。

대사관대변인은 美관리들이 이 피해지역 주민들과 만나 사건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들 피해지역 주민들은 6일 UPI통신특파원에게 엘살바도르 정부군의 학살사실을 폭로한바있다。

이들 주민들은 정부군이 지난1월25~27일 사이 東部엘 칼파니아、산베니토、라스로마스등 3개마을을공격하면서 교회신도들 모두1백10명을살해했다고주장했다。

주민들이 학살이유나 그 방법등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UPI를 비롯한 일부 외국특파원들은 피해마을에서 피살자의것으로 보이는 人骨과 대형무덤등을 목격했다。

外信안테나

◆蘇서敎皇의 母國방문不許

소련은 폴란드 당국자들에게 올해로 예정된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모국방문계획을 허용치 말도록 권고했다고 폴란드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4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러한 권고가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폴란드의 군사정부지도자 야루젤스키 장군이 소련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질 당시 전달됐음이 분명하다고 전했다。【바르샤바=聯】

◆레이건人氣 크게下落

레이건美대통령에 대한 美국민들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갤럽이 최근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레이건대통령의 정책에 만족을표시한사람들이 45%에 불과해 지난 1월의 52%에 비해 7%나 떨어진것으로 나타났다。【뉴욕=AP】

在美교포79명 北傀방문경험

71년부터10년간

지난71년부터 81년까지 10년동안 北韓을 방문한 在美교포는 79명에 이른것으로 밝혀졌다。

외무부는 이날 국회外務委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들의 北韓방문은 ▲가족면회·관광 ▲학술연구등이 주요목적이라고 보고했다。

외무부는특히 全斗煥대통령의 危害음모사건이후 北韓의 底意가 폭로되어 교민사회에서 경각심이 크게 고취됐다고 밝혔다。

메아리

서울의 公園

경칩이 지나고 꽃샘추위가 다가서는틈을 시샘하고 있기는하나 이미 우리생활의 둘레에는 春色이 완연하다。

봄빛이 완연하면서도 자칫 서울의 봄은 굵직한 시멘트 덩어리들에 짓눌려서 새싹이 풍길 싱그러움이 찌들기만 한는듯하여 봄이 와도 봄답다고 할수가 없을것만 같다。

서울의 도심에는 시민 누구나가 손쉽게 푸름을 즐길만한 공원이 그다지 갖춰지지 못했다。시내 녹지면적은 전행정면적의 37%에 이른다고 되어 있으나 그 실상은 대부분이 시외곽의 산과 들을 포함해서의 이야기이고 이들을 제외한 녹지대는 불과 8%뿐이다。

다만 좀 넓게 생각해서 남산을 포함시키면 녹지율은 3.5%쯤 되고 또 더 넓게 잡아 시외곽의 산을 가운데 유원지시설을 한 구역을 계산에 넣어야 4.6%에 이른다。

이를 외국의 도시와 비교해 볼때 뉴욕의 경우 공원및 유원지 면적은 전지역의 18.1%로 1인당 면적이 19평방m에 이르고 런던은 녹지율 10.5%에 1인당 23.9평방m이며 파리는 녹지율 6.2%에 1인당 25평방m이니、서울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은 잘 알수가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시는 10년계획으로 총1천3백16억원을 들이게 될 서울대공원을 청계산일대 1백63만평에 건설중에 있고 특히 내년 안에 지금 창경원의 동·식물원을 옮길것이라는 소식은 새롭게 제철다운 희소식이라 하겠다。

시달국이 73년에 개설한 어린이대공원을비롯, 서오릉공원 우이동공원 그리고 80년에 착공된 한강고수부지등 꾸준히 공원을 넓혀오기는했으나 그래도 팽창하는 시가지의 숨구멍인 녹지를 제대로 확보하기엔 아직 길이 먼것만 같다。

한강변과 청계산등지의 대단위공원 조성과 아울러 건물의 밀집지대인 도심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좀더 많고 아담한 시민공원이나 어린이공원같은 녹지대를 확보해서 서울의 푸른 숨결을 트게되기 바란다。

시민을위한 이같은 사업의 착수와 집행에는 관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에 크게 힘입게될 것인바 그런뜻에서 지난토요일있은 全斗煥 대통령의 서울대공원 시찰을 반겨 두고 싶다。

인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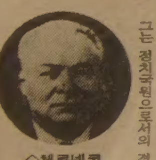
체르넨코、蘇 2人者로

30년간 브레즈네프오른팔役

黨서열4位…77년후 急浮上

【모스크바聯合=聯】크렘린의 세력균형에 관심이깊은 서방 전문가들은 요즈음 당서기장 브레즈네프의 오른팔 격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은발에 땅딸막한체구의 한인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수께끼같은 크렘린의 정치세계에서 최근수년사이 명백히드러난 사실가운데 하나는 30년간 브레즈네프의 가장가까운 측근보좌관인 콘스탄틴·U·체르넨코의 부상이었다。



◇체르넨코

그는 정치국원으로서의 경력이 3년남짓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지난1월 고참 이론가인 미하일·수슬로프의 사망이래 사실상 蘇공산당의 제2인자가 된것으로 믿고있다。

정치국의 핵심인물인 수슬로프의 죽음은 브레즈네프체제하에서 요지부동인 최고위급 정치서열의 凍土위에 갑자기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외국 외교관들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르넨코가 부상하는 반면 브레즈네프는 지식인들간에 불경스러운 조롱거리가 되고있는 개인숭배에 포위돼 있는것으로 믿고있다。

약30년전 몰다비아에서 브레즈네프와 인연을맺은 체르넨코(70)는 지방정부의 아주 미미한 선전담당관리로출발했다。

그는 56년 브레즈네프의 실질적인 수석참모로 그를 보좌하기시작한 이래 65년부터는 蘇聯공산당총무국을 맡아 일해왔으며 71년에는 黨중앙위원, 76년에는 黨서기로승진했다。그러나 최근 6년간 그는 급속도로 승진가도를달려 77년에 정치국후보위원、78년에는 정치국원으로 자리를 굳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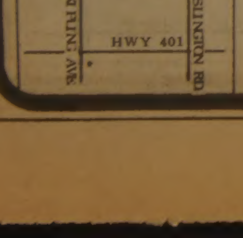
지난해 제26차 黨대회에서 그는 브레즈네프、수슬로프와 산업경제정책의 총책임자인 고참政治局員 안드레이·키릴렌코의 뒤를 이어 당서기국의 4번째 서열에까지 올랐다。

수슬로프가 사망한뒤 체르넨코는 키릴렌코를앞질러 제2인자로 浮上한것 같다。공식행사에서 그는 키릴렌코보다 가까이 브레즈네프의 옆자리에 앉고 최근 야루젤스키 폴란드군사평의회의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회담할 때는 분명히 소련측대표단의 수슬로프가 앉았어야할 자리를 그가 차지했다。

시계및귀금속 수리
(M &J WATCH JEWELLERY REPAIR)

안녕하십니까?
각종 팔목시계와 귀금속(금줄, 팔지, 반지) 일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 정확히 수리해 드립니다.
마 능 욱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과 ALBION)



TEL :
742－1205(B)
745－1632(R)

토론토 한인 성서신학원

1982년도 제1학기 학생모집요강

평신도 선교의 일선요원과 교회를 봉사코저하는 사명자들의 훈련기간인 본교는 다음에 의하여 신입생을 모집 하고자함.

①모집인원 : ○○명
②지원자격 : 세례교인으로써 성서를 배우고 교회봉사를 원하시는분
③원서접수 : 1982년3월31일까지 본교 교무과에 제출할것.
④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명함판사진 2매, 수업료 $65.
⑤기 타 : 상세한 문의는 본교교무과로 연락바람.
(1183 Davenport Rd. Toronto. Ont. M6H 2S7)
전화 : 535－6864
⑥재학생은 4월1일 오후6시 개강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주시기 바람.
⑦개학일자 : 4월1일(목)오후6시

토론토 한인성서 신학원장
박 희 민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서울팀 4戰全勝거두고 優勝

亞洲都市間농구 李忠熙분전 上海제압 95-87

【홍콩7日=聯】서울팀은7일 홍콩에서 폐막된 제1회 아시아도시대항 남자농구선수권대회최종일 경기에서 강호 上海팀을 95-87로 제압,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하오3시부터 홍콩의 퀸·엘리자베드경기장에서거행된 上海와의경기에서 서울팀은 전반시작후 계속 시소를 벌이다 8분께부터 리드를 잡기시작, 전반을 53-41로 앞섰다.

서울은 후반에서도 李忠熙의 중거리슛으로 계속 리드를 지켰으나 후반15분께 80-77로 한때 3점차까지 추격당하기도했다.

이때부터 경기는 과열, 李忠熙가 골밑슛2개를 연속성공시켜 다시 점차를 벌렸으며 결국 8점차로 여유있게 승리했다.

이경기에서 李忠熙는 43점을 획득, 최고득점을 기록했으며 李璟鉉과 朴守敎가 각각 20점과 17점을 기록했다.

上海팀은 서울보다 나이가 어리고 탄력이 좋았으나 기본기가 부족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5개팀이 출전한 이번대회에서 2위는 4전3승1패를 기록한 上海가, 3위는 4전2승2패를 기록한 도오꾜가 차지했다.

◇최종일전적

서울 95 (42-46, 53-41) 87 上海

◇6일전적

서울 79 (39-43, 40-29) 72 도오꾜

◇서울 과시 7일 폐막된 아시아 도시대항 농구선수권대회에서 上海팀을 95-87로꺾고 우승한 서울팀의 朴守敎(左)가 우승컵을 들어보이고있다. 【홍콩7日AP電=聯】

黃承敏 1천m 1位

아시아사이클 스프린트 12초12…崔丙昌2位

제10회 아시아 사이클선수권대회 운동장부파견선수 2차선발전이 여의도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스프린트 1천m에서 京畿銀行의 黃承敏은 12초12로 1위를 차지했으며 崔丙昌(기아산업)은 12초14로 2위에 올랐다.

포인트경기 3만3천6백m서는 金桂錫(동아대)이 48분06초52·27점으로 1위를 마크했다.

◇전적

▲스프린트 1천m=①黃承敏(경기은행)12초12②崔丙昌(기아산업)12초14③李鍾文(기아산업)·金漢龍(한국체대)▲3만3천6백m포인트경기=①金桂錫(동아대)48분06초52·27점②李容佑(경남대)16점③金東煥(경남대)10점

朴鍾八 8회KO勝

東洋미들級 12차방어 성공

프로복싱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미들급챔피언 朴鍾八은 7일저녁 문화체육관서 벌어진 타이틀전서 濠洲의 리치·로버츠를 6차례 다운시킨끝에 8회1분32초만에 KO승, 타이틀 12차방어에 성공했다.

權順天도 TKO勝

比포멘트라 選手에

프로복싱 OPBF 주니어밴텀급 챔피언 權順天은 7일하오 大邱실내체육관서 거행된 타이틀 1차방어전서 동급2위인 도전자 알리·포멘트라(필리핀)를 6회TKO로 물리쳤다.

스포츠話題

국내最初 스포츠전문 百貨店개장붐
顧客유치전략多樣 체육會員制실시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서울유치를 계기로 스포츠용품 판매경쟁이 다양화, 대규모화되고있다.

국내최초의 스포츠전문 백화점인 「국제스포츠」(서울운동장앞)에 이어 江南터미널(盤浦洞)옆 뉴·타운 쇼핑센터 1층에 2백평규모의 대규모 스포츠·레저코너가 최근 개장되어 스포츠·레저 서비스센터로 등장했다. 이 코너서는 테니스용품을비롯하여 등산, 낚시등2천여종의 스포츠·레저용품을 판매하며 일반인들의 건강상담에도 응할 계획.

금년말 오픈예정인 汝矣島백화점역시 2층의 8백70평을 스포츠·레저전문 판매장으로 시설, 汝矣島지역의 스포츠·레저인구를 흡수할 계획이다.

서울운동장과 청계천 주변에서 소규모 운동구점의 형태를 유지해왔던 국내스포츠·레저용품 시장은 스포츠전문백화점의 잇따른 등장으로 점차 대규모화되어가는 추세를보이고있다.

고객유치전략도 다양해져 뉴·타운 스포츠·레저코너의 경우 체육회원제를 실시, 회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용구를 공급하는 한편 스포츠행사 입장권대리구입, 테니스·코트 수영장 헬스·클럽이용에대한 우선권제공등 스포츠용역업무도 펼칠 계획이다.

2백평규모의 「국제스포츠」 역시 78년 삼보스포츠 여러차례 경영주가 바뀌다가 81년2월부터 경영주직영체제로 전환, 스포츠전문백화점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方錫輪기자】

한국、本選진출 脫落

데이비스컵테니스 金春浩 印尼선수에 惜敗

한국테니스의 데이비스·컵 본선(16強)진출의꿈은깨지고 말았다. 한국데이비스·컵 대표팀의 마지막 단식출전자 金春浩는 8일 인도네시아의 세나얀·코트에서 속행된 인도네시아와의 동부지역예선 준결승전 최종단식에서 3시간의 접전끝에 훌·코트의 틴터스·아리보오에게 3-6, 6-3, 4-6, 1-6으로 석패, 한국은 토를 3-2로 패해 탈락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첫 단식과 복식에서 승리, 기선을 잡았던 한국은 7일의 3차단식에서 全爽大가 노련한 유스테조·타릭에게 7-9, 0-6, 7-9로 분패, 2-2의 타이를 허용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全爽大, 田昌大, 金春浩등 대한신예들의 분투로 처음 데이비스·컵 본선에 진출했으나 1회전서 뉴질랜드에 패자전(82년 본선잔류 결정)에서 이탈리아에 각각 5-0으로 패배, 지역예선전으로 떨어졌었다.

인도네시아는 이로써 泰國을 물리친 日本과 83년 데이비스·컵 본선 진출권을 가리는 동부지역 결승전을 갖게됐다.

◇최종일 전적

인도네시아 3-2 한국

타릭 3 (9-7, 6-0, 9-7) 0 全爽大

보아리오 3 (6-1, 6-4, 3-6, 6-3) 1 金春浩

釜山 일부競技단체 內紛…執行部 마비

【釜山=聯】釜山시체육회산하 일부경기단체가 파벌싸움등 내분으로 집행부 기능이 마비되는등 부실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새 집행부구성을 둘러싸고 대의원총회가 유산된뒤 2개월이나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태권도협회를 비롯 핸드볼 하키 검도 조정 사이클등 6개경기단체가 지난 1월까지 시한인 81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지못해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 체육회도 사고수습과가맹단체의 지도감독에 소홀, 비난을 받고있다.

大學선발팀도 完勝

예일大초청 테니스

◇3차전 전적

대학선발 5-0 예일대

高志賢 2-0 요웰

李廷順 2-0 달론

金仁淑 2-0 마코위츠

吳長蓮 2-1 비그스

◇제2일 전적(7일)

실업선발 6-0 예일대

金男淑 2-0 골러

申順浩 2-0 윌프

韓恩淑 2-0 라이어리

趙恩玉 2-0 맥칼리스터

◇20km코스完走한 80세할머니 6일 이스트포토맥·파크에서 열린 全長20km의 에이본 여성마라톤대회에서 금년80세인 루드·로드파브할머니가 테이프를 끊고있다. 【워싱턴6日AP電=聯】

趙皓相 共同8位

말聯오픈골프 폐막

【말레이지아7日AP=聯】한국의 趙皓相은 7일 팔라룸푸르 로열·셀란고르 골프·클럽에서 폐막된 말레이지아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토틀2백13타를 기록, 공동8위에 그쳤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걸었네— —멍멍—

"임마, 가만히 있어! 이건 여럿이 나오는 연극이 아냐…나 혼자 하는 거라구!"

"어, 좋아…미안하다! 샐쭉거리지 좀 마라 제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멍멍—

못당하겠다

【한송이·수원세류2동343심우주택 6동102호】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⑦

〈題字·金蘇東〉

春史 羅雲奎

反日감정을 교묘하게 映像에 담아 映畫人보다 애국지사로 評價해야

「아리랑」을비롯한 春史 羅雲奎의 작품들이 그 시절 장안의 인기를 모은것은 강한 민족성때문이었다. 가슴속에 들끓는 反日감정과저항정신을 그는 특이한 기법으로 영상에 담았다. 관객들은 영화속의주인공이 흡사자신인양빠져들곤했다.

당시 새로 탄생한 여배우 申一仙의 아름답고 청초한 자태도 관객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나도 그가 좋았다.

春史는 「아리랑」 「風雲兒」에이어 27년에는 「들쥐」 「금붕어」 「잘있거라」를 내놓았다. 다음해에는 대작 「사랑을 찾아서」(원제=저강을 건너서)를 발표, 윤숙미와함께 충격을 보여주었다.

「사랑을 찾아서」는 조국을 잃고 서간도와 북간도로 떠나가는 한민족의 비애와 저항의식을 그린 영화다. 「저강을 건너서」는 총독부검열에서 「부적합」 판정을받아 「사랑을 찾아서」로 개제해야만했다.

당시 총독부는 『왜 저강(두만강)을 건너야 하는가? 일본인 등쌀에 못살겠단는 뜻인가』하고 논의끝에 개제를 명령했다고 한다.

春史가 제작한 일련의 영화들을 보면 그는 한사람의 영화작가라기보다는 애국지사로 평가돼야 할 인물로 생각된다.

「사랑을 찾아서」의 라스트·신은 지금도 눈에선하다. 주연배우李錦龍이 불어대던 애국의 나팔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다.

나팔소리를 신호로 흰옷입은 나라잃은 설움을 안고 남부여대, 얼음덮인 두만강을 건너간다. 늙은 나팔수가 총탄에 쓰러진다. 그는 나팔든손을 겨우 흔들며 동포들에게 빨리 강을 건너가라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마침내는 돌아오지 못하는 신호병이 되고만다.

당시 남만주 벌판에는 무지한 마적떼가 우글거렸다. 그들은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다. 그 무서운 땅으로 우리 민족은 이주해야했다. 고개를 숙여 숨진 나팔수의 명복을 빈다. 그장면을 보는 관중들의 가슴에는 조국애와 민족애가 끓어 올랐다.

◇春史가 감독·주연한 「사랑을 찾아서」。春史(左)와 李錦龍이 공연한 이 영화는 나라잃은 민족의 한이 서려있다。

극단 「청춘좌」의 단장 金肇聲씨가 당시 조선극장에서 이영화의 변사역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金씨의 구슬프면서도 막힘없는 해설은 라스트·신에서 장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무성영화의 해설은 스크린의 장면장면보다 더 중요했다. 해설에는 향수가 담겨있었고 멋이 풍겼다. 특히 화류계여성들은 영화의 내용보다도 청산유수로 흘러나오는 변사의 해설을 더욱 좋아하는듯했다.

비극은 비극대로, 희극은 희극대로 내용에 맞게 스토리를 엮어내는 변사. 그들은 영화의 내용을 각색·윤색한는가하면 때로는 내용을 바꾸기도 했다. 영화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멋진 연기자라고나 할까. 졸작을 명화로 꾸미는 요술장이였다.

春史의 영화는 자막과 변사의 해설로 한편의 서사시를 보는 것 같았다. 春史는 1929년 「벙어리 三龍」을 제작하면서 지병인 폐결핵이 악화됐다. 그러나 병마에 굴하지않고 다음해에는 「鐵人都」에서 1인5역(기획·각본·감독·주연·편집)을 맡기도 했다. 이어 「金剛恨」(31년) 「開化黨異聞」 「암굴왕」(32년)을 내놓았으나 자리에 눕고 말았다.

1935년에 들어서서 春史는기력을 회복, 고 尹逢春과 고 李福本이 출연한 「無花果」 「강건너 마을」을 연출했으나 「아리랑」과 같은 작가의식은 찾아볼수 없었다. 37년 春史는 병마와싸우면서 「五夢女」를 끝내고 36세를 일기로 요절했다.

이 지면을 빌어 春史의 작품세계를 더듬는 것은 그의 천부적인 영화재질이 나의 가슴에 조국의 얼을 심어주고 영화에 눈뜨게했기 때문이다. 나는 뒤에 나열한 영화들을 거의 다보았고 작품평도썼다. 春史의 대표작은 뭐니뭐니해도 「아리랑」이다.

1946년 유럽에서는 레지스탕스영화가 새 영화사조로 부상, 네오리얼리즘의 저항의식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春史는 이보다 20여년이나 앞서 민족의 저항영화 「아리랑」을 남긴것이다. 마땅히 세계영화사에 기록돼야 할 사실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4局 第6譜 136~179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鄭 壽 鉉〈2勝2敗〉

黑(7段)徐 奉 洙〈2勝1敗〉

결과의 승부야 어찌되든간에 鄭4단은 잘싸우고있다. 비록 유망한 형세를 단한번의 완착으로 인해 黑에게 따라잡히기는 했지만 白36으로 黑37을 응수케한 데까지 극히 미세한 형세를 유지하고 있는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선수마저 잡고있다. 그래서 당연히 끝낸것이 白38. 꽤히 큰 끝내기였다.

黑도 이에 지지않고 좌변을 49。白38에 직접 응하지않고 白50을 강요한다음 51로막아서 이제 좌변을 토실하게 확보하게 되었다.

그대신 白52로 붙이는 큰 끝내기는 당했지만 徐7단은 여전히 침착하게 黑55까지 선수를 해놓더니 一轉하여 黑57、59。

국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黑이 두면 黑이 유리해보이고 白의 경우도 마찬가지。

4귀생 통어복의 위력

白으로서는 黑63때, 별것은 아니지만 아까운 찬스를 잃었다고 한다. 즉, 白64로는 즉시 「가」의 맥점을 짚어야 올바른 수순이란는 것이다. 白「간」면 다음 「나」의곳을 둡기때문에 「다」의곳을 막지못하고 결국 黑「라」 白「다」黑「마」까지, 선수끝내기가 되는곳이다 (실제론 끝판에가서 黑이 그렇게 두기는 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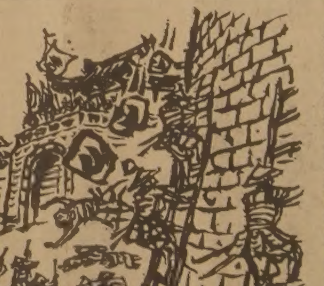
白68、70의 선수다음 白이 79자리로 한점을 끌어내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 그렇지만 우상측을 白72이하로 파한수단도 상당히 컸다.

그런데 실상 이시점에서는 白이 약간의 이득을 보았는지 黑은 덤에걸리기 쉬운 형세。 따지면 이것도 「4귀생 통어복」을 한때문일것이다. 【二凡】

流星의 賦 <327>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 ②



4월14일 아침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수장 정발(鄭撥)은 태연자약 진두에 서서 지휘하다가 적탄을 맞고 쓰러졌다. 정발의 첩 애향(愛香)은 끝까지 정발장군의 옆에 있다가 그 최후를 지켜보곤 자문(自刎)하여 죽었다.

정발과 그 휘하장졸들의 분투는 천사에 남을만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일본측의 기록에 의하면 전투는 두시간에 끝냈다는 것이고 참수(斬首)의 수는 1천2백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투가 아니고 일방적인 도살(屠殺)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성전(守城戰)은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홍계남의 말에 수긍이 간다. 전투훈련이 잘 되어있는 적군과 맞서서는 수성전이나 진지전(陣地戰)은 가당치도 않다. 우리가 익숙한 지형지물(地形地物)을 이용하여 게릴라전을 할 밖에 없는 것이다.

적진아퇴(敵進我退), 적퇴아진(敵退我進)하여 기회가 있으면 기습하는 전법을 두곤 정예(精銳)의 적군에 대해선 달리 도리가 없는 것인데 당시의 관군(官軍)은 무망하게도 수성전 진지전을 고집하여 언제나 일패도지(一敗塗地)를 거듭했다.

14일에 부산진을 공략한 일본군은 15일 새벽 동래성(東萊城)을 향해 진발했다.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은 문신(文臣)이었지만 장재(將才)를 겸전한 사람으로서 그 군사(軍事)에 대한 식견과 지휘능력은 출중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도 수성전(守城戰)의 원칙을 고집하고 전투의 승패를 가늠하기에 앞서 장부의 지조를 관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만의 적병을 불과 수천의 군사로써 감당할 까닭이 없었다. 이윽고 송상현의 전몰과 더불어 동래성은 적의 수중으로 들어갔는데, 송상현의 유문(遺文)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고성월훈 대진불구 군신의중 부자은경(孤城月暈 大鎭不救 君臣義重 父子恩輕)」

동래전투에는 일화가 많지만 그 가운데 이런것이 있다.

동래성을 공략하는 일본군에 다이라노 리마스(平調益)란 부장(部將)이 있었다. 그는 전년 조선에 왔을때 부사 송상현의 환대를 받은 바 있었고 송상현의 인품에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이라는 송상현의 위급을 구하고 싶었다. 그래 송상현 곁으로 달려가서 소매를 끌고 도망치라고 했지만 송상현은 끝내듣지 않았다.

적은 숨쉴 사이도 없이 16일 양산을 점찰하고 17일 소서행장의 부장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리고 18일 선봉은 작원관(鵲院關=삼랑진)에 도착하여 밀양성을 공략할 준비를 서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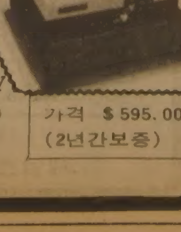
경상감사 김수는 진주성에서 이 소식을 듣고 군현의 수령들에게 밀양성으로 원병을 보내라는 영을 내렸다. 그런데 초계군수 이유림 같은 사람은 군사를 해산시키고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고 울산군수 이언성은 동래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2일 후에 탈주했다. 이밖에 많은 수사(水使)들과 첨사(僉使)들이 수진(守鎭)을 포기하고 도망쳐 버렸으니 밀양성은 그야말로 고립된 섬이 되었다. 그러나 밀양부사 박진(朴晋)은 사력을 다해 싸우고 군사들을 모으려고 애썼으나 응하는 자가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PANASONIC, SHARP, N.C.R.
Sweda, Victor, Delta Systems, TEC.

◎판매, 써비스, 렌트
—Same day 써비스
—pick up & 배달
—Paper Rolls
—Free demonstration
Rent on lease with option to buy

◎2년간 보증.



☎ : 252-7377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 × 이슬링톤)
— 하비 햄버거앞 —
가격 $595.00 (2년간보증)

토론토대한기도원
창립9주년특별집회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창립9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대한 수도원 전진원장님을 모시고 집회를 마련하였사오니 동참 하셔서 영육간에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3월18, 19, 20, 21일(4일간)
시간 : 오후7시30분
장소 : 중앙한인교회(구한인교회)353 Sherbourne St.
강사 : 전진원장
대한감리교 신학졸업, 현 대한수도원 원장

후원 : 토론토기독여성 연합회
주최 : 토론토대한기도원

개업인사
김명숙회계사무소
(Kim's Associates)

안녕하십니까? 닥아오는 TAX시즌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자 2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했읍니다. Tax Return, Bookkeeping, Accounting등 제반회계 업무와 세무및 경영상담등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왕림하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력 : 1974년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Algoma 대학교 회계학 전공
5년간의 C.A.Firm 근무
현재 C.G.A. Undergraduate(5th Level)

484 BLOOR ST. W.
(강찬영변호사 사무실내)
☎ : B(537-3171 R(669-2710

돈이 많이 풀리고있다

2월중 總通貨 1월보다 8배 늘어

인플레 誘發위험은 높아져

企業資金사정은 크게 好轉 私債金利·어음부도율 줄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있다. 정부도 재정에서 많은 돈을 방출하고 있고 은행도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때문에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크게 호전됐지만 과잉통화로 인한 인플레의 위험도 다소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중 통화동향에 의하면 지난한달간 정부부문에서 풀려나간돈은 1천9백89억원. 1월중 30억원밖에 방출되지 않았던데비하면 엄청난 액수가 풀려나갔다. 민간부문에 대출된 돈도 2천6백87억원이나돼 1월달보다 5백31억원이나 더많이 나갔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한 전체국내신용은 4천9백76억원으로 1월의 2천1백86억원에 비해 방출규모가 2배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시중통화를 거두어들이는 작용을 해주던 海外부문은 환수쪽이 1월의 3천1백66억원에서 2월에는 1백53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국내신용의 확대와 해외부문의 환수폭감퇴로인해 시중통화량이 엄청난 규모로 불어났는데 ①주요통화지표인 總通貨는 5천45억원으로 1월의 6백50억원에비해 8배가 늘었고 ②또하나의 지표인 通貨는 1월중 2천6백33억원감소이던것이 2월에는 2천85억원증가로 나타났다.

2월중 정부부문에서 특히 돈이 많이 풀린것은 1·14경제활성화조치에 따라 재정지출이 조기집행됐기 때문이고 민간부문에서 돈이 많이 나간것은 수입담보금적립제도의폐지로 은행에 묶여있던 기업들의 담보금이 풀려나갔기 때문이다. 농사자금방출과 주택자금 확대공급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많은돈이 풀림에따라 시중자금사정이 크게완화됐는데 1월중 어음부도율이 0·08%에서 0·07%로 하락한것을 비롯, 국공채 수익률은 21·3%에서 20·4%로, 회사채수익률은 22·8%에서 21·6%로 낮아졌으며 私債금리와 기업어음매출금리도 계속 내려가고있다.

IMF서 2백만弗 벤처캐피털 설립에

鄭壽昌大韓商議회장은 국내7개短資회사가 각각 1백만달러를 출자, 설립을 추진중인 벤처·캐피털회사에 IFC(국제금융공사)가 2백만달러를 출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CC(국제상공회의소) 집행위원회에 참석한후 美國에들러 美國의 벤처·캐피털 산업현황을 살펴본후 귀국한 鄭회장은 8일 기술도입확대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털회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 美시티·뱅크 자회사인 시티·코·캐피털회사나 모스트퍼스트·내셔널 뱅크등의 회사들은 자기들이 최근에 개발한 기술이나 새로 개발한 기술을 한국에 가져가 상품생산을 할수있다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鄭회장은 앞으로 모습을드러낼 국내 벤처·캐피털회사는 美國등 선진국 벤처·캐피털회사나 유명기업들의 새로운기술개발에 자본참여를 하거나 국내기업들이 외국유명기술개발에 참여할때 자금을 공여하여 최신기술도입을 확대하는 중개회사의 기능을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外國人투자 5件등 승인

投資審委, 借款 1억5천만弗도

外資事業投資審査위원회는 8일 외국인투자5건 2백23만9천달러, 외국차관本認可 4건 1억5천1백15만6천달러, 차관事前신고4건 1억7천4백만달러등 13건 3억2천7백39만5천달러의도입을 승인했다.

이날 投審委를 통과한 미국차관엔 古里원자력발전소 2호기건설을위해 韓電이 英國라자드·브러더스은행등으로부터 들여오는 1억2천3백만달러, 造船公社가 아랍토후국으로부터 수주한 연불수출선박 4척 건조를위한 日本 日商岩井회사로부터의 2천1백만달러 외자도입등이 포함되어있다.

또 외국인투자는 日本增田金屬工業이 金鎭煥씨와 합작으로 각종 완구류제조를위한 시설투자, 日本 東京化成이 五洋商事와 합작으로 각종연구시험용試藥제조를위한 시설투자등이 14건이다.

「遊休失業」52만명

條件·賃金안맞아 就業포기

當局, 經濟활동人口 조사

아예일자리를 구하지않아 정부의 失業人口통계에서 빠져있는 사실상의 遊休失業人力도 작년9월현재로 52만 3천명에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들중 40만명은 일거리가 없을것같아서, 6만1천명은 求職하는길을몰라서, 5만명은 자격이부족한것같아서 처음부터 취직을 포기했고 나머지 1만2천명은 급료나 賃金수준이 마음에안맞아 취직을안했다.

경제기획원 失業통계에서는 집안일을 돌보는 주부나 학생, 불구자, 노인들을 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한편 처음부터 求職노력을 하지않는사람은 1주일에 한시간이라도 일한사람은 실업인구로 보지않는다.

정부가 失望失業인구로 분류하고있는 이들사실상 놀고있는 遊休人力은 여자가 44만9천명, 남자7만4천명으로 집계되고있다.

같은기간 14세이상 경제활동인구중 일자리를 구했으나 취직을못한 완전失業者는 62만7천명으로 4·1%의 실업률을 보여 失望失業인구가 완전실업자수와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銀에 外貨貸出업무

政府 기동성·自律化높이기위해

정부는 外貨貸出업무의 기동성을 살려주고 금융기관의 자율성도 높여주기위해 외화대출제도운용에관한 업무를 韓國銀行에 위임하기로했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각종외화대출은 국제금리가 오히려 국내금리보다 높아 외국차관元利金상환을 위한 외화대출외에는 별로 쓰려는 사람이없는데 앞으로는 외화대출의 기간이나 금리및 융자비율등 운용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넘겨기동성있게 대처토록한다는것이다.

현행 외화대출제도는 ▲외화획득용 시설재및 계획造船용 기자재, 순수산업용 시설재도입이나 韓銀借款협조융자등을 대상으로한 중장기외화대출▲정부투자기관이나 군수업체, 重化學업체등의 채상환을위한 외화대출 ▲외차관금리가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이상을 붙인 高金利차관(악성차관)을 빨리 상환하기위한 외화대출 ▲중장기연불輸出換어음담보대출▲原油도입을위한 1백80일이내의 단기외화대출등이 있다.

組合育成基金 증액

市邑單協 집중育成

정부는 전국 農協단위조합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시읍소재 單協을 거점단협으로 집중육성하는 한편 조합육성기금을 80%늘려 약체단협과 경영의욕이 강한 單協을 중점지원키로했다.

8일 농수산부와 農協이마련한 單協자립육성방안에따르면 도시형단협과 농촌형단협의 격차가 해마다 심화되고있는데다 單協間 상호금융 수급조절기능의 미흡으로 單協자립화가 차질을 빚고있는것을 막기위해 종래의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하고 간접방식에의한 종합지원으로 체제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읍소재 단협을 거점단협으로 육성, 郡관내단협이 이용하고 농산물유통및 기계화사업등을 겸하게하며 제권으로 확대하며 조합육성기금을 1백42억원을 2백55억원으로 늘려 弱體單協과 경영의욕이 강한 單協을집중지원키로 했다.

繊維시설近代化

2천5백억投入

상공부는 고용효과가 크고 수출선도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섬유산업을 선진국형으로 육성하기위해 올해에 대폭적인 시설개체및 증설등으로 섬유시설의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 생산기반을 확충시키기로 했다.

8일 상공부가 마련한 섬유공업육성계획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섬유류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있고 수출도 올해의 71억달러를 비롯 오는86년에는 1백24억달러를 달성해야하는만큼 섬유공업을 수출주도산업으로 계속육성해 나가기로했다.

이를위해 상공부는 올해에 민간자금 2천5백억원을 투입, 노후생산시설을 10~15%개체케하고 자동화율도 현재의 40%선에서 45%선으로 향상시키며 화섬시설을 日産 1천5백6톤으로 66·5톤을 증설하는 한편 방적시설도 7만6천5백추를 늘려 4백41만1천5백추를 갖추기로 했다.

또 노후시설개체는 연속重合紡絲機, 셔틀리스직기, 전자식編機, 컴퓨터재단기및 염색기등 현대화된 자동화시설을 갖추도록했다.

이밖에 구조합리화와 경쟁력강화를위해 현재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해나가고 飛山(大邱)및 半月단지에 이어 釜山에도 새로운 염색단지를 설치,염색가공업을 육성시켜 나가기로했다.

아파트分譲價 坪當74만원

住公, 13坪型연탄 基準

昨年比 1·9% 올려

全國에 4만戶建設

〈82년 지역별건설계획〉

지구별		평별	건설호수
합계		18—25	40,000戶
서울	고덕	13—25	8,970
	신규(미정)	13—18	4,030
	계		13,000
주변都市	과천 3차	25	800
	〃 4차	22—25	1,300
	인천	13—18	2,000
	수원	8—18	1,720
	시흥	10—18	970
	부천	15—17	1,040
	성남	16—18	280
	반월	15—17	400
	송탄	13	200
	의정부	17	200
	기타(미정)	13—18	4,090
	계		13,000
지방	춘천	15—17	680
	원주	13—15	300
	태백	〃	300
	동해	〃	330
	주문진	13	90
	영월	〃	200
	부산	16—18	650
	창원	8—17	900
도시	진주	15—18	300戶
	김해	13	200
	대구	15—18	1,320
	포항	8—15	400
	안동	13—18	300
	구미	15—18	300
	[illegible]촌	13	200
	청송	13	200
	대천	13—18	500
	천안	8—15	350
	대덕	16—18	260
	온양	13	150
	청주	8—17	470
	충주	8—15	430
	제천	〃	200
	광주	8—18	1,470
	여천	〃	630
	순천	15—18	270
	여수	〃	300
	전주	13—18	710
	이리	15—18	280
	군산	13—18	470
	목포	〃	200
	기타(미정)	13—18	640
	계		14,000

주택공사는 올해 주택(아파트) 분양가격인상률을 예년수준보다 크게 낮춘1·9%로 억제키로 하는한편 지난해 중단했던 임대주택건설을 재개키로했다.

8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5천6백78억원의 사업비로 8~25평크기주택 4만호를 건립키로 하고 이중 2천1백49억원규모로 2만1천5백60호에대해 이미 조기발주를 끝냈거나 3월중 발주키로 했다. 주공은 정부의 저물가시책에따라 올해 주공공급가격을 예년의 8·7%(81년)~49·8%(78년) 상승률보다 크게 낮춘선에서 억제, 13평연탄 온돌식 아파트(4층)기준 지난해의 평당 73만3천원, 호당 9백42만원보다 1·9%상승한 평당 74만7천원, 호당 9백59만9천원으로 분양키로했다.

분양가격인상률을 낮춘것은 업무의 전산화, 설계의 표준화, 기술개발 工期단축, 새 건축자재사용등으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소득향상으로 입주자들이 넓은 평수의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에따라 올해 건립키로한 주택4만호중 86%인 3만4천2백호를 전용면적기준으로 13~20평형의 아파트로 건립키로 했다.

주공이 올해 건립키로한 지역별 주택건설계획은 별표와 같다.

韓·印經協4차會議

16·17일뉴델리開催

韓國과 印度 양국간의 통상증진을 협의하는 韓·印공동경제협의회 제4차합동회의가 16일과 17일 양일간 印度의 뉴델리에서 열린다.

韓國은 이번회담에 李景勳대우사장을 단장으로한 14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며 印度는 샤라트·람 印·韓공동협의회장등 10여명이 참석한다.

韓信·大保·東方증권 民營化

정부는 韓信, 大保證券에이어 東方證券의주식도 일반에 팔아 민영화하기로했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자본금 30억원의 東方證券은 서울投資金融이 전액출자하고 있는데 서울投資金融은 정부출자기관인 서울信託은행이 대주주로 33·2%의 주식을 보유하고있다.

이번 東方證券의 일반매각방침은 금융기관의 경영건실화를 유도키위한것으로 5개 市銀이 공동출자한 韓信證券및 보험회사 공동출자인 大保證券과 함께 주식을 일반에 공개매각처분하게된다.

東方證券은 지난해 납입자본금 이익률이 15·8%로 대형증권회사의 평균수익률 37·1%에 비해 실적이 크게 부진한 형편이다.

石炭導入量 감축

값은 現實化방침

정부는 국내자원활용과 국내炭價안정을 위해 금년도石炭需給계획상 3백60만톤으로 책정한 외국무연탄도입량을크게줄이고국내의수입탄판매가격을현실화할방침이다.

동자부는 지금까지 수입탄을 국내炭보다 톤당 3천4백70원이 싼 가격으로 연탄공장에 분배하고 있어 금년말까지 4백64억원의 누적결손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李秉喆 三星회장 美서 經濟學박사

李秉喆 三星그룹 회장〈사진〉이 미국 보스턴대학으로부터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명예경영학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보스턴대학교는 오는4월2일을「李秉喆회장의날」로 정해 학위를수여하고 미국의 언론계·재계·학계인사 2백50명을 초청,「아시아적 경영방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등 李회장을위한 특별행사를 마련하고있다. 존·실버 보스턴대학총장은 보스턴대학교가 통상적인 졸업식이 아닌 특정한날을 정해 학위를수여하는것은 학교설립이후 처음있는일이라고 밝혔다.

새學期맞아 붐비는 청계천「헌책방거리」

◇새봄,새학기가 시작됐다. 어느덧 서울名所의 하나가 돼버린 청계천 헌책방거리는 각급학교 개학과 더불어 대목을 맞아 활기에 넘친다. 많은 신입생, 재학생들이 다배운 책을 내다 팔고 조금이라도 값싸게 새학년의 교과서,참고서를 구하려는 용돈절약작전을 펴는바람에 최근 며칠째 이곳은 책방마다 문전성시로 즐거운 비명이다.

深夜 有線섹스프로放映중단

和 사용不許…廣告主끊겨 폐업속출

네덜란드 TV시청자들은 요즘 일찌감치 TV를 꺼버리고 잠자리에 들고있다. 이유는 2년동안 습관적으로 보고 즐기던 심야의 유선 섹스프로가 없어졌기때문.

유선방송의 성업으로 극장관객이 크게 줄어들자 극장연합회는 당국에 제소했고 법정은 「극장용 영화로 제작된 것은 유선TV방송에서 상영할수 없다」고 판시, 그동안 섹스필름을 포함해서 신나는 영화들을 방송하던 사설유선방송국들이 문을 닫아버렸다.

섹스필름을 방영하지 못하자 시청자가 줄어들고 이에따라 광고주가 끊어짐에따라 방송국은 폐업할 수 밖에 없게된것.

유선방송 전성기에는 1백개가 넘는 사설유선 TV방송국이 흥미위주의 필름으로 1백50만이상의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었다. 【[illegible]】

美 캘리포녀州에 民俗館건립

民資유치 230억들여 84年준공

美캘리포니아州샌디에이고시에 한국종합민속관이 건립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엘리트주택(鄭成謨)이 총사업비 230억원(3천3백만달러)을 들여 샌디에이고시 중심가에 짓기로한 이 종합관은 5백여개 객실의 호텔과 민속역사관, 한미민간무역센터, 민속촌등 연건평 1만5천97평규모로 필요한 대지11만4천평(93에이커)에대해 샌디에이고市당국과 이미 인수계약을 체결, 한미수교1백년 기념해인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엘리트주택측은 한국전통문화소개를통해 이곳을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 외화를 벌어들이고 무역센터를 통해 미주(美洲)지역에 우리상품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위해 한국종합관을 짓기로했으며 오는84년 LA올림픽에 맞춰 민속촌등 일부를 완성하고 늦어도 88년서울올림픽전까지 전체단지를준공,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55>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㊷

영감은 목이에게보다는 젊은 점원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듯 그것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걸 별로 눈여겨보지않고 목이한테로 돌려주었다. 목이가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보는 눈이 곱지않았지만 목이는 개의치 않았다. 영감이 그녀의 뼈 돼주고 있어서 여전히 도도할수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 은붙이의 볼록한 등에는 질보루늬 말고도 달과 불로초와 학이 섬세하게 양각되어 있었다.

『꽤 오래된 물건같군. 노리개는 노리갠데 솜씨가 공교한데 비해 은을 쓴걸 보면, 며느리나시집가는딸한테주었던것같잖구…아마 어떤 대갓댁의 귀한 따님 돌에 염낭에 달아주던 물건같은데…』

『대갓댁이라뇨?』

『구식 말이 돼서 젊은 사람은 잘모를거야. 실상 난리 치르고나서 대갓댁도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하구, 대대로 번창하는 집안을 대갓댁이라고 하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뭐라니?』

『또 뭐가 없을까요?』

『이런걸 지녔던 집안사람들에 대해 짐작할수있는거라면 뭐든지요』

『글쎄…』

영감은 목이의 뭔가를 열렬히 갈망하는듯한시선에 닭없이 궁지에 몰리면서 되는대로 둘러댔다.

『아마 아이들을 무척 위해 기른 집안이었겠지. 자식에 대한 자애가 유별난…』

『아아, 할아버지 그만, 그만하면 됐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목이가 달뜬 소리를 냈다. 시든 꽃이 물을 머금고 살아나듯 그녀는 초라함을 떨구고 느닷없이 싱싱하게 되바라졌다. 영감은 자기가 되는대로 둘러댄 말과 그녀의 변모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알지못했으므로 어리둥절했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목이는 크나큰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미련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금은방을 나서려고 했다.

『잠깐만, 아가씨』

영감이 목이를 불러세웠다.

『그걸 팔지않겠나?』

『이건 제 거예요』

목이는 당황해서 바보처럼 중얼댔다.

『아가씨거구말구. 그러니까 사겠다는게 아닌가. 은값만 치면 정말 엿한가락 값도 안되지만 내 특별히 생각해서 골동품 값을 쳐줄테니 얼마나 필요한가 말해봐요』

목이는 잠자코 몇걸음 뒷걸음질을 치는가 했더니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쳐버렸다. 목이가 없어지고 한참만에야 영감은 자신의 선심도 그녀의 태도도 다같이 이해할수가 없어서 껄껄 맥 빠진 웃음을 웃었다.

『사장님 그게 정말 그렇게 값 나가는 골동품이에요?』

『몰라, 내가 언제 골동품 장사 해봤다던?』

『근데 왜 골동품값에 사겠다고 하셨어요?』

『글쎄다. 나 보기에 그게 집애가 몹씨 궁해보이길래 몇푼 집어줄까해서…』

『사장님도 어느 새 망령이 나셨어요』

점원은 영감이 평소 얼마나 구두쇠라는 걸 알고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 영감 역시 자신의 선심을 믿지않았다. 그게 계집애의 그 물건에 대한 이상한집념에 잠시 홀렸던게 아닌가 싶어 고개를 갸우뚱했다.

또 들통났다

【하루방·서울마포구서강시범APT 3동101호】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피로연

— 예 약 환 영 —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 악단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REWARD

yourself with a challenging and exciting career with good salary and excellent fringe benefits in the:

METROPOLITAN TORONTO POLICE

APPLICANT MUST BE:

1. Canadian citizen or British subject.
2. Age: 17 to 20 years for CADET. At least 21 years for CONSTABLE.
3. Weight must be proportionate to height (In good physical condition).
4. Holder of a valid Ontario Driver's License.

AS A POLICE CONSTABLE OR CADET REQUIREMENTS:

EDUCATION: Applicant must also have 27 Ontario credits in courses taken at level four or higher or equivalent.

VISION REQUIREMENTS: Uncorrected vision to be not less than 20/30 in both eyes and not less than 20/50 in one eye. Normal colour vision.

For further information attend, call or write our:

METROPOLITAN TORONTO POLICE EMPLOYMENT OFFICE
365 BLOOR ST. EAST, SUITE 908
TORONTO M4W 4L3
(416) 967-2391

Between 8:00 a.m. - 4:30 p.m. Monday through Friday

내고향 통닭집

〈오늘의 메뉴〉

전기구이 통닭 오뎅, 가깨우동
곰탕, 설농탕, 김밥
생선초밥, 빈대떡, 만두등.

영업시간 : 아침 10시~새벽 1시

전화번호 : 537—0432
658½ BLOOR ST. W.
대표 : MRS. 리

MANNING BLOOR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1백弗 위조紙幣 30장密搬入

日貨로 바꾸려던 홍콩人 2명拘束

印刷정밀 식별不可能… 國際조직인듯

◇압수된 위조달러와 범인들。구두창안에 시계가 감추어진 모습도 재생돼있다。

서울시경은 8일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30장을 암달러시장에서 일화로 바꾸려던 홍콩인 張益光(28·香港苗灣河背街586樓)、陳玉昌씨(31·香港長松郡壽松樓17 19)등 2명을 위조통화취득, 수입및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6일 하오3시50분 KAL 703편으로 東京에서내한, 하오6시30분께 서울中區會賢洞 제일빌딩옆 골목에서 암달러상 安모씨(여)에 접근, 위조달러를 일화로 바꾸려다 경찰의 불신검문에 의해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달21일 상오11시께 일본 東京都台東區東上野1丁目22의12에 있는 기요까호텔 11호실에서 중국인 陳모씨(45세 가량)로부터 위조달러를 한국에서 일화로 바꾸어 오면 상당한 금액을 나누어 주겠다고해 3천달러어치의 위조 지폐를 받아 내한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이 갖고온위조지폐는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 한국외환은행에서 감정,판명해야할 정도로 정교하게 인쇄돼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올해들어 6차례나 일본외홍콩등을 거쳐 내한하는등 지난해이래 9차례나 한국을드나들었고 특히 검거된 張씨는 고아출신으로 공장노동자로 일하고있어 해외여행이어려운점등으로미뤄볼때 이들배후에 국제적인 위폐의 제조·밀수조직이 있을것으로보고여죄를추궁하는 한편 인터폴에 수사협조를의뢰했다.

이들은 또 입국할때 구두뒤창에 홍콩과 오메가·블로바등 남자손목시계 7개(싯가1백50만원상당)도 밀수입하기도했다.

본드幻覺 친구刺殺

中學生등 8명구속

서울 九老경찰서는 8일 朴모군(14·Y중3년)등8명을 살인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6일상오11시께 서울九老區九老6洞123의27 신일분방구(주인 金相旭·43)에서 공업용본드10개를사 본드냄새를 들이마시고 환각상태에 빠진채 평소사이가 좋지않던 학교친구 安모군(19)을 학교뒷산으로불러내 마구때렸고 이들중 朴군은 칼로 安군의 가슴을찔러 숨지게했다는것.

이들은 또 지난5일하오1시께 학교에서 몸이아파 조퇴하고 집으로돌아가던 朴모양(14)을 구속된 朱모군(13)집으로 끌고가 번갈아가며 폭행을한 혐의를있받고 다。

경찰은 이들에 게본드를판 문방구점주인 金씨도 독극물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日 中日新聞 加藤사장일행

本社방문 張회장과 환담

내한한 가또·가이찌로(加藤巳一郎)일본 中日新聞사장(65)일행이 8일 하오3시30분 본사를 방문, 張康在한국일보회장、洪惟善발행인과 한일간의 문화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사진) 東京大명예교수이자 일본유네스코 문화센터이사장 미까미·쓰구오(三上次男)박사와 함께 내한한 加藤사장은 이날 하오7시 洪발행인 초청만찬에 참석하고 9·10양일간 외무·문공부장관을 예방하고 국립중앙박물관등을 둘러본뒤 오는 11일 이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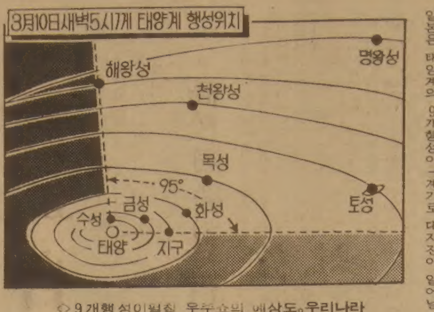
10일 1천년만의「天體 大우주쇼」

"地球에 大地震" 헛소문

太陽중심 9개行星집결 한눈에 볼수있다

새벽5~6시께 부채꼴모양으로

태양계에서 우주쇼가 벌어진다는 10일 지구상에는 대지진등 천재지변이 일어날것이라는 헛소문이 퍼져 국립천문대에 문의전화가 빗발치는등 때아닌 패닉(공황)현상이 일고있다. 특히 지진이 자주발생하는 일본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있고 우리나라도 최근들어 지진이 전보다 많이 발생하고있다는 점을들어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고있다. 이같은 불안과 공포는 지난75년 미항공우주국(NASA)연구원 프레지만박사가「木星의 영향」이란 책을 통해 전행성(全行星)이 태양의 한편쪽에 기울어지면 지구에 대지진을 몰고올 것이라고 예견한데다 프랑스의 예견자 노스트라다무스가「지구최후의 날」이란 책자에서 82년부터 행성이 한군데로 모이면서 지구가 망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것이라고 예언한것이 공교롭게 널리 퍼졌기 때문에 생겼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립천문대는 물론 일본쪽에서도,『전혀 근거없는 헛소문』이라고 말하면서 가벼운 기분으로 우주쇼를 구경만하면 된다고 밝히고있다. 태양계가 펼치는 우주쇼는 지구를 포함, 토성, 금성, 목성, 화성, 수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등 9개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95도각도로 한군데로 모이는 집결현상. 이같은 현상은 3천년에 3번정도있는 희귀한 일이라는 것으로, 서기949년에 한번 있었고 금년이 두번째이며 오는 2492년에 또한번 있을것이라는 소식이다.



◇9개행성이일렬 우주쇼의 예상도。우리나라 전역에서 육안으로도 일부행성을관측할수있다。

東京서도 소동…問議빗발

【東京8日=宋孝彬특파원】10일 한군데로 모이는 것을 일본은 태양계의 9개행성이 계기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헛소문때문에 골치를 앓고있다.

이같은 소문은 프레지만박사가 전행성이 태양의 한쪽편에 기울어지면 태양계와의 인력관계에 영향을 미쳐 지구에 대지진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나왔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공교롭게도 일요일인 7일 東京을 중심으로 關東지방에 진도2~4의 지진이 일어나 미또(水戶)지방에서는 9층의 유리창이 깨지는등 건물이 일부 파괴됨으로써 행성직결에 따른 대지진의 예보가 아닌가 하고 겁에 질린 주부들의 문의전화가 기상청과 신문사에 쇄도했다.

한편 나고야(名古屋)과학관은 시민들의 이와같은 확인전화에 못이겨 8일 수만장의 비라를 만들어「행성쇼」에 의한 대지진설은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해명하기에 진땀.

또 1524년 수성,금성,화성, 목성, 토성이 한데 몰렸을때도 점성가들은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독일에서는 주민들을 언덕위에 옮기는등 소란을 피웠으나 홍수는 오지않았을 뿐더러 그대신 점성가를 비난하는 소리만이 큰 홍수를 이루었었다.

일본기상청은 이제까지 진도6이상을 기록한 지진이 3백53회 있었으나 행성직렬과 관계된 대지진은 한번도 없었다고 밝히고있다.

우주쇼의 피크는 10일상오5~6시 사이로 우리나라전역에서 육안으로도 일부를관찰할수있다.

9개행성이 집결하는 과정은 약2개월동안 계속되는데 가장많이 접근하는때가 10일 또는 11일상오일것으로 관측되고 있는것이다.

9개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95도정도의 부채꼴 안에 집결하는 우주쇼는 태양주위를 각각 다른 궤도에서 다른 속도로 공전하고있는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나란히 서는것으로 1천33년만의 일.

우주쇼는 우리나라남쪽 하늘에서 펼쳐지는데 우리눈에 가장 선명하게 들어오는것은 샛별인 금성. 금성은 지난25일 최대광도(마이너스 4·3등)에 달해 금성만관측하는데도 좋은 기회다.

이날상오5시께 동쪽 수평선상에 수성이 떠 올라 빠른속도로 접근해올무렵 남서하늘 처녀자리(座)에 붉은색깔의 화성과 토성이, 그 동쪽으로 목성, 북으로 명왕성이 보인다. 이밖에 전갈자리 근처에서 천왕성을, 그 바로 동쪽에서 해왕성을 관측할 수 있다.

우리 눈으로는 화성(마이너스0·8등) 수성(〃0·1등) 금성(〃4·3등) 목성(〃1·9등) 토성(0·6등)을 직접 볼 수 있으나 밝기가 낮은 천왕성(5·6등)은 공해가 없는 농촌의 하늘에서, 해왕성(7·9등)과 명왕성(14·9등)은 망원경을 이용해야만 관측이가능하다.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전체질량의 거의 대부분인 99·87%를 점유하고 나머지(0·013%)가 9개 행성에 분포되어 있을뿐이어서 이들이 일렬로 나란히 선다해도 엄청난 태양의 重力에 비해 그 영향력은 10㎞정도로 파동을 치는 태양 표면 활동에 불과 수㎜정도의 변화를 일으킬수 있을뿐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번 행성들이 펼치는 우주쇼는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흥미있는 관측거리가 될뿐이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행성집결 현상은 지난2월25일 태양을 중심으로 1백9도의 범위안에 들어와 10일또는11일상오5시15분경 95도 정도의 부채꼴 안에 들어오는 클라이맥스를 이루었다가 차차 흩어져17일엔 1백22도정도로다시멀어져간다。

한편 국립천문대 吳貞烈위치연구실장은『서기 949년에 9개 행성이 80도안에 모인 집결현상이있었지만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이나 구전도 없다』며『9개중 명왕성을 제외한 8개 행성은 3천년내에 25번 정도가 90도 이내에 든다』고말했다.

吳실장은 또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행성집결현상이 아니라 운석같은것이 떨어져 지구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大學生3명 遭難

1명死亡 둘救助

雪嶽山

7일 하오3시께 雪嶽山七星峰 동쪽 속칭 핏골중턱(해발750m)에서 世宗大영문과 2년 吳永秀군(26·서울江南區淸譚洞87의2)등대학생 4명중 3명이 조난, 이학교 영문과2년 權宇淳군(21·서울道峰區水踰洞55의15)이 숨지고 仁川大3년 朴성철군(23)과 같은대학2년 方장훈군(22)은 경찰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吳군에 의하면 6일새벽7시부터 등반에 나서 華彩峰능선으로 하산하던중 전날 내린눈이 1m가 넘어하산속도가늦어 날이어둡자 7부능선바위틈에서 잠을잤다는것. 1백m 위쪽에서 잠자던 일행을 만나러 올라갔다가 모두 탈진한채 동상에 걸려누워있는것을 발견, 곧바로 하산해 경찰에 신고했다.

「毒物복싱」WBA議題로

梁正圭회장 日警에도 調査공식요청

한국권투위원회(KBC) 梁正圭회장은 8일 국제적인 스캔들로 확대된「가네히라(金平)흑막」사건과 관련, 오는 27일 네덜란드서 열리는 WBA(세계권투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정식의제로 상정,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WBA와 WBC(세계권투평의회)부회장을 겸한 梁회장은 週刊文春의 폭로기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WBA에 제소하여 金煥珍-도까시끼간의 재경기를 강력히 요청하겠으며, 일본 사직당국에 조사의뢰도 공식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권투위원회는 金煥珍 金龍鉉등 피해선수와 金賢治씨(金煥珍의 트레이너)를 불러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崔承哲씨(前金龍鉉 매니저) 宋浩然씨(金煥珍매니저)등도 귀국하는대로 소환,진상을 가릴 방침이다.

한편 日本권투위원회(JBC)는 8일 하오『진상을 철저히가려 빠른시일내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전문을 KBC에 보내왔다.

히로뽕密造團 적발

麗水派 6명을拘束

釜山지검특수부는 8일 히로뽕을 대규모로 밀조, 판매해온 麗水파 제조기술책 申福萊씨(52·전남麗川郡華陽面西村里505)원료공급책 呂在九씨(52·수산업·麗水市鳳山洞265)、자금책 李武昌씨(38·光州市東區瑞石1洞1002의2)등 5명과 히로뽕반제품용액을 제조해 국내에 공급해온 白樂孝씨(38·釜山市釜山鎭區釜田2洞505)등 6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麗水파 자금책李씨와 제조기술책 申씨등은 지난해 5월초순께 원료공급책인 呂씨로부터 히로뽕제조원료인 염산에페트린10kg을 4백만원에 사들여 전南和順郡南面雲山里 박모씨의 농촌가옥 헛간에서 히로뽕을 제조해왔다는 것.

이들은 제조한 히로뽕을운반책인 梁洪權씨(42·光州市西區良1洞362)를 통해 지난2월27일 광주고속편으로 부산에 옮겨온후 알선책인 明東龍씨(48·釜山市南區龍湖洞391)를 통해 매자를 찾다가 검거됐다.

가짜機關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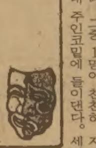
"냄새"나는 곳엔 그림자같이…

5일 상오10시、서울 中區 南倉洞 新世界 금은방앞、검정색 레코드·로열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선다。

말쑥한차림의 건장한 40대남자3명이 차에서 내리고 이들은 곧장금은방문을 박찬다。

『조사할게 있어 나왔읍니다』존댓말이지만 어투는 사뭇 위압적이다。

순간 금은방 여주인의 가슴은 철렁한다。그중 1명이 천천히 지갑을꺼내 주인코밑에 들이댄다。세관원 신분증。인물사진과 함께 붉은도장이 여기저기 찍히고 붉은줄까지 쳐있다。



이때부터 3인의 방문객은 바빠진다。닥치는대로 마구뒤지고 헤쳐놓는다。

여주인의 핸드백에서 3백26돈쭝짜리 금괴가 나왔을때 주인은 새파래지고 그들은 득의에 찬다。

『연행 조사해야겠군』그중 1명의 신호로 주인은 그들이 타고온승용차에 실리고 설왕설래끝에 금괴3백26돈쭝을 고스란히 뺏긴다。주인은『잘 봐달라』고 현금50만원까지 더붙여 전별정도다。속았다는걸 알아챈것은 공손하게 전송까지 끝낸다음。

電話한통화에 벌벌떠는 機關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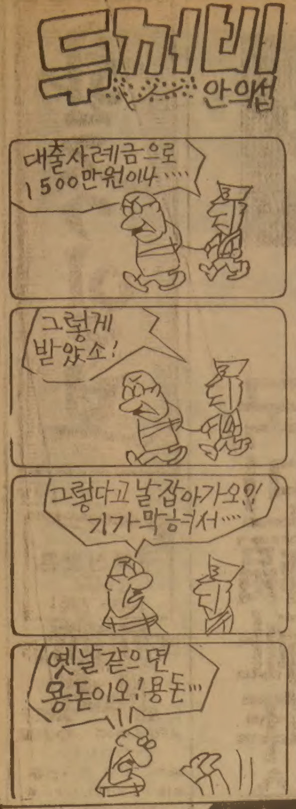
우리 주변에 흔한 기관원사칭 사기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음 두가지 조건이 성숙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까뒤집으면 그만큼 냄새날짓을 저지른 사람이 많다는 것과 사회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가짜전화 한 시내 대학총장、-| 는지점 장등 저명인사 실로 달려 나오고、기관원을 사칭한 범인에게 한국은행 부산지점장이 2억5천만원을 긴급 인출했고 가짜검사에 11명이 특혜를 얻겠다고 1천3백만원을 맡겼으며 세무공무원 3명이 차례로 가짜 기관원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는 웃지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들은 하나같이『세상이 너무 어수룩합니다。가짜인줄도 모르고 모두 벌벌 떱디다』고 웃어보였다。

정부는 이같은「가짜기관원」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그러나 피해가 끊기지 않는다。아직도「속는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기관원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떨께아니라 침착하게 신분을 재삼 재사 확인하고 볼일이다。「가짜」는 어느구석인가 빈틈이 있고 냄새가 나는 법이다。또 진짜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서민에게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는게 관례라는걸 명심하자。【方畯俊기자】

두꺼비 안의섭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 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한국일보 詩壇

목숨

朴根瑛

허기를 메우기 위해
한 술의 밥알을 씹으며
먼지로 사위어 가는 오늘을
연장한다.

더러는 햇살 부서지는
가지 끝에서
고운 피의 순리를 배우며
더러는 정한 꽃잎으로
옥빛 하늘에 닿아
젖줄을 빤다.

깊은 나무 뿌리에서도
벌레가 자라기에
연한 갈비뼈에다가도
미친 사람의 중얼거림을
심어 본다.

잎이 바람으로 자라는 네거리에서
얄팍해진 귀빵을 만지면
어디선가 들려 오는
신의 소리라도 있지 않겠는가.

토론토한인 배구협회
창립기념및 제1회
춘계남녀 배구대회

종 목 : 남자부 여자부 남자OB(전원 30세이상으로 구성된팀)
일 시 : 1982년3월27일(토)오전8시30분
장 소 : West Humber Collegiate Inst (1675Martin Grove Etobicoke)
신 청 및 : 조경진(923－3846) 임승철(755－9925)
문 의 정기섭(755－0308)
신청마감 : 1982년3월25일(목)(주장회의오후7시까지)

주장회의장소및 일시
일 시 : 1982년3월25일(목)오후7시
장 소 : Brandon 운동구점(337 Bloor St W)
참 가 비 : 대학팀 $50 여자부 남자OB $40
※참가비는 주장회의 날까지 납부

주최 :
토론토한인배구협회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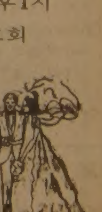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청 첩

모십니다
바쁘신 중이라도 부디 오시어 주님의 은총으로 백년해로할 두 젊은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신 랑 : 이헌종
신 부 : 장티나
일 시 : 3월20일(토)오후1시
장 소 : 런던제일장로교회
주 례 : 장희선 목사
연락처 : MISS 장
(923－1330)



首都圈 公害공장 年內이전令

34개大企業등 半月工團 入住촉진

光明·始興·龍仁·廣州·金浦도 대상으로

라면공장등 서울의 대기업 공해공장에 조기 이전명령이 내려지고 이전된 뒤부지의 매각과 활용을 위해 업부 서울시 도시계획도 재조정된다.

정부는 부진한 수도권일원 공해및 주거지역소재 공장의 半月공단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입주허용대상업체를 경기도 光明市, 始興郡등 인구가 밀집한 재한정비지역 소재 공장과 일부 대기업에까지 확대하고 금융지원확대, 주변 도로·통신시설의 조기완공등 유인시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이 상공부 건설부등 유관부처와 협의, 확정 실시키로한 『半月공업도시移轉 조치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을비롯 경기도議政府, 水原, 仁川, 城南, 安養, 富川市와 楊州郡 南陽州郡일부의 非都市型공장 3천8백개에 국한했던半月공단 입주허용업체를 크게 늘려 경기도의 光明市와 始興, 龍仁, 楊平, 廣州, 金浦郡등 재한정비지역소재 공장에까지도확대, 유휴공단시설의 입주활용을 서두르기로했다.

또 일부대기업에도 입주문호를 개방, 오는85년까지 서울市外로 이전토록 계획된農心라면 철성사이다 元豊産業 입부제약공장등 34개 대기업 공해공장에도 조기이전을 명령, 半月공단에 입주시키도록 하는한편 입주허용대상지역에있던 분공장, 폐업업체 인수이전도 허용토록했다.

또 이미 공단부지를 사놓고도 아직까지 입주를 않고있는 92개공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이전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필요할때 다른실수요자에 재매각토록 권고할방침이다.

금융지원도 확대, 부지 매입이나 시설자금은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로를 현행8억원에서 12억원 지로 늘리고 현재 평당 공단 5만7천원, 상업지역 22만원, 주거지역8만 9천원으로된 半月공업도시의 조성용地 분양가격을 그대로 유지토록했다.

정부는 특히 도심공원의 半月공단이 전부진이 수도권 지가앙등 기대심리, 기능공을 비롯한 고용인력의 이탈등 우려에 따른것이라고 보고 주변도로포장, 통신시설등을 조기완공, 入住업체의 불편을 덜어주도록하는 한편 배후도시에 종업원용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건설을 확대키로했다.

이에따라 공단지역의 비포장도로는 연내포장을 끝내도록하고 시공중인 開峰-論谷-半月간의 도로(19.3km)도연내로 조기완공하며 내년 7월까지 半月과 전국주요도시등 92개지역간의 장거리자동전화를 개설토록했다. 軍浦-半月간 연결도로 확장도 84년까지의 당초계획을 1년앞당겨 내년중 시행, 東南部서울과의 교통을 원활히 하며 종합병원등 부지매입을 끝낸 9개 공공기관도 조기入住를 서두르도록했다.

主觀式 반영 研究中

李文敎밝혀 大入、先지망 後시험도

李奎浩문교장관은 6일 大入試평가방법개선에 관해『客觀式평가는 객관성·공정성이 있는반면 創意力배양엔도움이 되지못해 될수 있는대로 主觀式방식을 따르겠으며 學力고사시 컴퓨터를 동원할수있는 범위안에서 主觀式문제를 반영토록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主觀式문제 반영에 따른 평가개선방안이 현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구중이며 또한「先지망 後고사」문제도 앞으로 신중히연구해본뒤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李장관은『대학의 졸업定員制는 대학의 질적향상을위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고『대학교수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문교부가 맡고있는 상당부분의 행정업무를 대학국의 자율성에 넘길계획』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교수재임명에 대해『전혀 정부가 개입치않고 있기때문에 정치적으로악용될우려가 없다』고 밝히고『이번 국·공립대학의 재임용은 9백9명의교수중 교수22명, 부교수1명, 조교수 2명, 전임강사 1명등 전국에서 모두26명만이 탈락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幼兒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敎員人事 제도를 구상중』이라고 답했다.

李장관은 또『과학교육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각도 학생과학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중학의무교육은 진학률이낮은 농어촌부터 실시토록 하겠으며 교수재임용제도와 교수추천제를 폐지할생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通信衛星 개발착수

李文公 답변

李光杓문공장관은 6일하오 국회본회의 답변에서『中共에 거주하는 교포에게 제3국을 통해 17종의 서적을 보냈으며 다른 공산권국가에 거주하는 교포에게도 非정치성간행물을 가능한 방법을동원해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88올림픽에대비, 難視聽지역해소를 위해 체신부와 KBS가 방송통신위성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기업등 停年 60歲로 延長해야"

國會本會議、질문끝내 "敎授추천制는 갈등우려"

"국민福祉年金 단계적실시" 賃金 自律인상…五輪赤字 없다" 답변

"高校평준화 自由競爭환원 용의는"

국회 본회의는 6일하오 사회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5일간의 對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8일부터 각常委별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질문에는 洪鍾旭 沈相宇 趙南照(이상 民正) 金文元 金德圭(이상 民韓) 魯旦泰(국민) 白瓚基의원(民社)등 7명이 나서 교육문제와 환경, 공무원 부패방지, 汚染, 勞使관계정책등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文敎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특히 대학입시제도에대해『배짱요행주의 入學을 防止하기위해 2重志願과 內申성적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자율적으로 학력고사를 시행, 선발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및 過熱과외수업금지의 제도적장치로서 대학교수들로 구성하는「大入試관리위원회」같은 기구를 만들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들 의원은 또 하원소요사태와 관련하여 처벌된 학생이 몇명이냐고 물으면서 근본적인 防止策을 촉구하고 교수추천제는 교수 1명이 평균50명의 학생에대해 개인신상파악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참의와 自律性을 해치고 反目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추천제도의 폐지와 아울러 교추재임용제도도 대폭완화 또는 폐지하고 高校평준화도 자유경쟁으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교육정책의 不在로 跛行的인 교육시책을 편 文敎장관은 소속로 사임할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공무원의부정부패를 막기위해 不正으로 파면된공무원은 평생 公職취임은 물론 정치활동까지 금지시킬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

의원들은 또 노동문제에대해▲최저임금제의 실시와 低賃金 해소방안 ▲滯拂기업의現況과 조치▲失業대책▲국제노동기구(ILO)加入▲기업체·공공기관의 停年을55세에서 60세로 延長할용의등을 묻고 특히 勞組의 조직과 활동에대한 行政통제를 완화하고 정치활동을 할수있게 관계법을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보호전문요원을 양성하여 準司法權을부여하여 강력한 단속을펴고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시키는등 적극적 公害對策을 촉구했다.

특히 趙南照의원(民正)은『대도시와 道의 규모를줄여 수를 늘리고 邑面을 확대조정하여 區와郡단위를 장차 없애는 방향으로 行政區域을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漢江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劉彰順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88서울올림픽에 대해 赤字를 염려하는 국민이 많으나 서울올림픽위원회 조건이 달라 赤字가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赤字없는 올림픽이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경기장 시설의 대부분이 이미 착공, 5%정도만 새로 시설투자만하면 되기때문에 경기장건설비가 節減되고▲선수촌과 기자촌을 대회후 일반주택으로 전용할수 있으며▲LA올림픽을 계기로 방송중계수입이 급격히 상승한점등을 들었다.

劉총리는 또『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그간 석유파동등 국가경제 불안으로 실시가 보류돼왔으며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중 내용을 보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敎權확립을 위해 年次계획을 세우고있으며 敎職手當을 매년 인상, 86년까지 月10만원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徐廷和내무장관은『앞으로 범죄수사에 있어 증거주의원칙에 철저를 기하겠다』고말하고『경찰는 경찰권의 남용이 아닌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千命基보사부장관은 도시인구의 농촌귀환계획과 관련『농촌으로移住할때는이주결비와 생계비보조를해줘 농촌에 定着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영세민이 중소도시로 이전할때 의료보험수가 혜택을 25%에서 20%로 減額해주고 우선적으로 자녀기능교육혜택을주고 중학교수업료를 면제토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法定영세민 1백70만 기타영세민 1백66만등 3백36만여명에 대해선 기능훈련과 함께 생계자금을 보조해 자립토록할 방침이며 계속 영세민에 대해 폭넓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權重東노동부장관은『정부는 금년도 임금인상에 있어서 물가상승과 기업유지 요인, 지불능력등을 감안해 勞使가 협의해서 자율인상을 유도했을뿐』이라고 밝히고『금융단이 정부를 대신해 임금을 억제했다고 알려진것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법 개정문제에 대해『노동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자활능력의 강화가 시급하기때문에 개정은 하지않을방침』이라고 말했다.

李光杓문공장관은『제5공화국이 창건된 역사적시점에서 민족의 주체와 전통을 상징하며 고미술품을 전시할 국립교육기능을 담당할 포괄적인 大博물관의 건립을 요망을 인정하고있다』면서『다만 이의건립을 언제, 어떻게, 어떤규모로 착수할 것이냐는 최종결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관계부처와 계획을 면밀히협의중』이라고말했다.

金容休총무처장관은『공무원 승진에따른 무老防止를위해 인사제도개편을 과감히 실시할 생각』이라고밝히고『政務長官실직원과 文敎部 체육국요원으로 體育部를 구성, 정부人力擴大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大公園 공사현장 視察

全대통령"民營名所로 가꾸도록"

全斗煥 대통령은 6일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경기도始興郡果川面에 건설중인 서울대공원의 관리사무소(소장 강춘영)에 들러 건설현황을 보고받은뒤 공원 경내건설현장을 시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공원건설과 관련, 7백여억원에 이르는 民資유치계획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공원의 위락시설은 건설에서 관리·운영까지 민간인에게 넘겨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서울대공원을 한국에서 이름난 명소로 가꾸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한뒤 공원주변의 산지도 시에서 소유권을 확보, 공원과 연계하여 등산코스를 만드는등 시설의 다양화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83년 동물을 이곳에 옮기에 앞서 공원내 도로포장·주차장·조경시설을 서둘러 완비하고 주변에 잔디를 많이심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이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시찰에는 盧泰愚정무제2장관과 朴英秀서울시장등이 수행했다.

不良청소년·問題학생 保護觀察

凶器소지 拘束원칙

서클등 카드化…專擔刑事 둬 서울市警

서울시경은 6일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데 대비, 학교와직장·지역청소년선도위원회등의 협조를 받아 불량청소년및 문제학생들에 대한 보호관찰제를 실시키로했다.

시경은 이를위해 시내각경찰서에 문제학생과 불량청소년의 서클을조직및 개인리스트를 작성, 전담형사를 두어 보호관찰과 선도활동을 펴도록 지시했다.

경찰이 만들 신상카드에는 전과관계·교우관계등이 상세히 기재되는데 이달말까지 리스트작성과 계몽을 끝내고 4월부터 집중단속을 펴기로했다.

경찰은 앞으로 불량청소년 단속에서 흉기나 둔기를 소지하고있는 경우에는 모두 구속을 원칙으로하고있으며 각학교와 직장책임자 지역선도위원회에서 1차적인 선도책임을 맡고 심한경우 각경찰서 보호관찰담당형사가 순화와함께 단속책임을 맡도록 했다.

民防衛편성 45歲로

民韓서 改正案제출

民韓黨은 6일 柳甲鍾의원외 81명의 이름으로 민방위편성연령을 현행50세에서 45세로 낮추는것을 골자로한 民防衛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民韓黨은 이날 개정안 제출이유에서『만35세까지의 조직화된 3백60만명의 향토예비군을 보유하고있으며 현행민방위대의 조직편성과 운영실태에 불합리한점이 많아 정부도 현실적으로 45세까지만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사회발전및 국가안보차원에서 민방위편성 연령을 45세까지로 낮추는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放送委발족 1周

방송위원회(위원장 尹石重)와 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金周鎔)가 7일로 발족 1주년을 맞는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윤리위원회의 임무를 이어 받은 방송의 심의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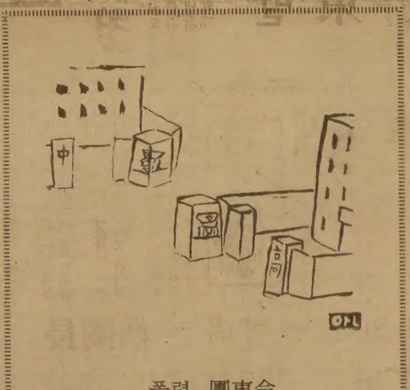
방송위원회는 그동안「아시아방송협력시계획」과「언론공영제와 방송광고의 공익자금운용계획」「방송의 운용·편성에 관한 기본방향」및「KBS광고방식변경안」등을 심의 결정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 제34조에의거, 설립된 방송위원회는 방송운영에 관한 결정 사항이 대부분「추인」에 그친 수동적자세였다는 비난을 면치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적극적 자세로「방송의 원칙」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中共 對日수출 清津港을 이용

【東京6日=宋李彬특파원】 중공은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물의 일부를 북괴의 清津항을 통해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산께이(産經)신문이 6일 보도했다.

日刊 533-2361

社會漫評



폭력 團束令

地平線

웨스트·포인트는 뉴욕에서 서북쪽으로 80km 떨어진 허드슨강변에 있는 천연의 요새다. 성조기가 하루도 내려진 일이 없는 이 요새에서「의무, 명예, 국가」를 좌우명으로 삼고 미국의 육사생들은 장교교육을 받는다. 이곳엔 세계평화 수호의 요람이란 긍지가 넘친다. 입학도 까다롭다. 정·부통령이나 국회의원등의 단단한 추천이 필요하다.

▼이 긍지의 요람을 거쳐 나온 미국의 장성중엔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이 많다. 맥아더, 리지웨이, 클라크, 밴플리트, 워커, 테일러, 번스틸, 스틸웰등. 화려한 별들의 명단이며 모두 낯 익은 얼굴이다. 드문 例外가 한사람 있다.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장군 가운데 베시대장은 웨스트·포인트와는 무관하다. 그는 사병으로 입대했고 2차대전중 장교로 임관 되었다. 이 사병출신 4星장군이 끝내 미국군인의 최고지위인 합참의장의 자리에 오른다. 육군참모차장에서 총장을 거치지않은 최초의 승진이라고 한다.

▼베시 대장은 우리나라에서 두차례 복무했다. 58년말 미8군사령부에 와서 근무하고 월남전에도 참전했다. 그후 76년 가을 대장에 승진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 다시 왔다. 이자리에 있으면서 군인으로 괴로운 시련을 이겨나갔다.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이 내려졌을때 이에 의문을 표시하고 북괴의 침략성에 단호한 경고를 내렸다. 그는 한반도의 군사정세를 가장 잘 理解해 보고 있는 장군이었다.「안보와 군사문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군인의 모습을 그때 우리는 보았다.

▼철군을 정면으로 반대한 싱글러브장군은 본국으로 전보되었고 베시장군도 예상과달리 참모총장이 아닌 차장으로 옮겨앉았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을 알고 사랑한 미국인이었다. 유엔군사령관직을 떠나면서 한국말로 이임사를 친히 쓰고 읽었다.「나는친절한 한국민과 용감한 한국군을 잊지못할것입니다. 會者定離라 했으니 비록 떠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것입니다」

▼이 친절한 이임사를 다시 새기며 축하와 함께 신뢰의 마음을 굳히게 된다. 베시대장의「의외의 승진」을 지켜 보면서 우리는 새삼 미국의 開放社會를 알것 같다. 어떤직위라도 그자리는 학력이 아니고 능력에 따라 주어지며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배울수 있을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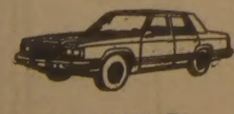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 (B), 286-1548 (R) M3B 1Z3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46-3111(B),
439-508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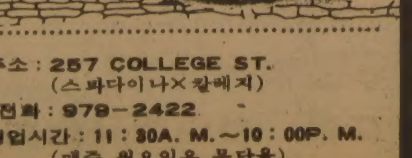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京華樓
(경화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點心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 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30A. M.~10: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社說

初耕의 門앞에서
—어려운與件속, 大豊을 期約하자

초봄에 마파람(南風)불고 비오면 풍년이든다고 한다. 어제 꽃샘추위속에 개구리입이 열린다는 驚蟄이 지나고 春分이 성큼 다가온다. 花信을 재촉하는 봄비로 겨울가뭄은 말끔히 가셔 농토가 잠을 깨고 부풀어오르기 시작했다. 벌써 春耕철이 찾아든 것이다. 어느새 향긋한 달래, 냉이등 봄나물이 나돌고 따스한 봄볕을 맞아 해빙된 논밭엔 푸른 보리싹이 고개를 살짝 쳐든다. 씨앗播種준비, 못자리 마련, 논에 물대기, 初耕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농사는 여느해와는 달리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것같다.

첫째 물가오름세를 한자리수에서 지키기위해 低米價정책이 예상되기때문이다. 종자개량, 영농자금조기방출, 비료, 농약, 농기계값 안정등 농정당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같다. 하나 농민스스로도 단위면적당 생산량증대, 생산원가절감을 비롯하여 넘고넘어야할 산이 눈앞에 가로놓여있다. 물론 지난해에 물의를 빚은 外米과잉導入같은 일이야 되풀이돼서는 안되겠다.

둘째 농촌살림이 고돼질것도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 全都市소비자물가는 12.6%밖에 안올랐지만 농가구입가격은 26.6% 올랐다. 게다가 농가판매가격은 9.2%밖에 오르지않았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세째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지만 영농근대화는 농민스스로가 꾸준히 추진해야 되겠다. 수지안맞는 농사라고 농사를 포기할수는 없는 이상 수지맞는 농사를 만들기 위해서 영농원가절감은 물론 多角영농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영농기계화등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농촌근대화는 남의 힘만으로는 언제까지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또 1년농사의 풍흉여는 봄갈이는 뭐보다도 중요하다. 이 봄갈이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봄이 오면 농민은 매일같이 논밭에 나가 흙을 밟아본다. 땅이 아직 딱딱하면 다음 주까지 기다린다. 해빙으로 흙의 수분이 높아지면 진흙더미처럼돼서 신발을 적시게된다.

낮엔 따뜻해서 흙이 풀리지만 밤에 다시 땅은 얼어 붙는다. 별로 신통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봄의 解土作用은 사실은 굉장한 耕耘효과를 주고있는 것이다. 겨울에 얼어붙고 말랐던 풀뿌리가 이때 썩기도 하거니와 씨앗을 땅속 깊이 파묻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낸다. 미국에선 눈으로 논밭이덮였을때 그 위에 목초씨앗을 뿌리기도 한다. 몇주일동안 얼었다 녹았다 되풀이되면 수분이 빠지면서 흙이 보송보송해지고 이 때가 봄갈이의 適期라고 할 수있다. 그 무거운 트랙터가 논밭에 들어가도 빠지질 않는다.

쟁기를황소가끌면 시꺼먼흙이 다시 살아난듯 위로 솟아오른다. 자연과인간의 화음이 다시 이루어져 풍년을 맞는 것이다. 봄갈이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놀랄정도로 작은 돌들이 나와 뒹군다. 이 돌멩이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모아서 치우고 酸性化된 땅에 석회와 거름을 뿌려 흙을 살려내는 노력이 한해 농사의 기틀을 잡아 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모든穀種은 흙기운을받는 先後에의해 열매를맺는데早晩이있다. 耕種이빨라야 風旱에견딘다고했다. 英祖親耕圖를보면春耕이 얼마나중요한가를 알수있다. 正月27日 임금이 先農壇에가서 祭享한다음날 籍田을 지낸다. 親耕禮때 2마리의 소로 5回推耕하면 從耕인 領議政이하6人은 12마리의 소로, 庶人終耕者는 1백마리의소로 耕作하고 靑箱속의 아홉가지 씨를뿌렸다. 1백여마리의 소가 쟁기질한다는것은 상상만해도 굉장하다. 농사는 시작이 반이고 때를놓쳐서는 안된다는것이다.

主穀自給自足의 중요성과더불어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또하나 있다. 다름아니라 정부에서 권장하고있는 보리混食, 감자混食의 문제다. 보리·감자는 맛이 쌀보다 못하지만 비, 가뭄, 蟲害, 서리등 災害에강하고 여름철에 雜草뽑는 번거로움이 적다. 人力이 덜들고 天候에강한 보리·감자를 많이 심으면 농업근대화에도 적합하다. 한국에 우두를 처음 도입한 池錫永은 重麥說을 1백년전에 내세운바 있지만 농업근대화의 각도에서도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을것같다. 감자 6알은 쌀밥한공기와 맞먹는다고한다. 못자리 준비와 함께 봄보리, 봄감자를 많이심도록 하려면 덮어놓고 권장하기전에 그소비대책등 여건마련도 아울러 강구되어야하겠다.

모스크바에 쏠린 關心
—苦悶하는 統治體의 向方을 본다

2억6천만이 넘는 인구를 거느리는 소련통치체제의 움직임에 세계의 관심은 쏠리고있다.

올해 75세인 최고 실권자 브레즈네프가 권력의 꼭대기에오른지도 18년. 병약한 그가 곧 권력의자리를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서방측 관측이 모스크바의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얽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최고통치체제 내부, 다시 말해서 당정치국에서 세력균형의 한기둥이었던 수슬로프가 지난1월 죽은데서 시작되고있다. 스탈린시대부터 이론의 전문가로 사상적 代父역할을 해온 수슬로프가 사라짐으로써 통치체의 세력균형에 새로운 동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그근거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듯 최근 잇달아 브레즈네프 둘레에 복잡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것으로 전해진다. 그의아들과 딸의 남자친구가 스캔들로 조사를 받고있고, 비밀경찰의 제2인자의 죽음도 심상치않다는 보도다.

소련의 관영 텔리비전이 늙은 브레즈네프가 눈물을 흘리는 초라한 모습을 카메라로 비치고, 한 문예잡지가 브레즈네프를 가리킨듯한 풍자기사를 실은것은 모두 예사롭지않은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서방측의 이런관측의 배경에는 소련이 겪고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평가를 깔고있는게 분명하다.

전후 가장낮은 저성장수준에서 허덕이고있는 경제문제가 브레즈네프체제에 힘겨운 짐이 되고있다는 판단이다. 동구권공산권의 성장률은 76년에만해도 5.7%였던게 80년에는 1.2%로 굴러떨어졌다.

게다가 폴란드가 파산한 뒤 소련은 비틀거리는 위성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기위해 원조의 짐까지 지게됐다.

80년의 경우 2배억달러나 되는 원조를 동유럽에 퍼부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성국들이 서방측에 빚은 72년에 1백90억달러였던게 지난연말에는 6백20억달러에 이르고있다.

그런판에 소련은 국민총생산의 12~14%를 군사비로 쓰고있다. 지난2월초 소련은 서독의 섬유업체와 은행에게 대한 빚갚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금년1월의 공업생산성장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은 밝히질않았다.

이런 분석을 고리기 보면 소련은 경제 제때 ... 포의 균형시대에 거대한 공산帝國이 군사정책에서 경제정책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이 엄청난 공고 결함 말할수 없다.

계를 찾은 길을 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이유 ...

지금 공산권에 군림하고있는 모스크바의 통치체가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운 문제의 책임을 「벼약하고 늙은」 브레즈네프에게 뒤집어 씌워 숙청할 경우는 간단한것이다. 두말할것없이 이는 소련의 정치적상황에 연결시키는 일면 모스크바에서 일어날 변동이 소련의 근본 화의 향방에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세계평화의 향방에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모스크바의 집안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직은 추측을 벗어날수 없는일이다.

크바의 통치체가 폴란드를 비롯한 어려운 문제의 책임을 「벼약하고 늙은」 브레즈네프에게 뒤집어 씌워 숙청할 경우는 크며 간단히 말할수없는 일이지만 다만 무거운 십자가를 브레즈네프가 지워 퇴장시킨다면 전체주의 관료통치체의 어쩔수없는 딜레마를 노출시키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될것이 분명하다.

海外 碩士취득자도 兵役특혜
大學院生특례법
選拔시기「卒業」때로 변경

정부는 지난해 제정한「대학원생등의 兵役특례에관한 특별조치법」을고쳐 국내대학원생뿐아니라 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경우도 특례대상으로삼고 병역특혜대상자 선발시기를 대학원입학직후에서 대학원졸업때로 변경키로했다.

5일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조치법개정안은 또현재 해외유학생의경우 27세까지만 징집연기가 가능토록돼있던것을 83년까지는 特例선발시험응시자격연령을 30세까지 延長토록 경과규정을두고 있다. 이로써 30세이전까지 징집에 응하지못한 유학대학원생들이 兵役을 마칠수있는 기회를얻게됐다.

이특례법에 따라 병역특혜를 받을수있는 사람은 1년에 2천명線(석사과정定員의 20%)으로 특혜를 받고자하는 대학원졸업생은 정부가시행하는 외국어시험에 응시, 합격하면되고 해외에서 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은 현지공관에서 일정한시험을거쳐 특수전문요원으로 인정받으면된다.

이법에 의한 대학원생의 특례조치는 전문지식소유자를 확보키위한 것으로 선발된 사람은 6개월간의 군사교육후 장교(소위)로 예편된다.

全대통령의 한반도 統一觀
"軍事아닌 국민支持度 따라"
홍콩 스탠더드紙

『全斗煥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이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슬기로운 방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정부의 신망은 국민의 支持度에 의해서 측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5일字홍콩 스탠더드가 社說을 통해 보도했다.

현지에서 해외공보관에 들어온 보고에의하면 이신문은 또『1년전 대통령에 취임한 全대통령은 근 40년에 걸쳐 계속돼온 通禁을 해제했고 劇的인 평화제안을 北韓에 제시했는가하면 가장 최근에는 정치범과 일반형사사범 3천여명에게 赦免을 베풀었다』고 말하고『全대통령은 한때 엄격하게 통제됐던 국민생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로하여금 자신의 평화제의가 아닌것이며 全대통령은 통일을향한길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ILO 업저버資格
6월總會에 代表團 파견

정부는 오는 6월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8차ILO(국제노동기구)총회에 처음으로 정식업저버로 참석토록초청을 받고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6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후 노동자의 권익옹호증대등 전진적인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총회에 정식업저버로 참가키위해 ILO집행이사회에 참가 申請書를 제출한 바있다.

鄭逸和기자 歸社

본사 鄭逸和기자(특집부)가 본사연수계획에따라 2년여동안 미국에서의 연수유학을 마치고 5일 귀사했다. 鄭기자는 南캘리포니아大學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經濟短信

▲10일 國庫業務 휴무=한국은행은 근로자의 날인 10일 모든 금융기관이 휴무함에따라 國庫業務도 휴무키로했다.

▲鄭商議회장귀국=鄭壽昌 商議회장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집행위원회에 참석한뒤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7일상오 귀국한다.

▲協進洋行 홍콩대표선임=同社는 공동대표이사 사장에 李應沔전무와 許信康상무를 선임, 李龍鎬회장은 명예회장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鮮京合繖專務에 孫吉丞씨=鮮京合繖은 6일 孫吉丞상무를 專務로 승진발령.

▲상공부, 政策자문위개최=상공부는 6일 상오 무역회관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무역·중소기업·기계·전자등 12개 분과위로 구성된 이정책자문위는 대학교수 54명, 연구기관의 전문가 17명, 관련단체임원 8명, 업계대표 23명등 1백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產銀, 기구축소=산업은행은 6일 3部 6課를 폐지, 본점기구를 18部 4室 67課로 축소개편했다.

遊休地 적극活用 食糧자급 높이게

농수산부는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을촉진하고 耕地利用도를 높여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기위해 전국적으로 놀고있는 7만2천여정보의 遊休공한지에 각종농작물을 심기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前職經濟長官 뭘하고있나
會長·社長·교수職 많이進出
金顯哲 現代고문·元容奭 능률協會회장·崔鍾浣 曉星重工회장
申秉鉉 貿易協회장·李漢彬 아주工大교수·申泰煥 학술원會長
千炳圭 동방철관회장·朴東奎해외建協회장·咸仁燮강원大교수

財界話題

○…벼슬중의 으뜸이요 감투중에서는 가장 화려하다. 권위와 명예위에 두상감투를 눌러쓴 장관자리—. 관운의꽃이요 관가의 총아역.

정부수립이래 장관자리를 거쳐간 사람은 연5백여명. 5·16이후 경제주의가 팽배하면서 경제각료가 각광을 받기시작했다. 그때문에 많은 신진기예들이 경제부처장관에 기용되었고 또 그렇고 그런연유로 젊어서 관운을 떠난 장관들도 많다.

지금까지 경제부처장관을 거친 사람은 줄잡아 1백30여명.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있을까. 경제, 재계, 학계…, 더러는 외교관으로 전신한사람도 있다.

○…경제팀의 총수인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는 거물급이 기용되는 것이 통례로되어있다. 그때문인지 전부총리는 私企業에 진출하는경우가드물다. 내각수반 경제기획원장관 재무장관 부흥부장관등을 두루역임한金顯哲씨는 現代그룹고문으로 몸담고 있다. 5대경제기획원장관을 역임한 劉彰順씨는 롯데제과회장 려오면서 能率協會와 韓國經濟新聞회장직도 맡고있다. 요즘에는 人材銀行의설립을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소식—. 朴忠勳(9대)太完善(11대)申鉉碻씨(13대)등은 집에서 소일하고 있으며 가끔 골프를 친다. 최장수장관으로 꼽 수와 韓國科學技術정보원(KAIST)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申秉鉉씨(16대)는 지난2월에 貿協회장에 선임됐고 金元基씨(15대)는 무협회장을 거쳐 현재는 집에서 책을 읽는다.

○…財政·金融의 大權을 쥐고 휘두르던 전직재무장관들은 타경제부처장관들에 비해 비교적 잘풀려나가는 케이스에 속한다. 재계 금융계가 주요활동무대.

62년證券波動을 치뤘던 千炳圭씨(14대)는 東方鐵管회장, 李廷煥씨(19대)는韓國合成고무사장으로 각각 기업의 최고사령탑을 지키고 있으며 金世鍊씨(15대)와 徐奉均씨(24대)는 金通委위원이며 朴東奎씨(17~18대)는 해외건설협회회장으로 활동하고있다. 洪升熹씨(20대)는 멀지않아 大宇나 雙龍그룹 고문으로 추대될것이라는 소문. 金龍煥씨(28~29대)는 美버클리大에서 수학하다 최근 귀국. 李承潤씨(32~33대)는 곧 大使에 기용될것이라고.

○…농수산장관자리는 관료의 鬼門이라부른다. 鄭韶永씨의 2년4개월이 최장수기록. 전직농수산부장관은 短命했으며 화려한 퇴진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朴東昴씨(22대)는 한양대교수. 趙始衡씨(25대)는 양산에서 목장을 경영하고있다. 金甫炫씨(26~27대)는 韓國農村經濟연구원을 운영하고 柳炳賢씨(19대)는 얼마전 제복을 벗은후 駐美대사로 활약하고있다. 鄭宗澤씨(33~34대)는 民正黨의원에 제1정무장관을 겸직하고있으며 李載卨씨(32대)는 올해… 지원단위원장에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李熺逸씨(31대)는 韓國製粉協會회장, 咸仁燮씨(6대)는 江原大명예교수로있다. 최근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직에서 물러난 張德鎭씨(30대)와 국제경제연구원장을 그만둔 鄭韶永씨(28대)…

○…경제개발속도와 더불어 그존재가치가 급속히 부상했던 전전상공장관들은 국영기업체나 연구단체에서 일하는 인사들이 많다. 초대朴忠錫씨는 한국토료공사사장을지냈고 2대申泰煥씨는 학술원회장및 韓日經濟新聞고문직을 맡고있다. 5대鄭樂殷씨는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장, 朱源씨(8대)는 한국인간개발원회장, 崔鍾浣씨(16대)는 曉星重工業회장과 標準協會회장으로 활동하고있다.

대), 그리고 韓電사장을 그만둔 金榮俊씨는 자택에서 소일하고있다. 농수산장관후 상공장관을역임한 崔珏圭씨(29대)는 韓美銀行長으로 내정되어있다.

○…전직商工장관이 의외로 재계에 입된 케이스가 적다. 1백억달러수출고지를 돌파했던 李洛善씨(24대)가 롯데상사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金一煥씨(9대)가 韓進觀光사장, 그리고 吳楨洙씨(13대)가 韓國貿易振興사장으로 일하고 있을뿐이다.

이밖에 具鎔書씨(10대)는 韓銀行友會회장, 丁來赫씨(17대)는 국회의장, 張禮準씨(25대)는 사우디대사로 재직중이다.

경제부처중에서 역사가 제일 일천한 동자부의 경우 梁潤世씨(2대)가 최근 漢陽住宅고문으로 영입됐고 柳陽洙씨(3대)는 대한통운여행사 사장으로 영입됐으며 朴鳳煥씨(4대)는 증권위원장겸 증권감독원장에 취임, 상장기업의 재무구조건실화에 동분서주하고있다.

◇역대경제부처장관현주소

	성명	현직
경제기획원	金顯哲	現代그룹고문
	元容奭	惠仁重機사장 能率協會회장
	南悳祐	韓日經濟協力委員會위원장
	李漢彬	亞洲工大교수 KAIST이사장
	金元基	高大교우회장
	申秉鉉	貿協회장
재무부	千炳圭	東方鐵管회장
	金世鍊	금융통화운영위원
	朴東奎	海外建設協會회장
	李廷煥	韓國合成고무사장
	徐奉均	금융통화운영위원
농수산부	咸仁燮	江原大명예교수
	柳炳賢	駐美대사
	趙始衡	목장경영
	金甫炫	韓國農村經濟研究원장
	李熺逸	韓國製粉協會회장
상공부	李載卨	국회의원
	金一煥	韓進觀光사장
	具鎔書	韓銀行友會회장
	吳楨洙	韓國貿易振興사장
	丁來赫	국회의장
	李洛善	롯데상사부회장
	張禮準	駐사우디대사
동자부	梁潤世	漢陽그룹고문
	柳陽洙	大韓通運여행사사장
	朴鳳煥	증권감독원장
건설부	鄭樂殷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장
	朱源	韓國人間開發연구원장
	李翰林	재향군인회자문위원
	崔鍾浣	曉星重工業회장

◇金顯哲씨 ◇元容奭씨 ◇千炳圭씨 ◇李廷煥씨 ◇李洛善씨 ◇李熺逸씨 ◇崔鍾浣씨 ◇柳陽洙씨

「팀스피리트」사령관 夫人 지체不自由 院生들 격려

【群山=聯】팀·스피리트 훈련에따라 우리나라에 온 美공군 태평양지구사령관 아놀드·브래스웰 중장의 부인 이언·브래스웰여사(57)가 6일 지체부자유처녀들을 위로하기위해 群山을 찾았다.

브래스웰여사는 분주한 일정속에서도 이날 지체부자유 처녀들의 재활원인 群山市明山洞141 샤론의집(원장 金貞仁·36)을 방문, 지체부자유 처녀들을 격려했다.

여사가 群山을 찾게된것은 美○○기지 헌병상병들이 샤론의집과 결연, 원생들을 돕고있다는 소식을 고국에서 전해들었기 때문.

예절·질서敎育강화 敎委, 88五輪앞두고

【光州=聯】전남도교위는 6일 88올림픽을앞두고 국민정신교육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신학기부터 각학교별로 예절과 질서지키기에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했다.

33개企業 資本잠식 12월 決算法人10%

12월말 결산상장기업중10·5%에 달하는 33개기업이지난해 경영부진에 따른 적자의 누적으로 자본금을 까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증권업계에따르면 이들 33개기업체의 평균자본잠식비율은 75·1%로 자본금규모의 4분의3이 잠식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코오롱電機등 7개사는 1백%가 넘는 자본잠식비율을 나타냈고 50~1백%의 자본잠식비율을 보인 업체는 9개사로 33개사중 절반정도가 2분의1이상 자본금을 잠식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產을 위협 합니다.

政局往來

◆丁의장의 制動에 野黨불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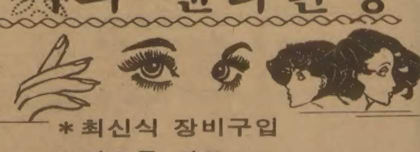
「先지망 後경쟁」으로 바꾸면 이번엔 「눈치작전」아닌 「봉사작전」非難

◆마지막질문…의원들 자리지켜

◆의원姓名잘못읽는 失手없도록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여성의 희소식♥
미의 센타탄생



* 최신식 장비구입
* 여드름 치료
* 잔주름 제거
* 노화방지
* 살결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 매니큐—패티큐

● 불란서 최고급 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
● 털이많아 고민하시는분
● 바른 화장법 지도

6093 Yonge St. (영×휜치)
Yonge 센타 플라자 내
☎: 223—7884~5 Mrs. 리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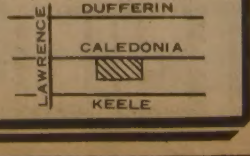
Victoria day에 피요한 Fire Crac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March 8 - March 20 1982

Wilson Pop	24x10 oz.	5.39
Dip League chew	12x59¢	4.59
Hershey peanutbutter cup (crunchy peanutbutter cup)	36x40	8.99
Leaf ball gum prepack (Buy 5 boxes + 1 box)	6x48x10	16.65
Leaf ball gum	27x25	3.79
Dare peg top candy	12x1.29	9.19
Smiles & Chuckles (nut bordeau & butter mallow only)	36x40	8.99
Jelly gum cola fizz	80x 5	2.69
Kisko kids	100x.5	3.15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도마니온·스몰웨어에서 쎄일즈·슈퍼바이저로 일하게 되었읍니다. 언제든지 찾아 주시면(전화) 감사하겠읍니다.
김 형 철 배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한국인 유일한
에코시 가구점

● 최고품질의 차원 높은 가구
● 친절봉사, 에프터 써비스
● 특별염가

2300 YONGE ST.
(영×에그린톤 센타)
486—0397 김 만 구

아침에

倫理의 지붕아래서 떳떳하게

社會 初年生에게 한때 나쁘면 한때 좋은것이 세상일

玄勝鍾

〈高大교수·前成大총장〉

형설의 공을 쌓은 보람이 있어 각급 학교에서 졸업의 영광을 차지하고 현실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는 여러분을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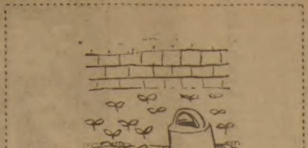
또한 이유야 어떻든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야 할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살피건대 지금 우리는 어느 모로 보나 참으로 어려운 시대와 환경에 처해 있읍니다. 국제정세를 관망할진대 세계 어느 곳 치고 편안한 구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이에 따른 미·소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움직임, 이 모두가 자칫 잘못하면 큰 전쟁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우를 가지게 합니다.

국제정국의 어려움에 못지 않게 국제경제도 근래 드문 큰 침체상태에서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느라고 모든 나라들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한편 눈을 돌려 우리 국내사정을 보건대 역시 어려움은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는 남북으로 갈려 민족분단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언제어면 불장난을 야기할는지 예측할 수 없는 북한집단을 지척지간에 두고 우리는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 파묻혀 있읍니다.

또 우리의 경제적 침체와 불황은 온 국민이 합심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로서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읍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이 난제를 풀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정신차려 노력만 하면 족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은 이와같은 내외의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지혜와 의지와 실천력을 청신하고 씩씩하게 간직하고있는 일꾼들입니다. 이때문에 사회는 여러분들의 활약을 목마르게 기다리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뭐니뭐니해도 온실에서 자라난 꽃들입니다. 미래의 이나라를 짊어질 역군들이기에 사회와 나라에서는 여러가지로 일반사회인과는 다른 특별한 혜택으로 감싸주었읍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학교에서는 스승으로부터 다칠세라 뒤질세라 부축과 보호와 인도를 받아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서서 새출발을 하게되는 현실사회에는 그러한 특혜나 보호와 인도가 없읍니다. 무자비하게 모질고 거세며 거친 풍파가 몰아칠 것입니다. 춘풍추우, 맹서와 혹한이 사정없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온실의 꽃은 황야의 노천에서 생존을 유지하며 자라기 위하여 큰 시련을 필연적으로 겪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자립과 자주의 정신으로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인생을 구축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의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조언을 하고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고마움을 아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선택된 인간으로서 부모·스승·학교·사회·나라로부터 헤아릴수 없는 도움과 혜택을 받았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았으면 보답할 줄 알아야 배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을 주신 분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할줄 알아야 하지요. 그러나 보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훌륭하게 활동하여 제대로 사람다운 생활을 하고 존경받는 사회인으로서 자기인생을 구축하는데 있읍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교과서적인 원리원칙만 배웠읍니다. 진리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나 이상만을 머리에 담아두었읍니다. 이에 대해 현실은 원리나 이상대로만 나타나지는 않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갈등이나 괴리 또는 회의를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실적 상황에 대응하여 그것을 사실대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종합하여 대처할 수 있는 결론을 얻는 판단능력을 키워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괴리를 초극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원칙에 어긋나는 현실이 있더라도 그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이상의 세계로 끌어올리려는 부단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학교에서 터득한 지식과 응용력과 인격과 교양입니다.

다음에 중요한것은 직장, 직분, 직업과의 일체감입니다. 나와는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요 천직이라고 관념하고 성의를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삶의 보람을 찾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오늘의 상황에서 많은 변수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명분의 금전적 유혹에 끌려 이리저리로 직장과 직업을 옮기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족이 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인간사는 항상 기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때 나쁘면 한때 좋아질수 있는 것이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에는 한 직장과 고락이나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나쁠 때에는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발벗고 나서서 좋게 만들도록 힘쓰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물질이나 실리추구만을 일삼아서는 배운 사람, 보람을 찾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읍니다.

또 나는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인간이 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첨이란 비굴의 대명사입니다.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첨으로 그것을 메우려고 하는 법입니다. 아첨은 직장·상사·동료 그리고 여러분 자신 누구를 위해서도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닦은 지식과 인격·교양을 바탕으로 건전한 신념과 사명감 속에 자존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는 인간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직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좌충우돌을 일삼으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건의와 토론을 주저하지 말되, 일단 결론이 내려지면 그것이 위법한 일이 아닌 한 승복하는 민주정신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태야 할것은 직업윤리의 구현입니다. 윤리적 지붕 밑에서 일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적 침체보다 윤리의 타락입니다. 물욕을 위하여는 직업윤리를 헌신짝같이 여기는 풍조가 팽배해 있읍니다. 그러나 물질을 얻는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요. 금전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사회·나라·인류를 위하여 남기는 것이 있어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후임자나 후세인이 무엇이라고 평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탁한 현실사회의 부패현상에 대하여 전연 면역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병균에 감염되기 쉬운 체질의 소유자입니다. 반면에 사회의 악마의 유혹은 대단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하루빨리 하십시오.

그리하여 옳고 바르고 떳떳하게 사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무어라하든 큰소리 칠수있는 몸가짐을 견지하십시오. 세상에는 터무니없는 중상모략도 많음을 생각할때 더욱 그렇습니다.

끝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기혁신을 위한 부단의 노력을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배운것으로 알것은 다 알았다고 착각하여서는 결정적으로 낙오자가 되게마련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읍니다. 폭발적 지식의 홍수,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가위 혁명적이라고 할수있을정도로 전개되고 있읍니다. 이것에 따라가는 노력만이 여러분을 적자생존의 원칙에서 구해줄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경쟁에서의 승자가 될수있는것입니다. 평생교육이란 그래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쉬지않고 배우고 읽고 익히고 닦아야함을 망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겁을준 느낌이 있어 미안합니다만, 늘 건강에 유의하며 진정한 보람을찾아 행복된 인생을 추구함으로써 먼훗날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주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蘇人工衛星공장 爆發

모스크바 近郊서 건물完破·人命피해 많은듯

【모스크바5日AFP=聯合】모스크바 근교의 한인공위성 및 로키트부품제조공장에서 4일하오 대규모폭발사고가 발생、단위공장1개가 완전히 파괴되고 상당수의 인명피해가 난것으로 5일 알려졌다.

모스크바 교외의 다비드코프 지구에 소재한 이 공장의 폭발사고를 목격한 소련인들은 이날 하오7시30분께 (현지시간)『이 공장에서 포탄이 터지는것 같은 굉음과함께 불길이 50m나 하늘로 치솟았다』고 폭발당시의 장면을 전했다.

소련정부관리들은 대규모사고에 대해 일체 함구해온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이날 사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식발표도 하지 않았다.

서방전문가들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우주선연료탱크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모스크바당국은 시내소방서들이 보유한 40대의 소방차들과 수대의 앰뷸런스들을 사고현장에 출동시키는 한편으로 공장주변에 군인들을 배치、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았다.

政治犯등 1만여명 석방

이란、2개월내 斷行키로

호메이니命令따라

【런던5日UPI=聯合】이란의회교지도자 루홀라·호메이니옹은 회교혁명법정의 유죄판결을받고 수감돼있는 1만여명의 정치범과 형사범들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고 관영이란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이죄수들이『앞으로 2개월내에 풀려날것』이라고 말하고『석방인원은 1만명을 넘을것』이라고 밝혔다.

美태평양艦隊 劣勢

對蘇戰서 승리못해

【워싱턴6日UPI=聯合】제임즈·워트킨즈美太平洋 함대사령관은 5일 美태평양 함대가 최근의 전투력향상에도 불구하고 소련태평양함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것이라고 장담할수 없다고 밝혔다.

美7艦隊 戰力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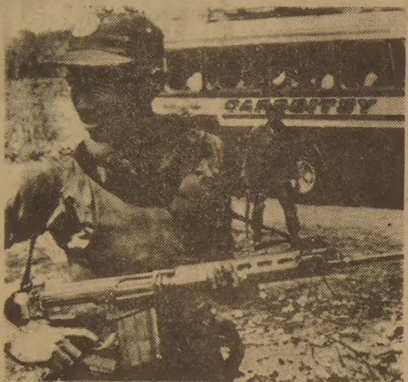
훌컴司令官 太平洋 蘇해군력 增強대처

【東京5日AFP=聯合】미제7함대는 소련해군의 전력증강에 대처하기위해 자체전력을 강화하고 태평양배치 미해군함정의 수를 늘릴것이라고 7함대사령관인 스테이저·훌컴 해군중장이 5일 말했다.

훌컴사령관은 이날 미군신문 성조지와의 회견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미해군을 25~30% 강화한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7함대도 앞으로 4~5년안에 비슷한 규모로 증강될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가『분명히 역대 행정부들과는 달리 태평양에 역점을 두고있으며 따라서 태평양지역에 미해군전진함대가 배치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련의 해군증강에 대처하기위해『가능한한 미해군을 전진배치할것을 고려중이며 이는 남지나해의 경우 베트남의 캄란만해역과 동서북태평양은 대한해협과 동해 그리고 인도양에 역점을 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武裝한 엘살바도르 게릴라 자동소총으로무장한 한 엘살바도르게릴라가 수도 산살바도르 東南方65km지점의 엘플라욘읍 부근의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경계임무를 펴고있는모습。30명으로 추산되는 게릴라들은 지난4일이 검문소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사들로부터 戰爭稅를 받아냈다. 【엘플라욘(엘살바도르) 5日 AP電送=聯合】

蘇, 엘살바도르叛軍지원

니카라과파견 고문단이 物資수송

【워싱턴5日UPI=聯合】니카라과에 파견돼 있는 蘇聯고문관들은 엘살바도르의 反정부게릴라부대들에 대한 물자수송비행업무를관장하고있다고 케이블·뉴스·네트워크(CNN)가 5일 보도했다.

CNN은『외부인들이 엘살바도르내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이같은 정보가 이미 美상·하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제출됐음을 미국무성소식통 두명이 밝혔다고 전했다.

알렉산더·헤이그미국무장관은 4일 의회증언에서 엘살바도르의 반군들이 니카라과에 있는 소련·쿠바및 기타공산국들의 고문관과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힌바있다.

◇"물지 말아요" 클리블랜드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셜리·젤린양 (19) 이 수족관내부를 청소하던중 거대한 몸집의 아마존·지가스를 만나 경계하는 태세를 보이고있다。아마존강에사는 무게54kg, 길이 1·5m의 이 물고기는 작은물고기를 먹고산다. 【클리블랜드 (美오하이오州) 5日 AP電送=聯合】

海外토픽

眞珠灣기습 알았다

★당시 루스벨트大統領

프랭클린·루스벨트前미대통령은 지난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對日선전포고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군의 공격을 방관했다고 미NBC방송이 5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이날 뉴스프로에서 퓰리처賞을 수상한바 있는 미국의 사학자 존·톨랜드씨의 최근 저서「진주만 - 치욕의날과 그후유증」을인용、2차대전당시 미해군정보요원들이 일본해군의 무선통신을 도청한끝에 진주만공격 5일전인 41년12월2일 이사실을 알아내고 루스벨트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했으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진주만의 미해군지휘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워싱턴=聯合】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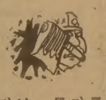
도끼질 豫告

板門店「공동안전지구」는 유엔군과 북괴군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이지만 사실은 따로따로 자기 역내에서 경비를 맡고 있다. 전에는 이 구역안에서 양측 경비병이 자유롭게 돌아다녔었는데 지난 76년 8월18일 북괴군이 그 경비 구역내에서 도끼로 미군장교를 살해한 후부터 역내를 지나는 軍事分界線을 서로 넘지못하도록 변경했었다. 공동경비구역을 갈라 각자의 담당영역을 설정한 셈이다.

최근 이 구역안에서 북괴경비병이 넘지않기로 돼있는 분계선을 넘어와 유엔측에 대하여 도발적 행동을 하고 달아난다고 유엔군사령부가 발표하였다. 유엔군 초소에다 돌팔매질을 하는가 하면 미군 흑인병사에게 인종 모욕적인 욕설을 함부로 뇌까린다는 것이다. 얼핏 板門店 도끼만행 사건이 연상되어 섬뜩해진다.

어쩌자고 그러는것일까? 북괴경비병이 지난달 20일에 모두 교체되어온 新參들이라 공동경비구역안의 물정사정을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듯하다. 옛날을 지르면 南으로 번져온다는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불을놓는 그들이 속셈 없이 南쪽 구역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는 볼수 없다.

아무래도 그 소갈머리에는 뭔가 심히 비뚤어진것이 있을 듯하다. 그리고 또 뭔가 극히 충격을 받고나서 板門店에서 부리는 폭거인성싶다.



짐작되는것은 팀스피리트훈련 말고도 우리가 그간내놓은 대북제안들이다. 1·22 民族和合民主統一방안이라든지、2·1 남북간 20개示範事業추진제의、또 2·15 南北고위 예비會談 개최제의등이 北으로 하여금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하였기 때문에 보인 심술로 추측된다. 이런 제안은 아무리 주민들의 귀와 눈을 막고 가려도 北의 깊은데까지 번져 들어갔을 것이다.

金正日의 권력세습으로 더욱 단단한 兵營國家를 만들려는 계책에도 어디선가 뒤트는 소리가 났을지 모른다. 지난달말에 실시된 소위「인민회의대의원선거」결과를 보면 7할이상이 새로 진출한 자들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金正日의 후계옹립에 동원될 전위분자들이라 한다. 또 대의원수가 36명이나 불었는데도 開城지구는 단한명도 안늘었다. 이는 불어난 人口만큼 휴전선 근처주민을 내륙지방으로 강제소산시킨것을 뜻한다.

戰爭準備、世襲體制구축、金日成70회生日「선물」…등으로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한것이 요즘의 북한실상이다. 우리의 민족화합통일제의는 이런 그들을 크게 자극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대화에 나올 생각은 하지않고 또「도끼」나 들생각을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生死不明 6년…국제테러團두목

카를로스는 健在했다

75년 OPEC會議場습격主犯 일명「재칼」

프랑스大使館에 서명·지장찍은 협박편지

◇카를로스

【파리5日AP·AFP=聯合】「재칼」로 통했던 국제테러단의 두목 카를로스가 생사불명된지 6년만에 다시살아났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서명과 지장을찍은 반페이지의 소인없는 협박서한을지난3일헤이그駐在프랑스대사관에 보내왔다.

최근 폭발물을 소지한혐의로 파리경찰에 체포된2명의 테러혐의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30일이내에 정부에 보복하겠다는것.

편지의 지장은 올해32세인 카를로스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지난75년12월 빈에서 열렸던 OPEC 석유상회의장을 습격했던 주범으로알려진 카를로스는 그후종적을 감췄는데 동료또는 적에게 살해됐을 것이라는추측이 나돌았었다. 카를로스는 또 최근레이건 미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리비아암살단의 두목이란 보도도있었으나 그의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정통한 소식통은 카를로스가 이번에 노리는인물은 가스통·드페르내무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駐네덜란드 프랑스대사는 장갑차의 호위를받으며 출퇴근하고 대사관경비는 삼엄하다.

카를로스의 본명은 일리치·라미레스·산체스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테러리스트로 처음 세상에 알려진것은 지난73년12월 유태계 실업인 요세프·코너드·시프를 살해하려고 했을때였다.

그후 카를로스는 각종팔레스타인 게릴라단체및 국제테러단체와 관련을 맺고 74년에는 헤이그주재 프랑스대사관 점거, 75년 파리에서 2명의 비밀정보원을 포함한 3명을 살해, 76년 우간다 엔테베로 프랑스여객기를 납치하는등 종횡무진으로 악명을떨친 인물.

카를로스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공산주의자인 변호사집안에서 출생했다는 것외에는그의 생활은 전설적인 이야기、소문、소설등으로만 알려졌을 뿐이다.

카를로스는 1m78cm키에 몸집이 건장하고 둥근얼굴에 곱슬머리를 하고있으며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이번「재칼」의 출현은 세계각국을 테러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철수를반대하는 정착민 자녀들이 4월 철수에 아랑곳없이 모래밭에 꽃을 심고있다. 【UPI】

한달후면 시나이撤收

不安한 이스라엘朝野

오는 4월25일로예정된 시나이반도철수를 앞두고 이스라엘 朝野는 무어라 꼬집을 수없는 불안에 휩싸여있다.

베긴이스라엘정부는 이집트와 和平을 가져온 캠프·데이비드협정의 댓가로 시나이반도에 반환키로 한 시나이반도철수를 서두르고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저항은 만만치가 않다.

시나이반도철수반대운동에 앞장서고있는 MAOZ의 지도자 아비·파르한은『이땅을 포기하는것은 시오니즘의 포기와 다를것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베긴정부는 지난26일 철수대상지역을 군사작전구역으로 선포하고 정착민 5천여명을 철거시키고있는데 MAOZ단원등은 출입금지령을 묵살하고 잠입해서 떠나지않겠다는 정착민들에 가담、소개작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埃·美의 아랍接近동향등 返還뒤에도 平和에 회의

定着民동조 陸參總長해임 경고파문도

이들이 걸쳐든 구호는「유태인은 유태인을 쏘지않는다」는것.

군부대는 3일에도 시나이북부 야미트시에 농성중이던 MAOZ단원 60여명을 강제로 疏開시키는 작전을 벌였다.

시나이반도 철수에대한 불안은 정부고위층에도 갈등을 가져와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라파엘·아이탄은『철수반대운동에 동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베긴수상의 해임경고를 받기도했다.

이스라엘은「영토의축소」를 의미하는 시나이반도 철수후 아랍세계와의 평화를유지할수 있겠느냐에 회의를느끼고있다.

특히 사다트이집트의 후계자 [illegible] 아랍복 [illegible] 있어 이집트의 배 [illegible] 크게염려하고 있다.

여기에 유일한우방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조기공중경보통제기(AWACS)를 판매하고 요르단에 최신병기의 판매가능성이 보이는등친아랍정책을 취하고있는 것도 불길한 징조로보고있다.

이때문에 베긴내각의 샤론국방상은 시나이반도 철수이전에 남부레바논을 공격、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기지를 초토화함과 동시에무바라크의 덜미를 잡아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있다.

베긴정부는 시나이반도 철수후 예상되는 안보위기에대처하기위해 거국내각의 구성을 야당인 노동당에 제의하고있다.

철수의 약속은 지켜야하고 평화의 전망은 불투명한것이 시나이 철수를 앞둔 이스라엘의 딜레머다. 【金相鎬기자】

Sansui

"산수이" 전축 대매출

전축 구입에 최고기회!

150 WATTS POWER
REG. $1829.00
SPEC. $1295.00

110 WATTS POWER
REG. $1650.00
SPEC. $1149.00

Sansui

130 WATTS POWER
SPEC. $1990.00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日프로권투 毒物사건
國際스캔들로 飛火

구시겐 4게임 毒物확증
柳濟斗도 犧牲소문 파다
日警수사

【東京6日=宋孝燮특파원】 일본의 거물급 국제프로복싱 매치·메이커인 가네히라씨(金平正紀·48·日本協榮 권투클럽회장)가 한국선수를 포함한 외국의 프로복서들을 길러들여 독극물을 주입한 오린지를 먹여 타이틀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세칭 「가네히라흑막」이 점차 파문이 커져 日本과 한국복싱계가 연결되는 국제스캔들화 하고있다. 당초 「가네히라흑막」은 일본의 교양주간지인 「주간文春」을 통해 폭로되면서 비롯됐는데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日本의 일간지들이 정면으로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본격화, 스캔들의 주인공인 가네히라씨가 자신의 클럽회장직과 프러모터라이센스를 일본복싱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피크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한국의 金煥珍, 金龍鉉등 두선수인데 경찰의 진상조사에 따라 이들외에도 더많은 피해자가 드러날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말에 이뉴스를 전해들은 한국의권투인과 권투팬들은 『柳濟斗선수가 와지마·고이께에게 타이틀을 빼앗겼을때도 그런 소문이 있지 않았었는가』고 지적, 『장외에 밝은 日本 프러모터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세계에 유례가없는 복수 옵션에얽매이는 한국의 프러모터 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반응을보였다. 한편 이사실을 전해들은 한국경찰은 한국측 피해자들이 요구해오면 곧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金賢治

◇柳濟斗

◇金龍鉉

◇金煥珍

◇도까시끼

가네히라、프러모터 라이센스 返納

사건의 발단 지난 4일 발행하는 주간文春이 「3월 11일」자호에서 「81년12월16일 센다이(仙台)에서 열린 프로복싱 WBA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전에서 일본측에 챔피언벨트를 빼앗긴 金煥珍에게 독물이 든 오린지를 먹여 힘을 빼는 모략을 쓰려했다」고 폭로했다.

주간文春은 연이어 이번호에서도 한국의 두 선수에 관한 흑막을 폭로하고 앞으로 4회에 걸쳐 다른 외국선수들에 대한 모략극을 차례차례 폭로하겠다고 밝혀 일본 복싱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진상조사 東京경시청은 주간文春폭로기사에 ①독극물을 오린지 주스에 주사기로 넣는 작업을했던 관계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고 ②오린지 주스를 구입한영수증의 복사본이 있다는점 ③가네히라 회장이 아무런 반론없이 복싱계에서 은퇴했다는 사실등을 들어 고발기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이같은 독물주입행위가 상해죄와함께 위협업무방해죄에해당한다고지적, 한국측과 일본복싱협회 관계자의 고발을받아 수사에 착수키로했다.

신빙성여부 경찰뿐아니라 협회도 주간文春의 폭로 기사에 신빙성을두고있다.

일본 프로복싱계 발칵 프로복싱계에서 막강한 이권과 영향력을가진 가네히라씨가 주간文春의 폭로에 한마디 언급도없이 후퇴한것은 매우 이례적인일로 받아들이고 폭로내용이 사실이아니라고 보고있다.

또 일본복싱협회 가와이데쯔로(河合哲郎)회장과 기무라(木村七郎)최고 고문등 4명의 관리위원은 5일 가네히라의 매니저 자격정지 신청을 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요청을받은 호사까(保坂) 커미셔너(관리위원장)는 이날상오10시부터 이사회를 소집, 가네히라의 해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그의 프로모터 라이센스 반환을 이의없이 수리했다.

일본의여론 아사히(朝日) 마이니찌(每日)도오꾜 신문등 일본의 유력일간지들은 이사건을연일 크게보도하고있고 시민들도 『놀라운 일이다』라며 사실이아니길 바라는눈치다.

한편 재일거류민단의 朴炳憲부단장은 이날 『한국선수가 일본에 까지와 「흑막」에의해 패했다」는것은 상상도할수없는 일이다. 어쨌든 도까시끼―金龍鉉과 도까시끼―金煥珍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독물주입은 실패했더라도 뭔가 두선수에게 또다른방해공작을 했을것이다』고말했다.

한편 이사건에대해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지마·시게루(小島茂·일본복싱 커미션 사무국차장)=가네히라 회장 스스로가 도장 경영권과 프러모터면허를 반납, 수리했다. 일본 복싱계를 위해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週刊文春 흥미본위의 센세이셔널한 일반 주간지와는 다른 교양지.

당사자인 가네히라씨와는 지난81년8월 또다른 폭로기사로 법정소송중에있어 확실한 증거없이 그에 관한 폭로기사를또다시 싣지는않았을것이라는게 중론. 주간文春은 『가네히라가 구시겐(具志堅)을 착취하고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가네히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었다. 주간文春은 文藝春秋의 자매지로 文藝春秋는지난73년 당시 수상이던 다나까(田中角榮)의 흑막(스캔들)을 폭로해 수상을 하루아침에 구속케한 권위있는 월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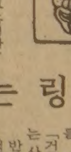
주간 文春은 이번 폭로기사를 싣기에 앞서 『개인적 감정이 아니고 일본복싱계가 정화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내막을 폭로한다』고 밝히고、구시겐의 방어전중 4개의게임에서 독물을 주입한 확증을 갖고있으며 계속해서 이사실을 폭로하겠다고말했다.

국내반응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권투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놀라와하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권투위원회(KBC)의 한관계자는 6일『주간文春의 폭로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프로권투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自害행위이며 앞으로 국내흥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KBC는 오는 8일 상오 金煥珍과 金龍鉉을 불러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日本권투위원회(JBC)에 대해 진상을 확인해주도록 서면요청키로했다.

4角의 代父
베일벗는 拳鬪 프러모터
흥행收益을 쫓는 링사이드의 主役



TV의 권투중계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눈에는 세계 챔피언 벨트를 매는 도전자의 환희에 찬 얼굴과 링·사이드에서 열광하는 권투팬들의 모습만 비칠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챔피언과 관중、그리고 제3국인 외국인레프리、WBA나 WBC에서 나왔다는 감독관、한국권투위원회의 임원들은 조연자나 엑스트러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링·사이드에서 팔짱을 낀채 지그시 두눈을감고 챔피언이 벌어다줄 돈의 규모를 가늠하는 사람―프러모터가 어쩌면「열광극」의 주연배우일지도 모른다.

우리말로 표현해서 「권투흥행사」라 할수있는 프로모터 제도가 어느덧 우리나라 권투계에도 뿌리를내렸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큰재미를 보는 이 이색직업이 바다를 건너와 한동안 자리를 잡지못하고「영세성」을 면치 못하더니 요즈음엔 국제권투계에서도 제법 대우를 받는 국제급 거물까지 배출해낸게 현주소.

프로모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쉽게 말해서 대전장소、대전일시、대전선수를 마련해서 시합을열고 거기에서 나오는 흥행수익을 챙기는 직업인이다. 그러나 권투선수나 권투지망생에게는 프러모터가갓파더 (God father=代父)로 통한다. 마피아의 代父가 졸병들을 먹여 살리고 키우고 보호하듯이 프로모터는 젊은 복서들을 양성하는 매니저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 한국권투위원회에등록된 프로모터는 모두 17명이다. 이중 동양의 세계챔피언 王國을 이루는데 기여한 창업자 그룹은 金浩然씨(극동프로모션회장)、徐順鍾、姜錫鎭씨등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金씨는 金性俊·金相賢·金煥珍·金喆鎬를、徐씨는 朴贊希·廉東均을、姜씨는 柳濟斗를 세계의 주먹왕자로 키운 실력자들이고、신진그룹으로金賢治、崔承哲、柳和龍、張奎喆、金奎喆씨등이 활동중이다.

프로모터는 권투선수 출신도 있지만 밤의 세계에 밝은 사람도 많이 섞여 있는 특성을 지녔다. 알리―포먼의 세기의 대전을 벌인 미국의 거물 프러모터 돈·킹은 감옥소를 다녀온 전과자다. 우리나라의 「거물」중에도 반생이 수수께끼라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모두 1천1백28명의 프로복서가 웅크리고있다. 이중 A급이 1백명、B급이 1백2명、나머지는 C급으로 1천26명. 그런데 권투로 생활이 가능한 선수는 A급의 상당수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세계나 동양、아니면 한국챔피언 정도가 돼야 돈을 만진다. C급이나 B급은 매니저의 「사육」을 받으며 작은 파이트 머니로 견딘다. 어떻게 보면 프로모터는 선수의 은인이 돼나 다르게보면 「착취자」로 투영될수있는 2중성이있다. 툭하면 세계 챔피언과프러모터가 싸우는게 다 돈때문이다. 가네히라 (金平) 파문은 우리나라의 프러모터가무법자代父가 돼서 뒷거래나 잔재주만 피워서는 곤란하다는 교훈을 남겨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氷山의 一角
勝負조작은 「알려진 事實」
알리·리스튼 事件은 有名
金賢治·빌라플로戰도 密約

프로복싱이 스포츠와 흥행의 양면성을 갖는다는것은상식이지만 이번 승부조작사건은 하나의 충격이다. 프로세계의 내막은 흔히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의해 그베일이 철저하게 가려져온게 사실이기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힐때 말썽이된 金煥珍선수와 金龍鉉선수의 약물중독 시비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과거 여러경기에서 약물중독상태로 보였던 선수는 이밖에도 한둘이 아니었다.

약물중독시비가 외국아닌 우리나라 선수에게서 처음알려진 것은 지난76년2월.

당시 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柳濟斗선수가 동경서 일본의 와지마·고이찌(輪島功一)에게 시종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15라운드에서 KO패 당한뒤 귀국,『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무엇인가 중독되었는지 모른다』고 폭탄적인 발언을 했다.

권투팬들 사이에 뒤거래로 타이틀을 팔아넘긴 것이 아닌가하는 아리송한 소문이퍼지자 국민들은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권투 전문가를 비롯 본격적인 권투팬들은 柳선수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의혹을 갖지 않을수 없었다.

특히 권투팬들은 알리와리스튼의 대전에서 승부가 조작됐다는 외신을 생생하게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柳선수의 패인을 석연찮게 생각했으나 그 스캔들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알리와 리스튼의 스캔들이 64년 전세계를 흔들었으며미의회에서는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당시 모든사람들이 리스튼의 승리를 믿었지만 리스튼은 7회에 KO패 당했다. 다음해인 65년2월 리스튼과 알리는 다시 시합을 가졌지만 일반의 예상을 또다시 배반, 리스튼은 1회1분만에 KO당하고 말았다.

당시 이경기를본 전세계인들은 사기협잡이라고 비난했는데 리스튼은 마피아단과 관련을 갖고 있어 마피아의 압력에 의해 일부러 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특히 일본프로복싱계의 승부조작은 악명이 높았던것으로 돼있다.

『일본에서 세계타이틀매치를 벌이는 경우 KO를 시키지않으면 6대4의 경기를 벌이고도 지게 마련』이라는 것은 세계권투인들의 상식.

그만큼 일본에서는 심판들을 매수、승부를 조작하고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승부는 조작된다. 68년6월 한국에서벌어진 李안사노와 일본의 아까사까와의 대전이 그 대표적인 예.

당시 아까사까는 6회에 링에 나가 떨어져 두어번 딩굴어 의심을 받았는데 후에 5백달러를 받고 져주었다고 스스로 승부조작사실을 털어놨다.

승부조작의 주인공 J씨는 그후 프로복싱계에서 제명됐지만 한국 프로권투에 씁쓸한 이정표를 만들었다.

또 75년 3월14일 마닐라에서 열린 金賢治선수와 벤 빌라플로와의 WBA 주니어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도 사전 밀약된 대전이었다.

金선수가 9회에 3차례다운만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대전을 주선했던 매치 메이커 로페·사데발씨가 심판을 매수、이기도록 해놨었기 때문. 당시 로페씨는 시합이 끝나기도 전에 金선수 승리 축하연을 벌일정도로 완벽하게 꾸며놨으나 金선수가 워낙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약물중독사고까지는 가지않아도 세계프로복싱계는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있다. 심판매수는 거의 상식화돼 있다는게 권투인들의 솔직한고백. 그러니 홈링에서는 KO만 당하지않으면 이기게돼있다는 혹평을 받게된다.

【盧基昌기자】

가네히라란 人物
日복싱協會長 역임하기도

◇가네히라

히로시마(廣島)태생으로 지난59년5월 일본 밴텀급1위의 현역에서은퇴, 東京시내에서 식당경영을하다가 전플라이급 세계챔피언 에비하라(海老原)와의 친교를 계기로 가네히라 복싱도장을설립했다.

그후 무역회사 協榮물산과 제휴하여 도장을 확대、교오에이(協榮) 도장을 세우고 구시겐·요오꼬등5명의세계 챔피언을 키워냈다. 그는 일본복싱협회회장직을 역임하는등 일본프로복싱계에 막대한 영향력을행사해왔다. 특히 한국과 동남아등지의 세계타이틀매치의 흥행은 거의 그의 손안에서 결정될만큼 프러모터로의 활동이 컸다.

해외演藝

男優존·빌러시 알몸의 屍體로

얼마전 국내에도 소개된 코미디영화 「블루즈 브러더즈」의 주연배우 존·빌러시(33)가 지난5일 할리우드의 힐즈에있는 그의 방갈로에서 알몸인채 죽어있는 시체로 발견됐다고경찰이 밝혔다.

땅딸막한 체구의 「애니멀하우스」、「1…」들 영화에서 주연. 【UPI】

演藝소식

새회장 裵承男씨 문화광고 영화協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지협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裵承男씨 (한일기획대표)를、부회장에 黃炳周씨(용영기업대표) 金泰雨씨(신영필름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裵회장은『문화광고영화의 질적향상으로 영상문화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피력.

金塊등 네다바이
金銀房에 稅關員사칭

5일상오10시께 서울中區南倉洞47의3 新世界 금은방(주인 高善子·여·40)에 40대남자 3명이 세관원을사칭하고 들어가 주인高씨를협박, 금괴1백돈쭝짜리2개, 50돈쭝 2개등 순금3백26돈(싯가 1천2백80만원)과 현금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高씨에 의하면 이날 가게문을 열자 40대 남자 3명이 「임혁수」란 이름의 세관원 신분증을 내보인뒤 『조사할게있다』며 설합등을 뒤지기 시작, 高씨의 핸드백에서 금괴와 현금이 나오자 이를 압수하는체한후 세관으로 가자며 高씨를 검정색 로열승용차에 태웠다는것.

私立유치원서 바가지入學金
願書접수비 포함 12萬원까지
大田지방、國校併設폐지되자 高校보다 더받아

【大田=聯】올해부터 전국6대도시의 국민학교병설 유치원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사립유치원에서는 원서접수비·출석카드비등 갖가지 명목을 달아 아동1명에 12만원이상을 받고있어 학부모들로부터심한반발을사고있다.

6일 大田시내 A유치원의 경우 아동1명을 취원시키는데 모두 12만원가량이 든다는것인데 항목별로는 ▲보육금 3개월분=4만1천6백70원▲교통비(3월~7월)=3만원 ▲야외수업교통비=1만원 ▲원서접수대=1만원 ▲원서대=1천원 ▲출석카드비=6천원 ▲사진=2천원 ▲원복대=1만8천원등 8개항목에 모두11만8천6백70원으로 고등학교입학금보다도 더 비싼 실정이다.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유치원입학금이 고등학교입학금보다 더많다는것은 상식밖의 처사』라면서 『수업료는 어쩔수없는 것이지만 원서접수비1만원과 출석카드비 6천원은 말도안되며 교통비의 경우도 3월과 7월은 불과 10여일밖에 안되는데 한달씩 계산한것은 지나친 일』이라고했다.

한편 大田시교육청관계자는 이에대해 『유치원 甲지의 경우 매달학자금4천9백원、육성회비3천1백원、수업료1만1천3백20원만 받도록 되어있으며 원서접수비、출석카드비등은 항목에도 없다』고 밝혔다.

"租鑛權연장안돼 11억손해"
石公서 두德大가自殺기도
巡視중이던 長官면회요청 거절 당하자

6일상오 11시께 서울永登浦區 汝矣島洞 대한석탄공사 3층회의실 입구에서 강원寧越郡北面磨磋里 寧越광업소(소장 金光植·48)덕대업자 朴光圭씨(49·강원寧越郡寧越邑永興里)宋鍾斗씨(45·충남 大田 市宣化洞381)등 9명이 『석공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11억원의 손해를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때마침 석공을 순시중이던 李宣基동자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朴씨와 宋씨가 가슴에서 과도를 꺼내 할복자살을 기도、녹십자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이들은 이날 석공사장을만나려고 정문을들어서다 직원들이 『장관이 오셨으니 들어갈수없다』고 제지하자 『그렇다면 장관을만나겠다』며 회의실이있는 3층으로 뛰어올라갔는데 회의실 입구에서 있던 석공직원들이 가로막자 朴씨와宋씨가 각각 길이20cm가량의 과도로 자신들의배를 찔렀다는것.

朴씨등에 따르면 寧越탄광덕대업자들은 지난75년 석공에서 3년전에 이용가치가없다고 폐광시킨寧越광업소의 조광권을 석공으로부터 인수받아 25억여원을 투자、갱도 개척등 채광시설을 했었는데 채탄이 다시가능하게되자 석공은 조광권이 만료된 지난80년3월 직영하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는것이다.

墳墓면적 9坪으로
千保社、환경관련公務員에 司法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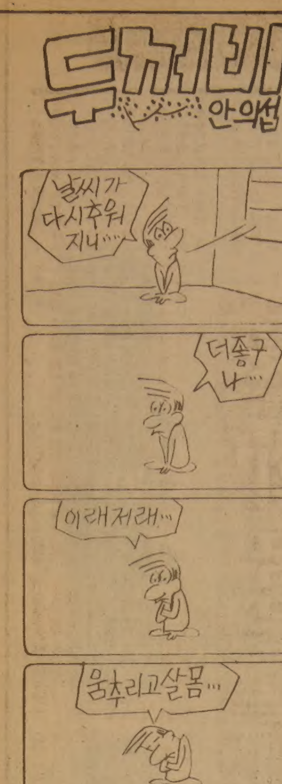
千命基보사장관은 6일현재 24坪으로 된 墳墓허용면적을 9坪으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마련、가까운 시일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千장관은 이날 국회답변에서 이같이밝히고 또『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각부처에 분산해있는 해양오염방지관련업무를 환경청으로 통합조정이 시급하며 환경청에서 관장할경우 관계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修學여행 전용列車
서울-慶州4일운영

철도청은 중고교생의 수학여행자유화조치에따라 서울—慶州간의 수학여행 전용열차를 오는4월부터 2개월간운영하기로했다.

수학여행전용열차는 보통열차의 객차10량으로 편성、1천여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서울—慶州간을 하루 1왕복 운행한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 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화,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김명종 한약방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745-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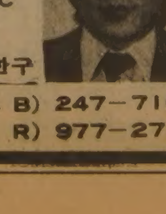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의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368-4215, 368-0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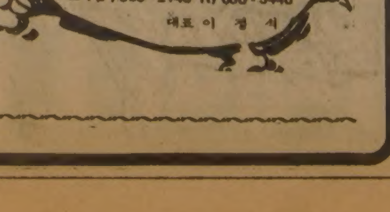
당신의 운명을 말해드립니다
(손금 카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드림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당신께 꼭히 도움이 되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어느분이든 예외없이 충고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와 보세요! 초능력적인 힘을 보실것입니다.
●예약은 필요없읍니다.
PRIVATE AND CONFIDENTIAL READINGS
291 AUGUSTA AVE
921-0552 7일 오픈 9시~저녁9시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 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loor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533-7966 김 영 철

한국일보 (특집판)

당신도 150세를 살수있다

中年期엔 종합診斷을

◇중년 이후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질병이 찾아든다。정기적으로 종합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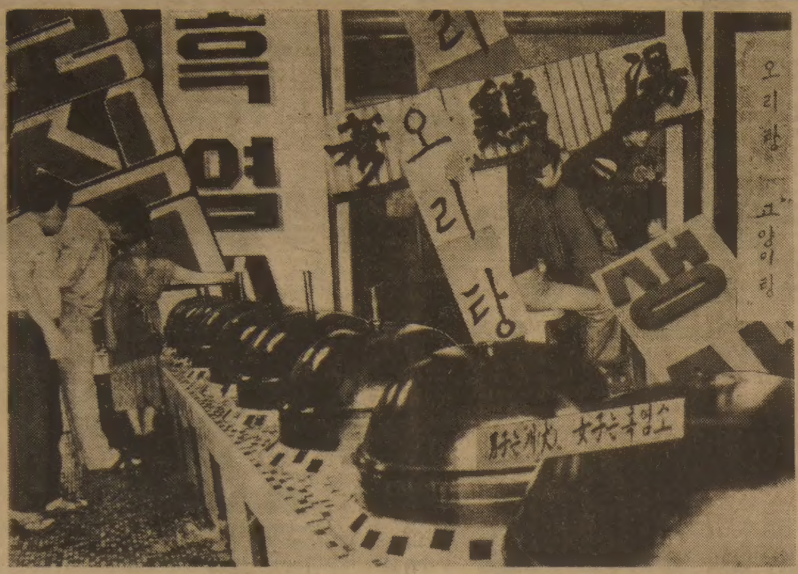
自覺症오면 惡化된 상태
미리 체크…異常찾아내야
長·短期 두코스·컴퓨터檢診도…비용15~40만원線

老衰와 각종공해등으로 인체는 스스로 지각할 수 없는 건강의 위험에 빠지다。

심장병、신경통、암등이 그것。그러나 이러한 성인병들은 서서히 나타나기때문에 이를 미리 알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강생활의 지혜다。이들 성인병의 특징은 질병의 증세가 신체적인 어떤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태여서 병을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는 수가많다。특히 40대이후의 중년기에는 이런현상들이 두렷하게 나타나 成人病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비만、고혈압、당뇨병、담석증、간장병、…

따라서이럴때는종합진단을 받아 빨리 몸의 이상을 발견해내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이게 바로 종합건강진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好況구가하는「精力의 產室」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먹으려는 인간의 식성엔 끝이없다。뱀、개、흑염소、사슴등은 이미알려진것이고 지렁이、달팽이까지 먹으려든다。이러한 보신원은 서울에만도 즐비하게깔려있다。

長壽의 꿈은 끝이없다
뱀불고기까지 등장한 強精強壯의 現場

서울한복판 청진동의 Y 뱀탕집。언뜻 보기만해도 소름끼치는 뱀들이 또아리를틀고 진열장안에 전시돼 있다。한낮 선글라스의 30대의 젊은여인이 문을열고 들어선다。주위의 시선이 쏠리기가 무섭게 귀빈실로 안내된다。종업원이 단골손님이라는듯 눈짓을 한다。

「이브는 뱀의유혹에약하다던가」。최근들어 뱀탕집을찾는 여자들이 많아졌다고 종업원이 넌지시 귀띔해준다。

뱀은 예부터 신비의 영약으로 알려져 왔다。그래서 뱀은 수난의 대상이 되어왔고。『뱀이정력에 좋다는건 이미 알려진 일이죠。해소병、폐병、위장병에도 뱀탕처럼 효험이 있는건없어요』—주인의 뱀 예찬론。

뱀에는 독사、살무사、능구렁이、화사、석화사등 7~8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고산지대에서 사는 칠점사를 최고로 친다。양기돋우는덴 그만한게 없다는것。임자만 만나면 부르는게 값。

뱀·土龍·보신탕등 人氣
女性애호가 부쩍 늘어
흑염소탕盛業…4~5日씩待機도
사슴牧場엔自家用행렬줄이어

……[金周彦기자]

밤중에 응급患者가 생겼을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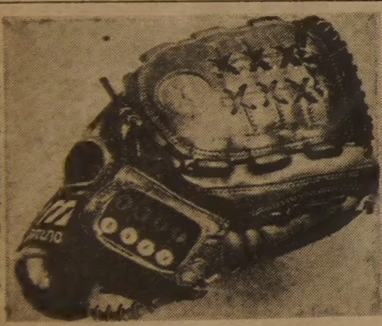
◇종합병원 전화번호 ※야간구급환자신고센터 ⑺9751~4

병 원	전화번호	병 원	전화번호
서울 대학 병원	<7601>2473	시립 동부 병원	⑼0990
이대 부속 병원	⑺5061, 5071	서울 위생 병원	⑼0191~7
고 려 병 원	⑺8021, 8601	성바오로 병원	⑼0121~5
고대 부속 병원	⑺5111	경 희 의 료 원	⑼7203
한 국 병 원	⑺1461	동산 성심 병원	⑼3601
국 립 의 료 원	⑵9131~49	성 가 병 원	⑻5401~5
성 모 병 원	⑺76	청구 성심 병원	⑶5511~9
백 병 원	⑵8107	세브란스 병원	⑶0161~79
한 일 병 원	⑻3221~7	새마음종합병원	⑶3251
성 심 병 원	⑵0141	국립 원호 병원	⑹0011~5
을 지 병 원	⑵1631~7	시립영등포병원	⑹9261~3
제 일 병 원	⑹9751	한강 성심 병원	⑹9111~6
국립 서울 병원	⑼0011~20	강남 성심 병원	⑻0111
순 천 향 병 원	⑺7191~8	서울적십자병원	⑺4581~5
국립 경찰 병원	⑵9171~5	시립 강남 병원	⑹6011~9
한양대부속병원	⑵8145	강남 성모 병원	⑸3020

夜間진료의원에 연락을
救急환자申告센터도 徹夜대기

……

野球 획기적 새裝備
日미즈노社 사인교환 電子장치 考案



◇투·포수의 사인교환을위한 MELBA。값은 2백달러。

監督지시 選手헬밋속서 듣고
投·捕手글러브 球質신호 1프
實感살린 컴퓨터 피칭연습장치, 지

야구종목의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데뷔와 때를맞추어 야구선수들은 획기적인 새장비를 사용할수있게되었다。지난2월 세계적인 스포츠용구 메이커인日本(오오사까)의 미즈노社는 경기나 연습중 선수들의 사인교환방법에 혁명을 불러일으킬 몇가지의 전자장치를 고안해냈다。

……[方曙漢기자]

실업선발、예일大에 完勝
여자테니스 招請경기첫날 6―0

……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533—2361

한국、印尼와 1對1 接戰
데이비스컵테니스 東部예선준결승전 全瑛大 이기고 金春浩 져

【자카르타 6日 聯合】……

레슬링·柔道·씨름 3개 경기단체
새집행부로 새出發

◇裵鍾烈유도協회장 ◇李健熙레슬링 ◇蔡元植씨름

戰型別 챔피언 12명가려
탁구、女中 드라이브型선 金延順

해글러·헌즈 對戰 契約체결、시기未定

海軍·第一銀비겨 韓電·韓一銀戰도
코리안리그蹴球

大邱·慶北高이겨 體典야구 평가전

……

블론디 딘·영 作

"쿠키,넌 항상 모든일에 비밀이 너무 많아" "나도 알아… 그리고 그짓도 그만 집어치우려고 해" "언제부터?" "가르쳐줘"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54>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㊶

……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6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이락, 김한호
☎: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595 KEELE ST. TOR. ☎: 762-3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O. K. 오토바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꽃 집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247-7161 이 한 구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881-5000

소 독

ZAP SUREKILLER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퍼드 써브웨이) ☎: 221-11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얼 Life (김 홍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530-0523

Mister Oh for Men
☎: 964-2606, 869-0589, 275-2187

치 과

D. Mark Kochman ☎: 233-9454
(월, 토)9 : 00A. M~6 : 00P. M. (목)9 : 00A. M~9 : 00P. M. 3101 Bloor St. W. Ste. 20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신용조합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363-0097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533-9387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1454 DUNDAS ST. E. SUITE 110
☎: 273-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 A. Firm Accountant ☎: 661-1819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763-1155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499-5079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298-3584

약 국

돈 밀 약 국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368-2746
조 남 오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 C. I. C. R. M.
*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B)536-6854 (R)743-0752

신비의 생 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248-1362(R), 769-4347(B)

인 쇄

윌슨인쇄소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8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 주보 • 명함 • 청첩장 •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용 대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535-3520 곽 호 중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741-7829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742-1205(B), 745-1632(R) Mr.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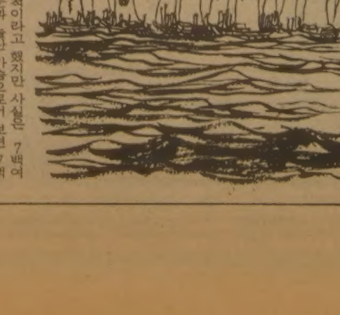
流星의 盜賊

<32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①

기록에의하면 왜군이 부산앞바다에 나타난 것은 1592년4월13일 오후 다섯시。
동래(東萊)의 한사(寒士) 백운겸(白雲謙)이 남긴 기록이 있다。
『바야흐로 방춘사월(芳春四月)의 십삼일。 문우(文友) 정모와 문모와 어울려 동래기생 수삼녀를 데리고 절영도남단(絕影島南端)에서 시회(詩會)를 베풀었다。 창파 눈 앞에 있고 그 창파에서 가효(佳肴)를 얻어 기녀의 권주가도 있었는지라 한참 주흥이 일어 신나게 놀다가 어느덧 낮잠을 자게된 것은 13일의 월색(月色)을 기대하고 월하지유(月下之遊)를 피하는 마음이었는데 놀연 기녀(妓女)의 교성으로 단잠을 깨었는데 이는 어떠한지고、안전에 전개된 것은 창파가 아니고 무려 수천척의 군선(軍船)이 아닌가。 배마다 청 홍 백、갖가지의 깃발을 단것이 석양에 눈부셔서 이것이 어떻게된 것인가 했더니 정모 소리쳐 말하길 이는 왜병이다、왜병의 도래이다하는 것이 아닌가。 취기(醉氣) 일조에 깨어 혼비백산(魂飛魄散) 산을 넘어 허둥지둥 달려 나룻배를 타긴 했는데 사공의 간담은 이미 육신을 떠났는지 배를 저어도 행방이 일정하지 못하더라。 겨우 대안에 닿고 보니 부산포의 사탐을 납부여대하고 피난길을 떠나는데 우리도 발 놓이는 곳을 몰라 집에까지 허둥대어 돌아오니 밤은 이미 이경(二更)을 지났도다。 어허 어떻게 될것인고、이 난리는! 노모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데 불효자는 어쩔 줄을 몰라 했더라…』



배운겸이 군선 수천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7백여척이었다。 술에 취한 눈과 놀란 가슴으로서 보면 7백척이 수천척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임진의 대란은 발발했다。 그때의 일본 선봉장은 수길이 이미 정해놓은 1번대장 소서행장(小西行長)이다。 그 요장(僚將)으로선 종의지(宗義智) 이하 4명、병력은 도합 1만8천7백여명。
이에 대응할 부산의 방어태세는
부산진 첨사(釜山鎭僉使) 정발(鄭撥)、
다대포진 첨사 윤홍신(尹興信)、
동래부 부사 송상현(宋象賢)、
양산군 군수 조영각(趙英珏)、
등으로 그 배하의 군사는 5천명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원균(元均)이 조정에 올린 제1보는
『금 4월13일、신시(申時)에 90척으로 보이는 왜선(倭船)이 추이도(杻伊島)를 지나 부산포로 향하고 있다』
는 것이었고 제2보엔 90척을 150척으로 수정하고 있다。
경상감사 김수의 보고는
『왜선 4백여척이 부산포 건너편에서 정박중이라』
고 했고
경상우병사 김성일은
『적선은 불과 4백이며 한배에 수십명을 태운데 지나지 않으니 모두 합하여 만명에도 차지 못한다』
고 했다。
그러나 그 선봉대의 병력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2번대、3번대의 병력이 속속 밀려올 것이니 말이다。
아울든 목전에 닥친 적의 병력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海 外 걸 작 漫 畵

『동전이 레몬水로 바뀌어 나와요.』 (동전환전소)
"It changes coins into lemonade."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Donuts Shop에서 풀타임 오전 8:00~오후 4:30 일하실 여자분 구함. 직접내방 바람. (영×칼레지 써브웨이 안)

Full Time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 598-2546(다운타운지역)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최석봉 씨를,
양찬국씨가 찾읍니다.
샌프란시스코(미국)
☎ : 1-415-582-3124, 1-415-581-4211

3명의 아이들을 돌봐줄 하우스키퍼 구함.
베다스트와 휜치근방. 영어해야 함.
☎ : 665-4122 OR 536-7169

Donuts Shop(11시P·M~7A·M.)
☎ : 743-3822, 222-3877
키프링 × 알덴

저녁시간에 Waitress로 파트타임 일하실분은 오후 4시이후에 Nikko Garden으로 오셔서 Mr. Gus에게 문의바람(460 Dundas St. W.)

일요일에 가게 캐셔해주실 분
유경험자 한함.(킹스톤 × 미드랜드)
☎ : 266-6355

가족처럼 함께 가게일을 돌볼
여자분 구함. 침식도 제공.
☎ : 1-727-3721

매매및 양도

① 도너츠와 햄버거
도너츠 주매상 : $4.500 햄버거 주매상 : $2.500
비데오 머신에서만 월수입 : $10.000
요구액 : $289.000
②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500(일종의 Tuck Shop)
요구액 : $32.000
③ 점포와 3베드룸 아파트, 요구액 : $82.000
이 훈ㄷ 부동산 ☎ : 225-1204

비데오 아케이트 세일
15머신+REFRESHMENT라이센스. 아스킹 : $30.000
☎ : 691-8337(Mr. 진 : 12시이후 연락바람)

외국인이 경영하는 20여년의 역사를 갖고있는 기가막힌 위치에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 : 466-4091(Mr. Bert)

외국인이 경영하는 플라자에 위치한 타번(Tavern) 레스토랑 급매 주6일영업. 주류면허있음.
아스킹 : $30.000 ☎ : (B)742-0196. (R)243-8079

테이크 아웃(피쉬. 칩스. 버거스)짧은영업시간
GOOD FOR CHINESE FOOD(스카보로지역)
렌트 : $650 리스 : 11년 ☎ : (B)299-1713(R)438-9899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성업중이나 부인혼자 운영이 벅찬관계로 팔고자함
년매상 : $400,000 주매상 : $7,000~$9,000
렌트 : $450(5년간)1986년까지 $500(5년간)1991년까지
(No Increase, Heating은 Rent에 포함되어있음)
영업시간 : 주당 59시간(일요일은 쉼) 다운페이 : $35,000+스탁
☎ : (B)541-364-5267, (R)514-694-2651(Mrs. Yoo)

성업중인 수퍼마켓 매매
냉동식품, 우유제품, 그로서리, 야채류,
과일 그리고 고기(육류)등 취급.
동쪽끝 지역
☎ : 466-8283 (Mr. Mett)

외국인이 경영하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 : 463-3893

Smoke & Gift((Bloor×Bay)
주6일경영 8 : 00AM. 6 : 30 P.M
Long Lease ☎ : 964-3749

버라이어티 & 밀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500~$4,000
렌트 : $525 (월) 비데오 머신 있음.
아스킹 : $25,000 + 스탁
관심있으신 분 연락 바람.
443 Kerr St. Oakville. ☎ : 844-6741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2베드룸 포함한 과일, 야채, 그로서리가게 매매
주매상 : $6,000 아스킹 : $49,000+스탁
관심있으신분 아래주소로 내방바람.
143 Roncesballes Ave. (Dundas W. Subway에서 5분거리에 위치함.)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 쿨러, 밀크쿨러, 후로존, 저울, 과일선반
☎ : 485-9419

Convenience Store (900 Sq. ft.)
년매상 : $300,000 (Midland × St. Clair)
☎ : 267-8747(Tom Sherman)

외국인이 경영하는 도너츠 프렌차이스 스토아
토론토에서 1시간거리(오샤와부근)
년매상 : 20만불이상
액셀런트 리스 (큰 파킹장 구비하고있음)
☎ : 1-885-2556(오후5시이후 연락바람)

벡커 스토아 급매
☎ : 535-3550

"집수리 일체"시설및 수리(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 : 425-8585

고급주택, 건축용대지 2에이커(200×438)
Aurora 북쪽, Hwy 404로 30분이면 시내도착
$84,900 ☎ : 1-898-3298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독신자원함)
Pape Subway 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가구달린 베드룸 세놓음
독신자 환영(월 $200)
565 PAPE AVE. ☎ : 439-7093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 업 인 협 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5일에 $13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도서판매

한국전집 (수입품)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 : 690-2216 Mr. 최규흥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고려식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갛합니다.
● ' 파킹 LOT 마련.
☎ : 2-1054(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오후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8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악기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매매 부동산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361-0880

ROYAL TRUST (유목영)
☎ : 762-8255 West 지역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한국일보 안내광고 ∗

1982

MISS KOREA

미스KOREA선발대회

●후라이보이 곽규석

원맨쇼의 제1인자
익살과 재치의 명사회

●만능연예인 피세영

연극배우·성우·디스크쟈키

특별출연!!

이숙

●인기절정의 가수

달콤한 멜로디
향수어린 정서

●격정적 선율의 신나는6인조악단

=조상국(드럼·섹스폰)·조경희(베이스)· 박정자(기타)·
전미숙(키보드)·김경분(올갠)· 장남홍(싱거)

서유미

●히트송"눈이내리네"

71년도 한국가요 신인가수상 수상
뉴욕연예계서 활약중인 육체파 가수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 상품기증 —(미도파백화점 기증)
진 : 미도파백화점 보석부에서
진주목걸이, 반지, 귀걸이 14KGold
선 : 고급화장품 1Set
미 : 고급화장품 1Set
인기상 : 고급화장품 1Set

일시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 시청뒤)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후원 : 한국일보사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 가 신 청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LBS
바 스 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